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1. 경기종합지수

2. 통계로 보는 Economic 프리즘

- '17년, 세계 경제 전망
회복 or 장기 침체, 어떻게 진행될까?
- 2017년 우리나라 경제전망, 기관별 비교하기

3. 다시보는 2016년 Economic 프리즘

4. 충남경제뉴스

- 충남경제뉴스

5. 부록

-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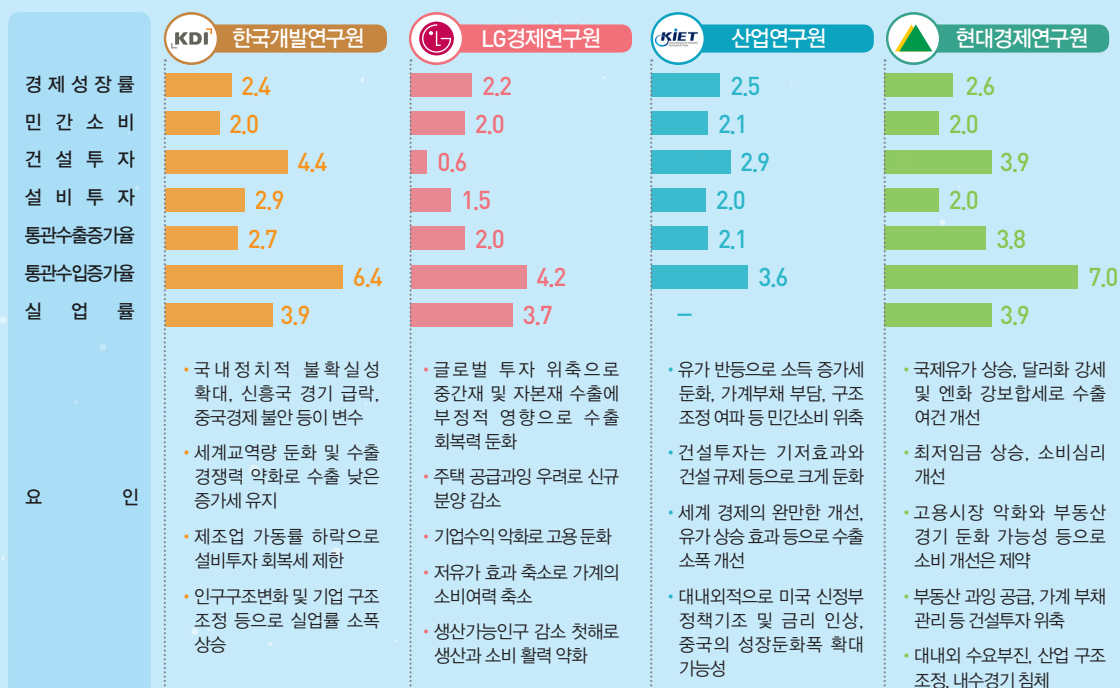
ISSN 2093-0844

December 201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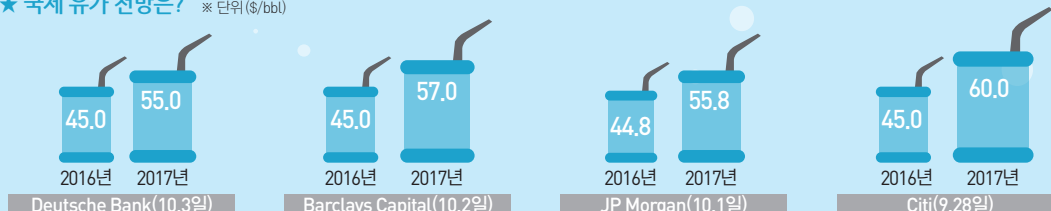
2017년 우리나라 경제전망, 기관별 비교하기



★ 각 기관의 2017년 경제 부문별 전망과 요인은? ※ 단위 (%)



★ 국제 유가 전망은? ※ 단위 (\$/bbl)



Contents

2016. 12 DECEMBER

02 총괄

03 경기종합지수

04 통계로 보는 Economic 프리즘

04 '17년, 세계 경제 전망!

회복 or 장기 침체, 어떻게 진행될까?

06 2017년 우리나라 경제전망, 기관별 비교하기

08 다시보는 2016년 Economic 프리즘

52 충남경제뉴스

59 부록

60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61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63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78 4. 주요 해외경제지표



ISSN 2093-0844

발행인 안희정 · 강현수

편집위원장 김하균 · 김양중

집필진 | 총괄 | 김양중 | 경제동향 | 백운성, 이민정, 김혜정 | 경제일지 | 정은택, 김혜진

발행처 충청남도 · 충남연구원

연락처 (041)840-1165

편집위원 김현철 · 신동호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팩스 (041)840-1129

월간 충남경제의 세부파일은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와

충남연구원(<http://www.cni.re.kr>)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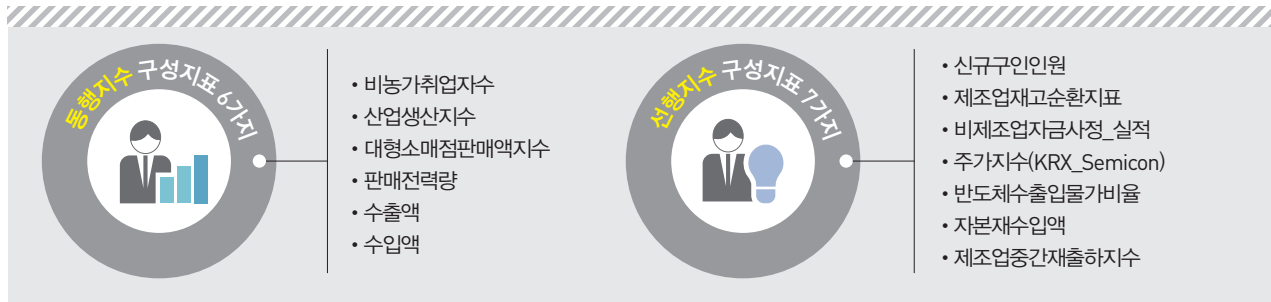
충남경제동향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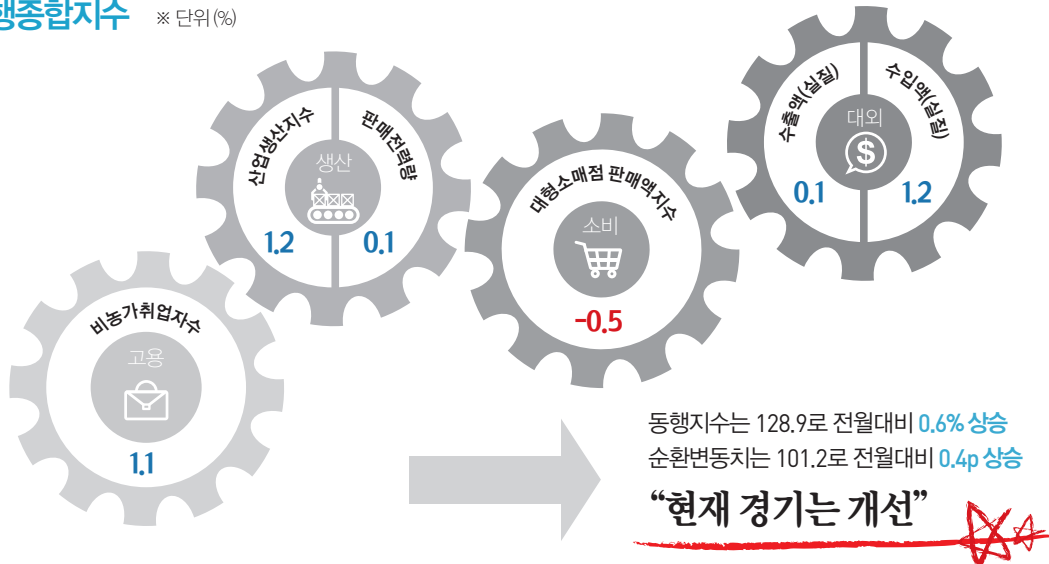
- 최근 충남의 경제동향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석유정제 업종의 생산 증가와 재고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가운데 감소하던 수출이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며 미미하지만 경기 개선 조짐이 보임. 다만, 고용시장이 제조업보다 다소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은 일자리 질과 지역민의 소득증대 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대외적으로 2017년 세계는 중국의 수입수요 위축, 보호무역주의 심화, 기업투자 부진 등 부정적 요인이 원자재 가격안정, 주요국 재정확대 등의 긍정적 요인보다 우세할 것으로 보이며, 2% 후반 ~ 3% 초중반의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충남경제에서 중요한 중국이 내수소비 위주의 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경기종합지수 (10월, 2010=10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1.2	전월차(p)	0.4	😊	현재 경기는(동행) 개선, 향후 경기도(선행) 개선 전망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7	전월차(p)	0.5	😊	
생산활동 (10월, 계절조정, 2010=100)	생산지수	121.6	전월비(%)	0.5	😊	전년동월대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석유정제, 금속가공 등의 업종에서 생산과 출하가 증가하였으며 재고도 감소하였음
	출하지수	126.3	전월비(%)	1.4	😊	
	재고지수	143.2	전월비(%)	2.4	😞	
기업 BSI 업황지수 전망 (12월)	제조업	74	전월차(p)	-2	😞	기업들의 경기전망은 대체로 현재의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유지하거나 약간의 변동성이 나타는 모습임
	비제조업	65	전월차(p)	-1	😞	
소비 (10월)	대형소매점 불변지수	154.8	전년동월비(%)	2.4	😊	가전제품, 음식료품의 소비는 증가하였으며 의복, 화장품 등은 감소함
물가 (11월, 2010=100)	소비자	109.7	전년동월비(%)	1.2	😞	가을부터 신선식품의 물가는 크게 상승하였고, 생활물가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하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임
	생활물가	106.7	전년동월비(%)	1.1	😞	
대외거래 (11월, 백만불)	수출	6,335	전년동월비(%)	8.7	😊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컴퓨터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며 대외거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임
	수입	2,298	전년동월비(%)	30.0	😊	
고용 (11월, 천명, %)	경제활동인구	1,297	전년동월비(%)	3.2	😊	30~40대가 고용을 견인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도 견조한 모습을 보임. 산업별로는 제조업은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 시장을 이끄는 모습임
	취업자수	1,274	전년동월비(%)	4.5	😊	
	실업률	1.8	전년동월차(%p)	-1.2	😊	
금융 (10월, %, 개)	어음부도율	0.34	전월차(%p)	0.14	😞	주요 지역별 어음부도율 : (-) 서산(-0.10%p) (+) 천안(+0.56%p)
	신설법인수	282	전월차(개)	+68	😊	
부동산 (11월)	주택매매 가격지수	98.7	전월비(%)	-0.2	😞	주요 매매가격지수 하락 지역 : - 아산(-0.15%), 천안서북구(-0.24%) 주요 전세가격지수 하락 지역 : - 천안서북구(-0.33%)
	주택전세 가격지수	99.3	전월비(%)	-0.1	😞	
건설 (11월 m ²)	건축허가면적	1,212,325	전년동월비(%)	49.9	😞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 : (+)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사회용, 기타 (-) 농수산용
	건축착공면적	583,285	전년동월비(%)	-58.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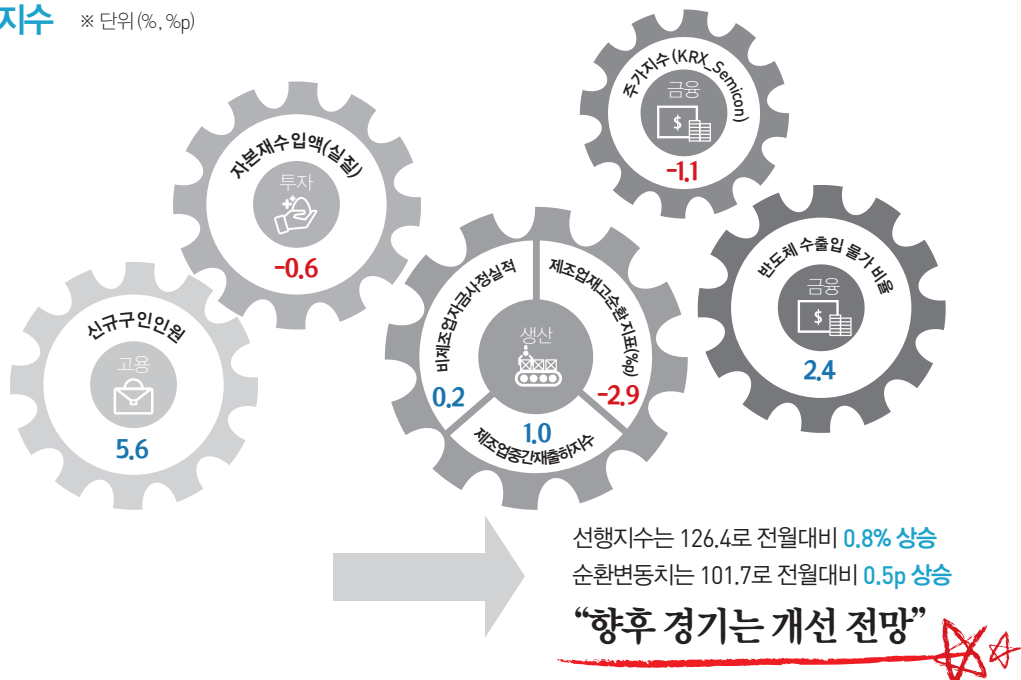
충청남도 경기종합지수 현황은?



동행종합지수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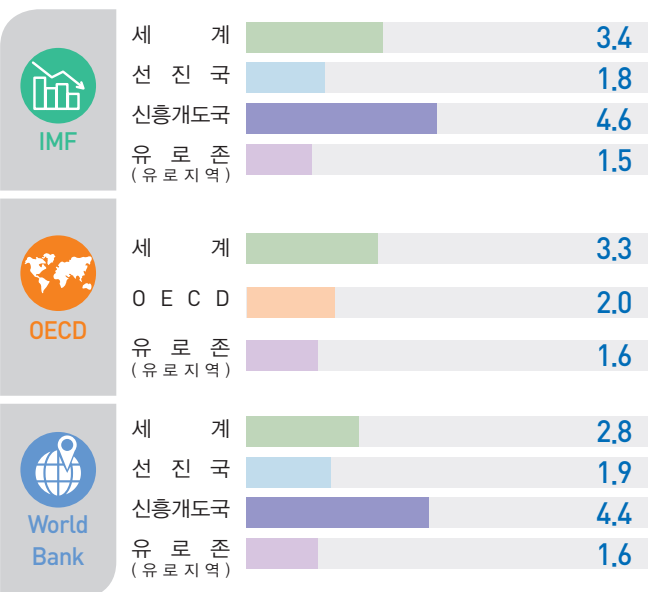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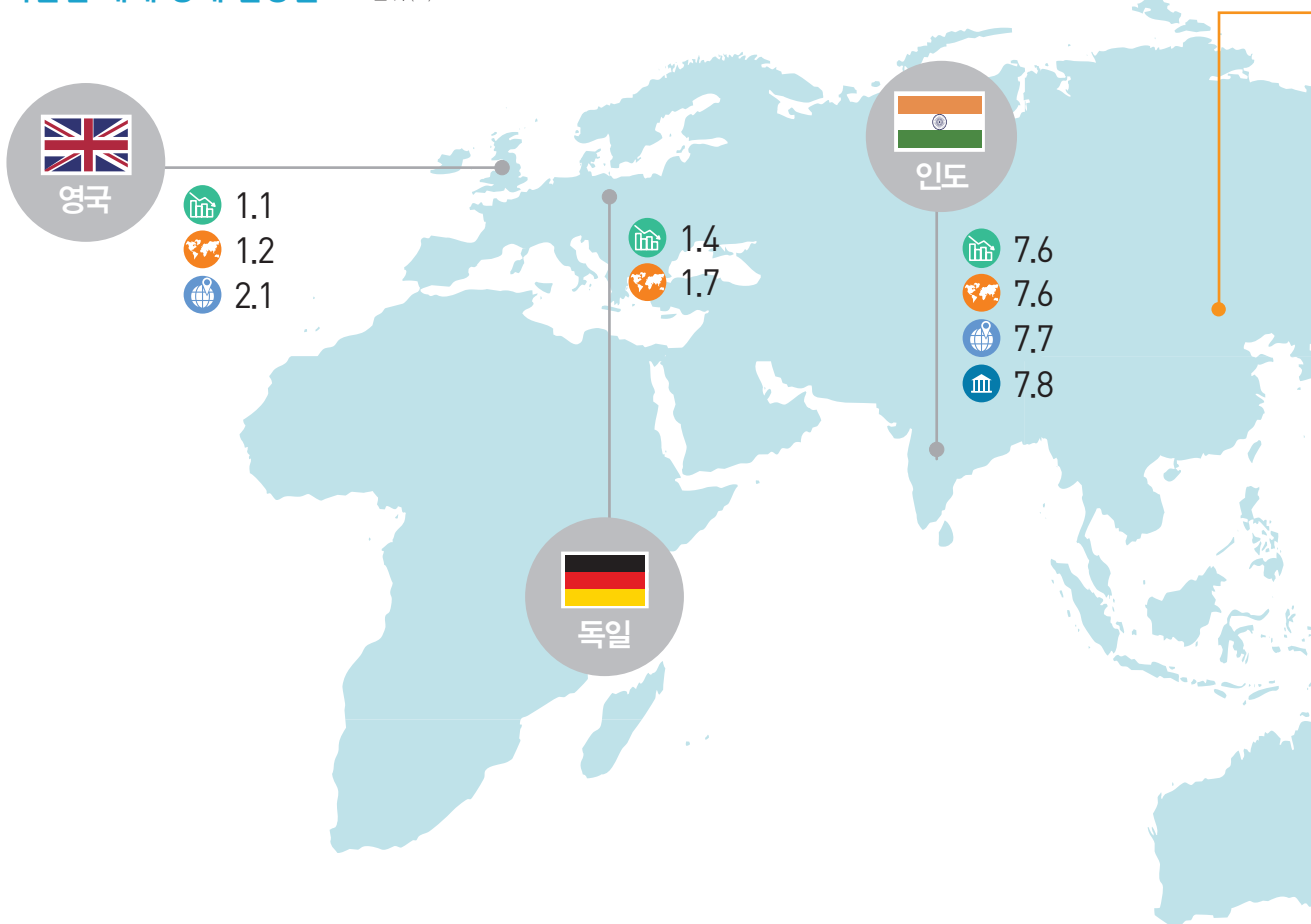


선행종합지수 ※ 단위 (% , %p)



'17년, 세계 경제 전망! 회복 or 장기 침체, 어떻게 진행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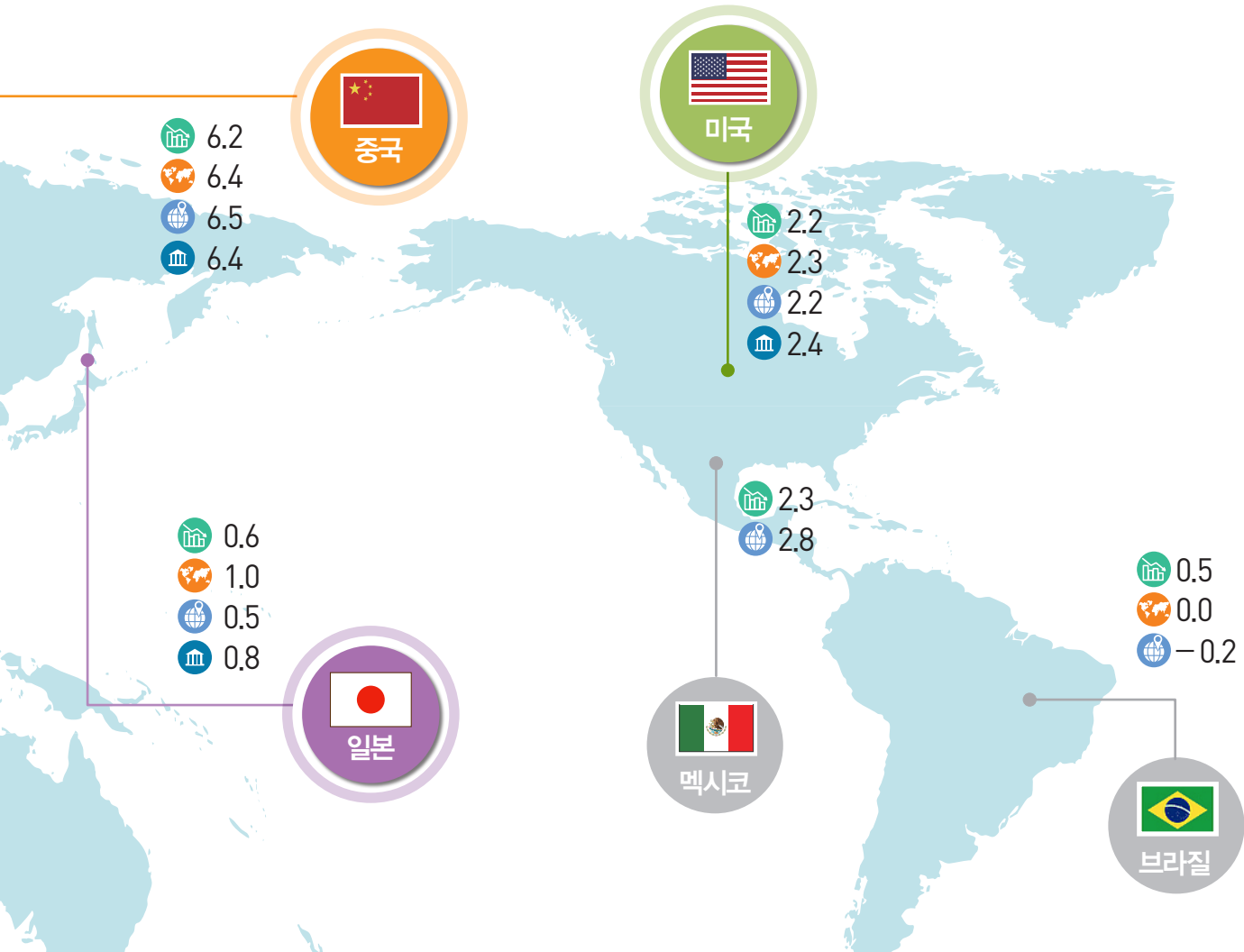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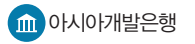
★ 2017년 기관별 세계 경제 전망은? ※ 단위 (%)



★ 2017년 기관별 세계 경제 전망은?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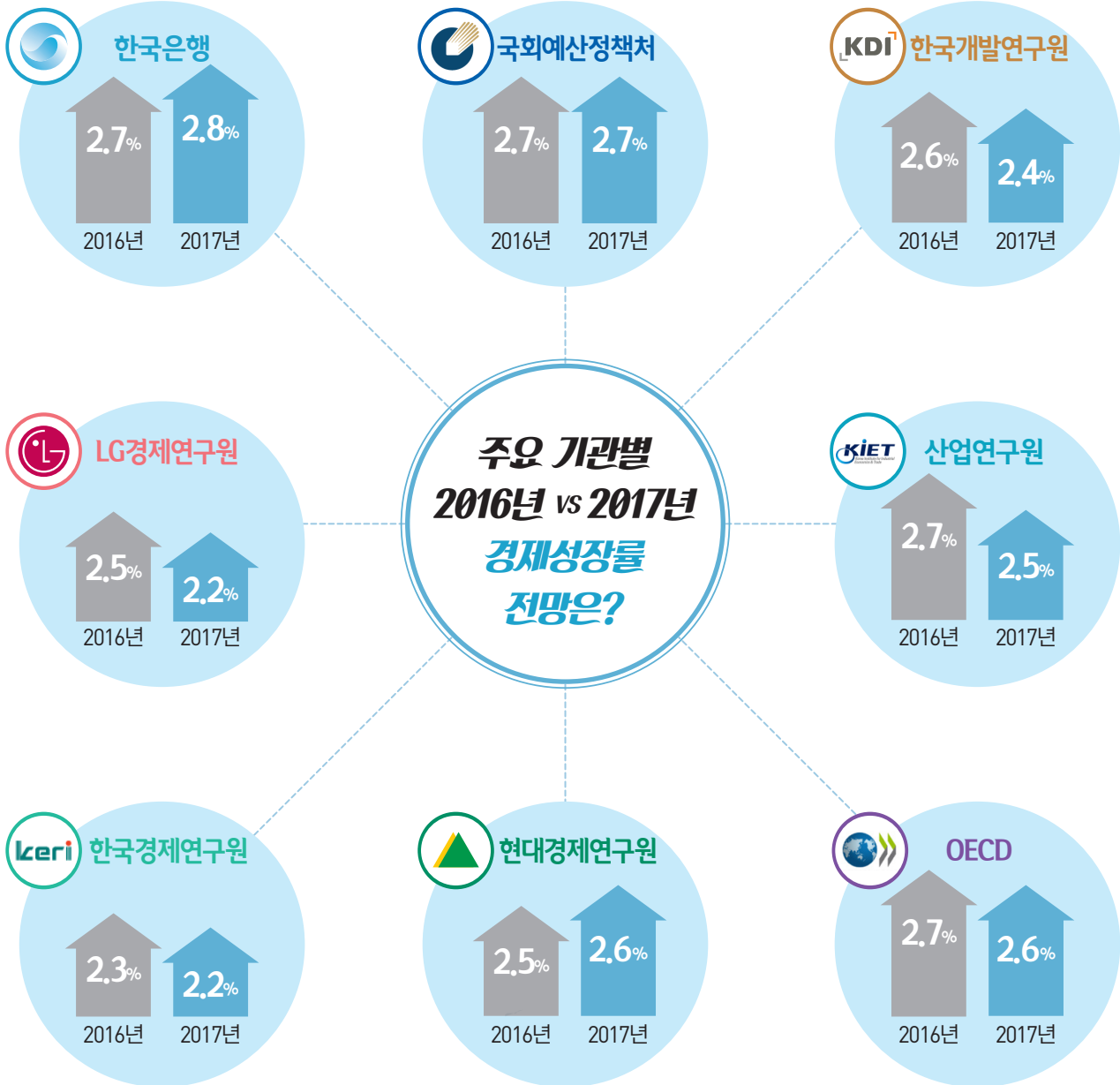
- 중국 수입 위축
- 보호무역주의 심화
- 기업투자 부진
- 저금리 기조로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 주요국 재정확대
- 원자재 가격안정 등으로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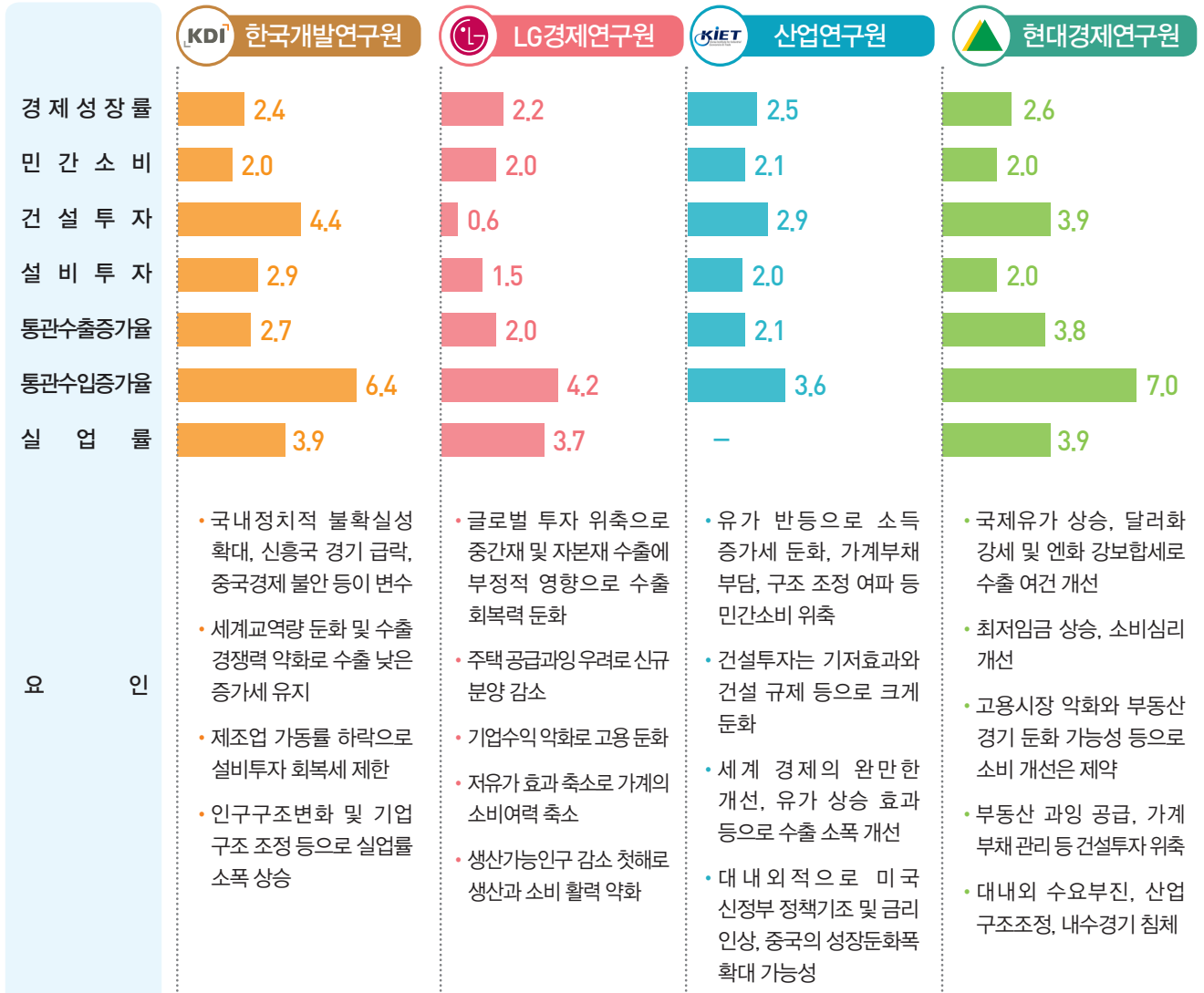
유로지역	미국	중국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투자 부진 내수부진 브렉시트 등으로 교역 감소 난민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투자 부진 달러 강세 신흥국 수요 약화 인구 고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구조전환 (내수·소비중심 재편) 비금융권 기업부채 증가 부동산 과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엔화 강세 글로벌 경기 둔화 인구 고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회복 노동시장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상승 및 고용시장 개선 재정부양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환보유액 충분 공공지출 확대 등 재정여력 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세 인상연기 재정부양책 기업이익 증가

주 1) 세계은행: 시장환율 기준(세계는 구매력평가 기준), IMF 등은 구매력평가 기준 환율 사용 2) IMF('16.10월), OECD('16.11월), WorldBank('16.6월), 아시아개발은행('16.9월)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인용 / 한국경제연구원 "기관별 세계 경제전망" 자료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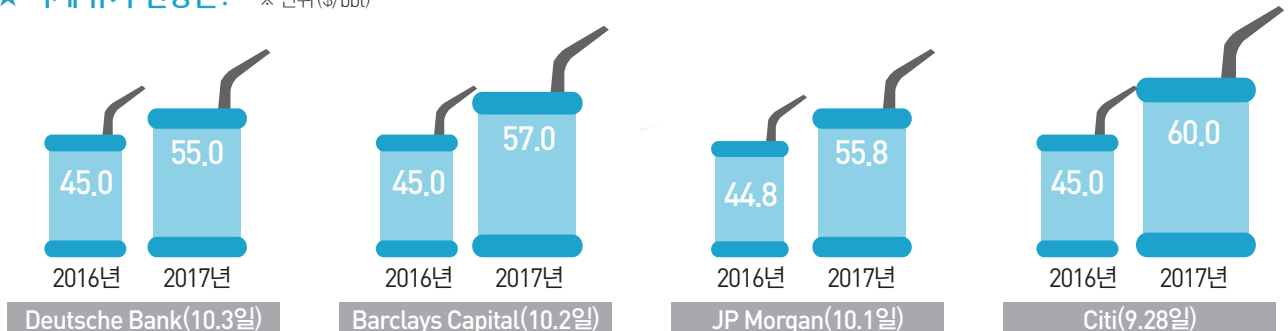
2017년 우리나라 경제전망, 기관별 비교하기



★ 각 기관의 2017년 경제 부문별 전망과 요인은? ※ 단위(%)



★ 국제 유가 전망은? ※ 단위(\$/b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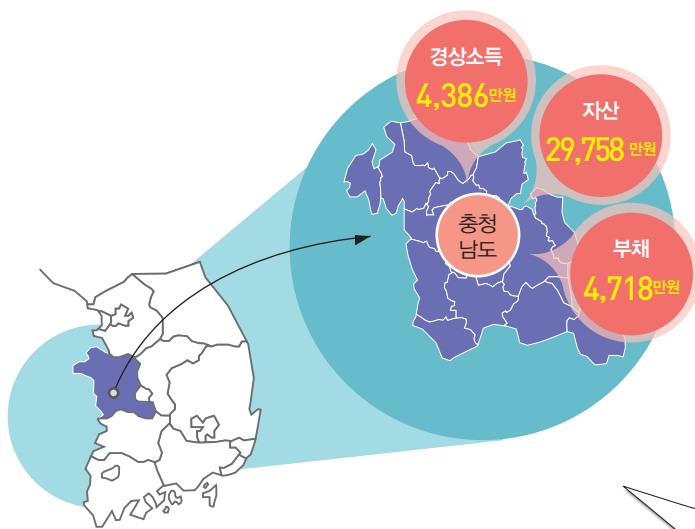
주 1) 한국은행('10.10월), KDI('16.12월), 국회예산정책처('16.9월), LG경제연구원('16.10월), 산업연구원('16.11월), 한국경제연구원('16.9월), 현대경제연구원('16.9월) 발표자료. 2) 각 기관별 전망 시기가 상이한 관계로 전망의 주요 전제 조건들이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 각 기관별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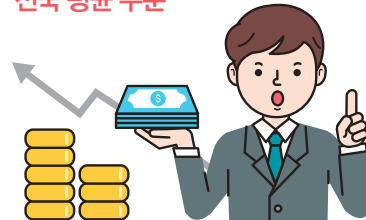
충남 사람들의 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을 이용한 충남지역의 소득, 자산, 부채를 알아보고자 함
- ✓ 충남지역 표본은 4.5%, 평균 가구원수는 2.9명, 가구주 연령은 54.4세로 조사됨(2015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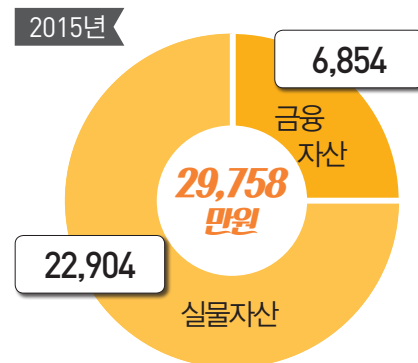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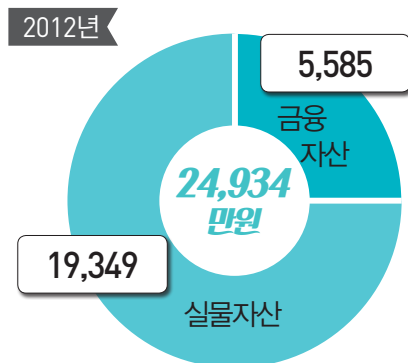
충남의 경상소득, 자산, 부채 현황



- 2015년 전국 16개 시도 중 충남의 경상소득은 9위!, 자산은 5위!, 부채는 7위! 기록
- 경상소득은 인천, 부산 / 자산과 부채는 인접한 대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
- 서울은 경상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8배인데 반해 충남은 1.1배로 전국 평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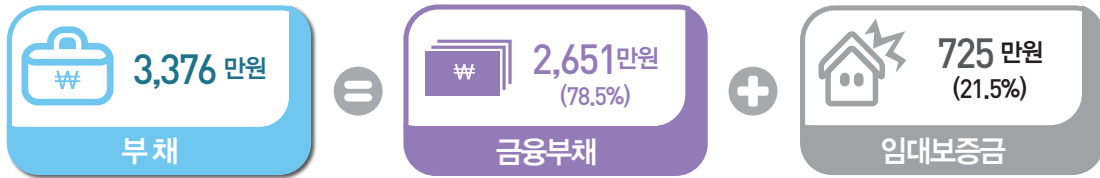
충남지역 자산과 부채의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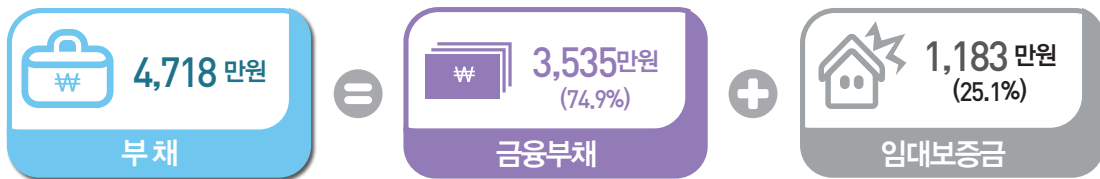
- 자산은 '12년 대비 19.3% 증가하였으며 실물자산은 18.4%, 금융자산은 22.7% 증가
- 동기간 경상소득 증가 21.3%에 못 미치는 수준

2012년

() 안 수치는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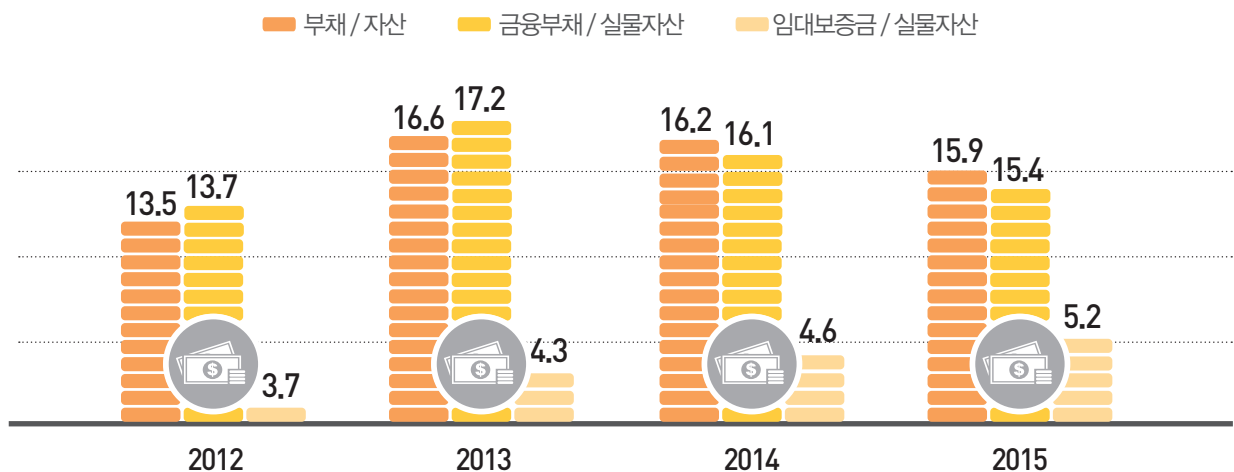


2015년



- 부채는 동기간 39.8% 증가하며 전국 평균 13.4%를 웃도는 수치
- 대부분의 부채는 금융부채로 신용과 가게대출이 포함되어 있으며 33.3% 증가하였고, 최근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가 63.2%로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높은 증가세를 보임

최근 4년간 충남지역의 자산대비 부채 비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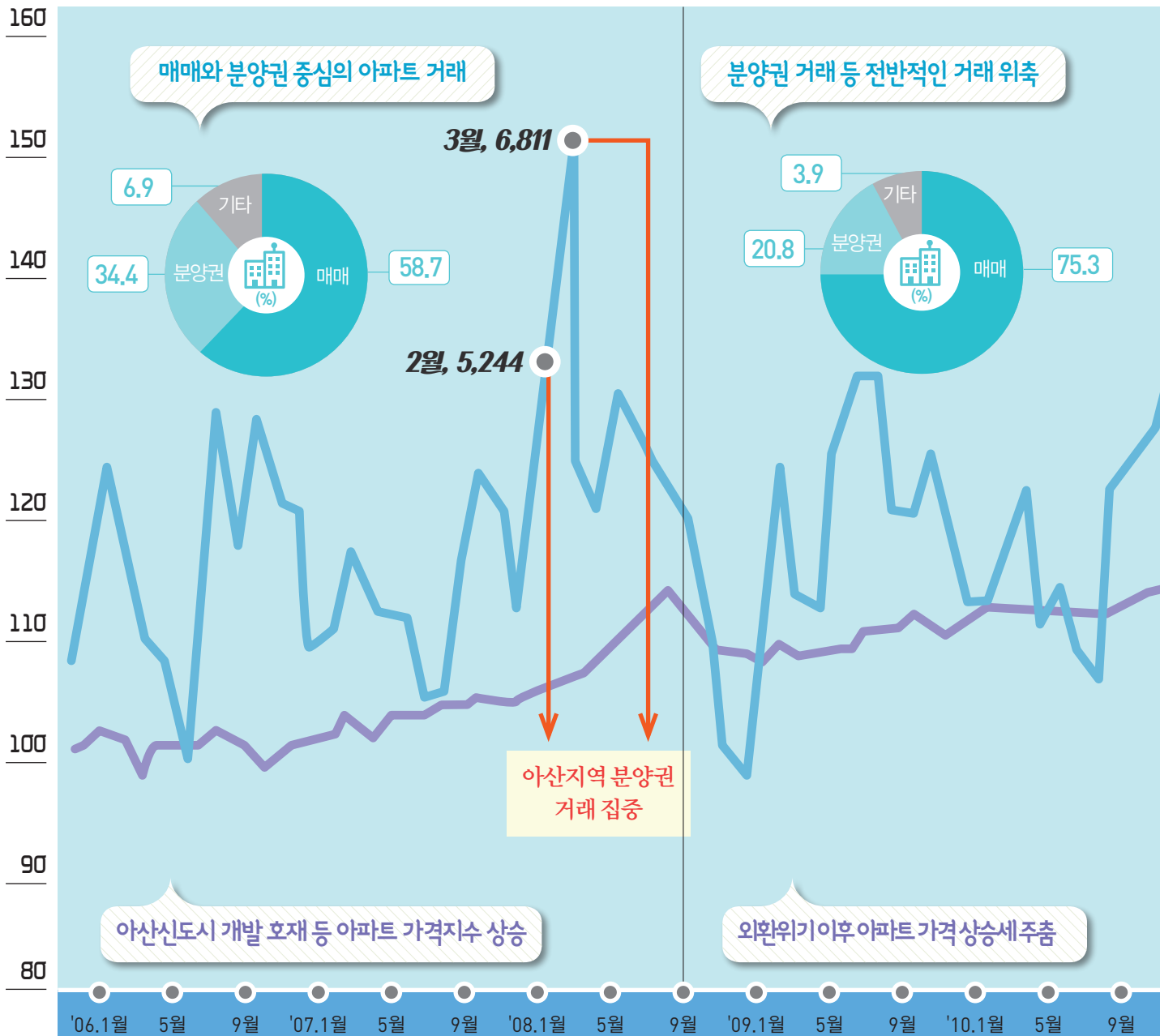


-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면, 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2013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실물자산 대비 세부 부채별로 비교하면, 금융부채 비율은 전체 자산대비 부채 비율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나 실물자산 대비 임대보증금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2015년 충남의 임대보증금 부채의 실물자산 대비 임대보증금 비율은 2015년 전국 16개시도 중 서울(11.8%)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비수도권 평균(4.3%)보다는 높게 나타남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 거래현황으로 본 충남지역 부동산 시장 10년 !! 체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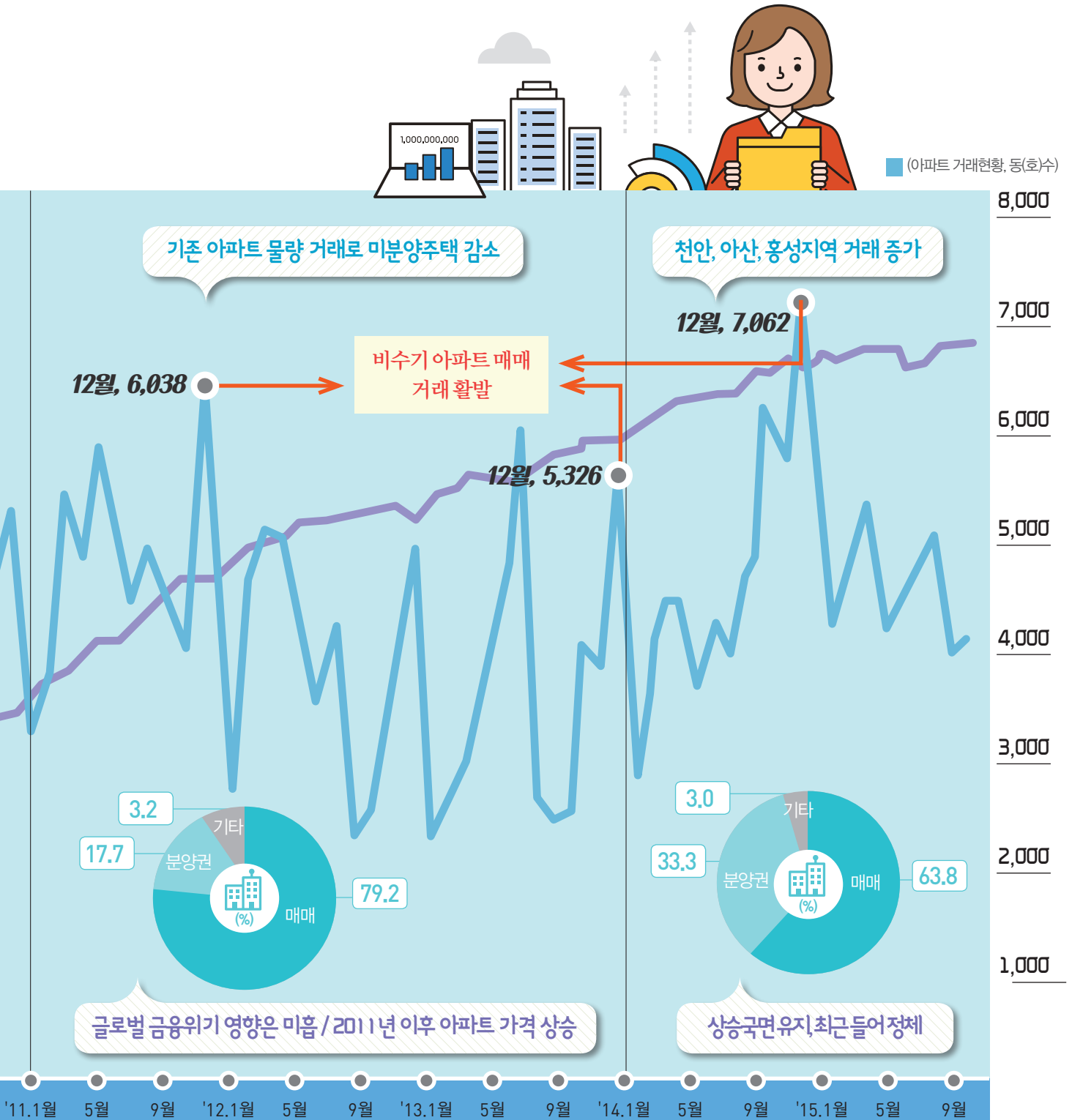
- 아산과 천안지역의 개발 호재로 2008년 3분기까지 거래 실질 및 가격 상승이 이어졌으나 외환 위기 이후 실거래 가격은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남
-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아파트 거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파트 거래 비수기인 12월에 매매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10월과 11월 가을철 분양권 거래 이후 매매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임

■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2006.1=100)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아파트 거래현황

- 또한 최근에는 천안아산지역의 개발과 도청이전으로 인한 홍성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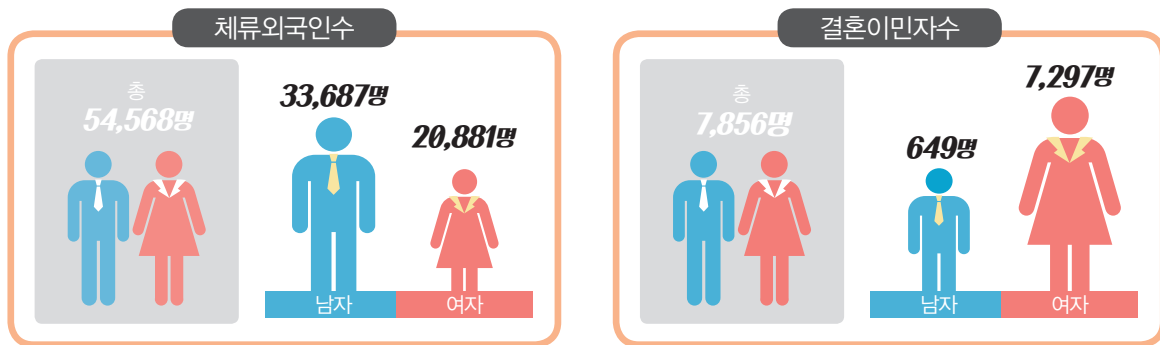
증가하는 외국인 거주자와 아직 제자리 걸음인 인권의식, 충남의 현황은?

✓ 충남의 체류외국인수는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인 존중도의 응답은 30%에도 못미치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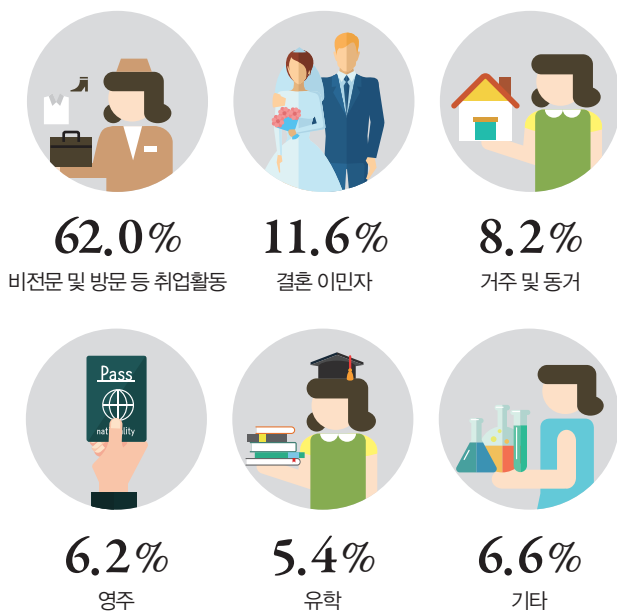
충남지역 체류 외국인 현황

자료 : kosis(통계청), 체류 외국인 통계(2014년)

- 충남의 체류 외국인수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54,568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음
- 취업활동을 제외하면 결혼이민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중 92% 이상이 여성이며 남성은 소수에 불과



체류자격별 현황



체류외국인의 연령별 지역별 분포

- 체류외국인의 주 체류 목적이 취업활동이나 결혼 이민자임을 감안할 때 20~30대의 젊은층이 대다수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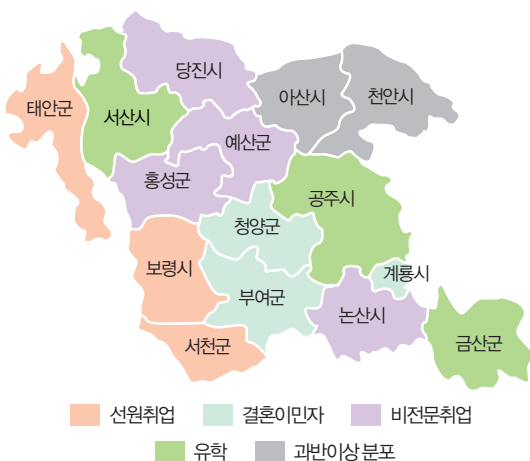
연령별 현황

총계	54,568 명
10대 이하	1,891 명
20대	20,037 명
30대	16,369 명
40대	8,953 명
50대	6,065 명
60대	1,072 명
70대	134 명
80대 이상	47 명

자료 : kosis(통계청) 행정구역(시군구)별/성별/연령별 등록 외국인수

- 천안, 아산 지역에 전체 체류외국인의 54.8%가 거주
- 바다가 인접한 지역은 **선원취업**, 농촌지역은 **결혼 이민자**, 산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취업활동**이 주목적
- 유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학교가 밀집된 아산과 천안지역이 우세하나 공주, 서산, 금산 지역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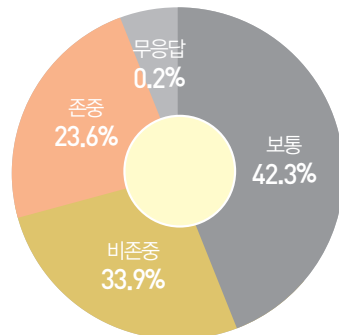
지역별 분포 특성



사회조사로 알아본 존중도 척도

- 외국인에 대한 사회인식은, 결혼귀화자·이민자 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존중도가 낮음
- 외국인의 증가추세와는 달리 외국인 존중에 대한 인식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지속적인 교육, 개선 노력으로 점진적인 인식개선이 필요

외국인노동자 - 존중도 평균점수 4.8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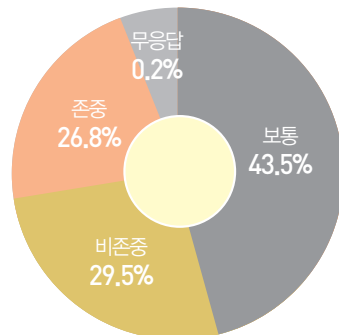
비존중(0점)

4.83점



존중(10점)

결혼귀화자, 이민자 - 존중도 평균점수 5점



비존중(0점)

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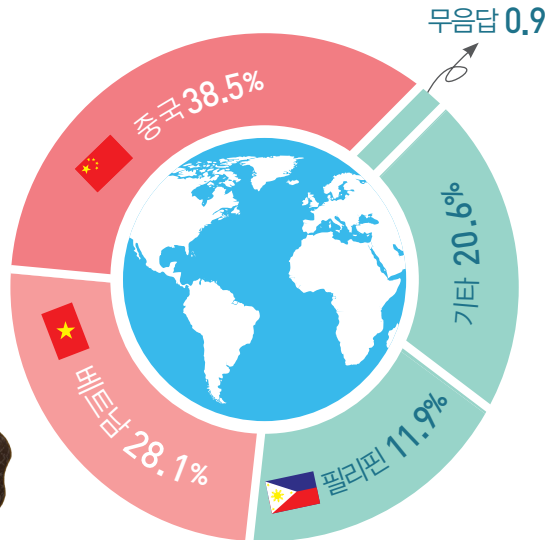
존중(10점)

자료 : kosis(통계청), 충청남도, 충청남도사회조사(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

우리 주변의 다문화 가정, 얼마나 알고 있나요?

다문화가정 국적별 비율

- 충남의 다문화 가정의 국적은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



시군구별 다문화가정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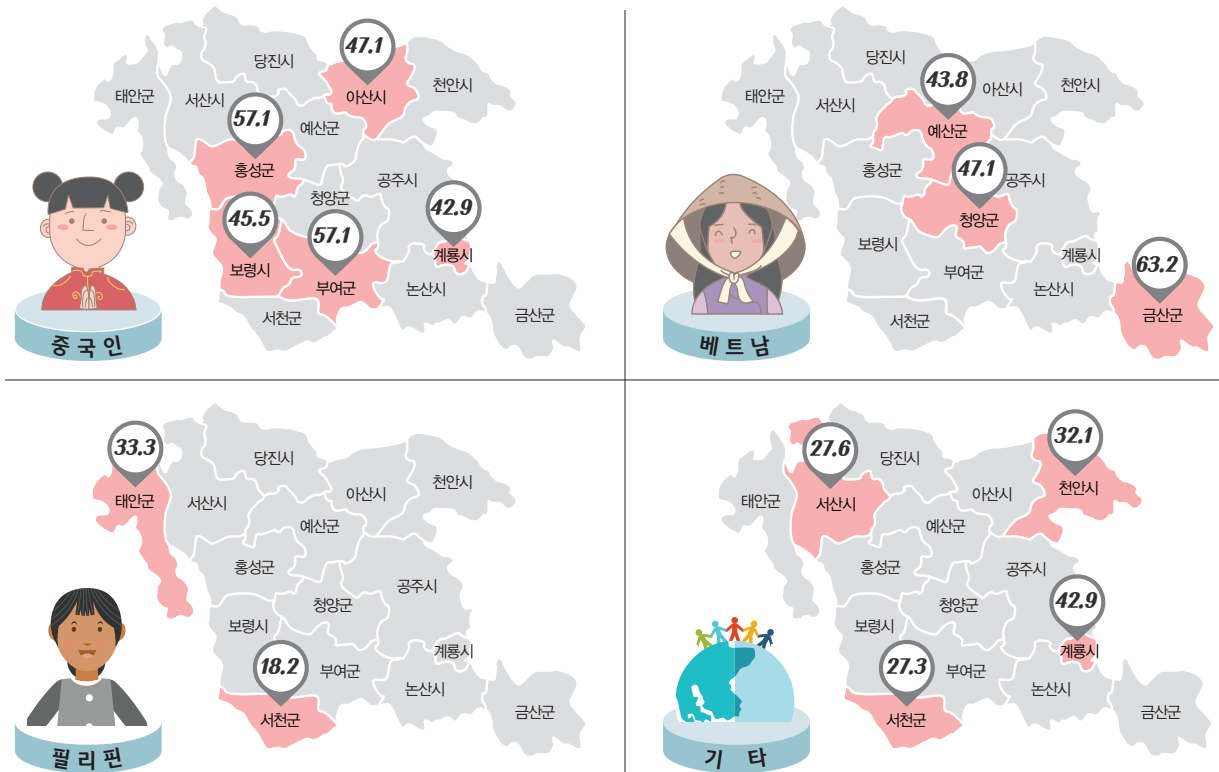


-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보령, 서산, 논산, 금산은 분포 비율이 9%대로 상대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분포가 높음

0~4% : 계룡, 태안 5~8% : 천안, 공주, 아산, 당진, 서천, 홍성
9% 이상 : 보령, 서산, 논산, 금산

시군구별 다문화가정 국적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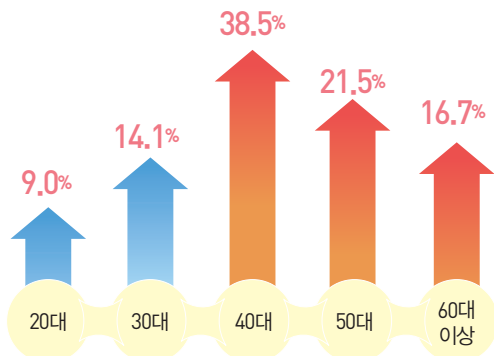
- 국적별 비교를 보면 아산, 홍성, 보령, 부여, 계룡은 '중국', 예산, 청양, 금산은 '베트남', 태안, 서천은 '필리핀'이 우세
- 서산, 천안, 서천의 경우 국적이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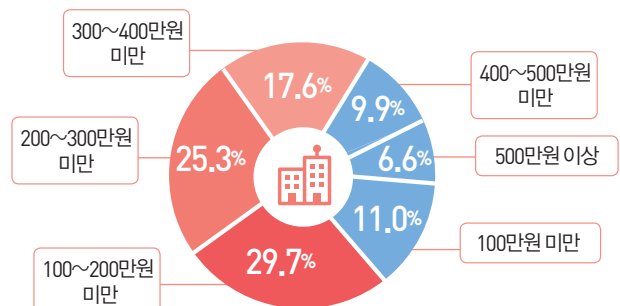
다문화가정의 소득과 연령별 분포

- 충남지역 다문화가정의 소득 분포는 100~200만원 미만인 비중이 가장 높고,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순
-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젊은 층 보다는 40~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고, 연령에 비해 소득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남

연령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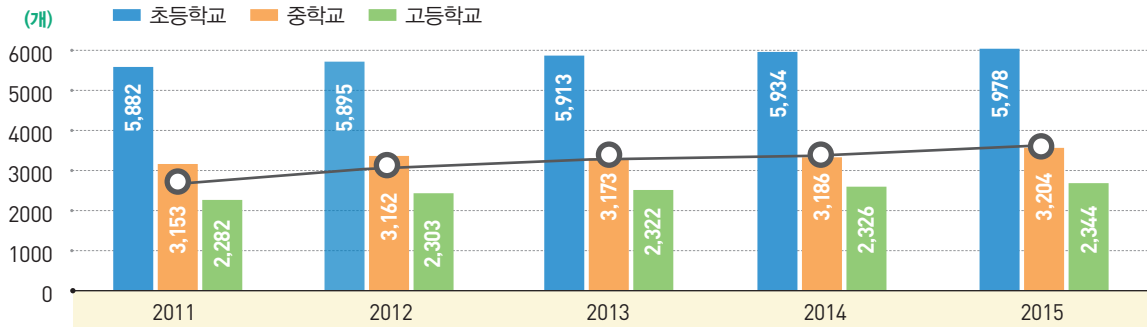


가구 소득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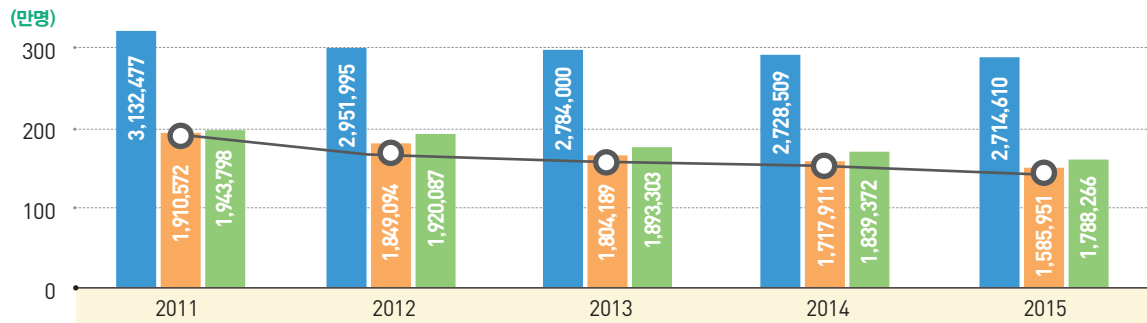


주요 부문별 교육현황, 교육통계로 알아보자!

1 학교 수 증가추세



2 학생 수 감소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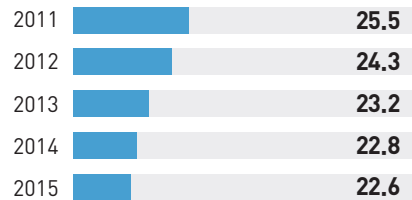
3 학급당 학생 수 감소추세

※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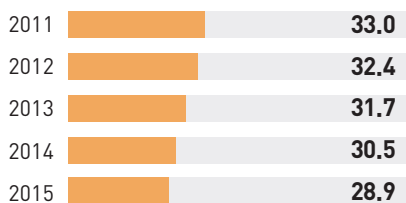
✓ 낮은 출산율로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학교 수는 점차 증가하여 학급당 학생 수가 낮아지는 바, 전반적인 교육 환경의 질이 향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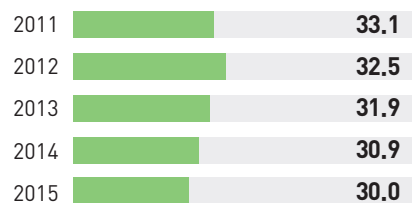
초등학생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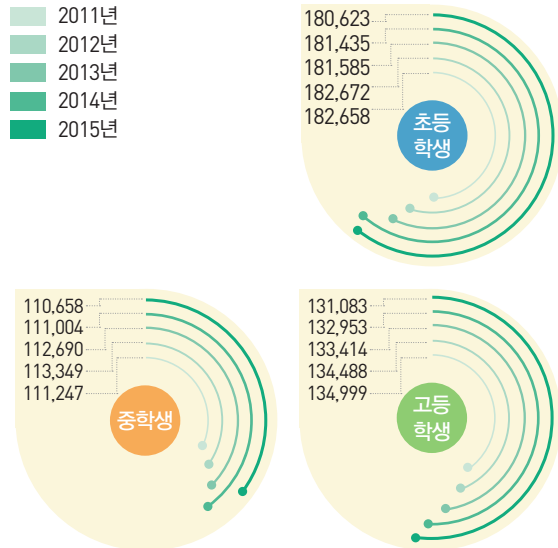
고등학교



4 교원 수

※ 단위: 명

- ✓ 2015년도의 경우 이례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교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교육여건 및 교육의 질이 향상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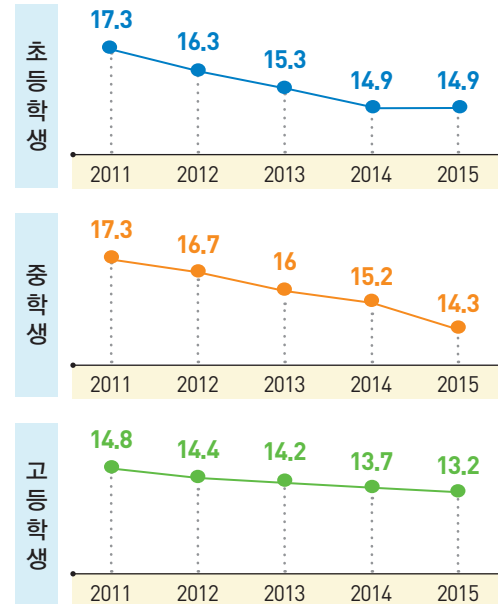


5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추세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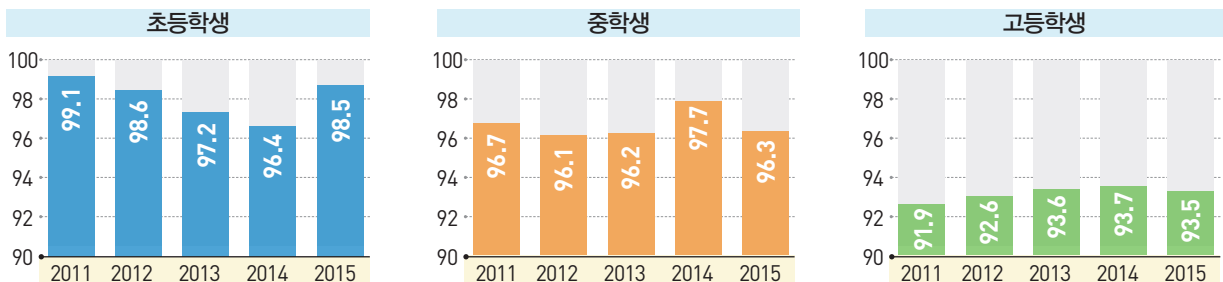
- ✓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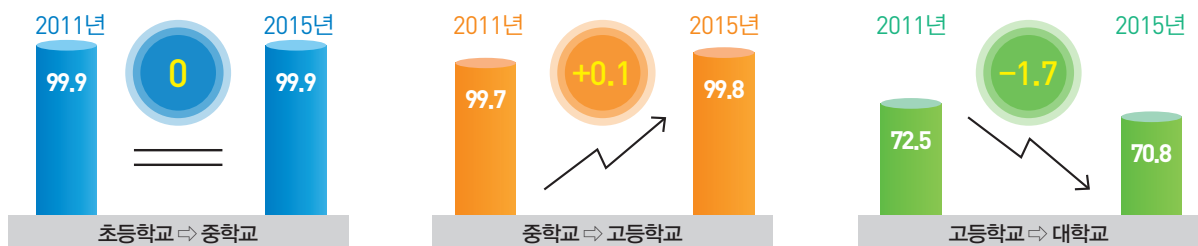
6 취학률 / 진학률

※ 단위: %

- ✓ 취학률 - 어떤 등급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자격이 있는 적령아동수에 대하여 실제로 취학하고 있는 학생 수의 비율
 ✓ 산정방법 - 해당연령층의 재적 학생수 / 적령아동수 X 100
 ✓ 초등학교의 경우 90% 후반대, 중학교의 경우 90% 중후반대, 고등학교의 경우 90% 초중반대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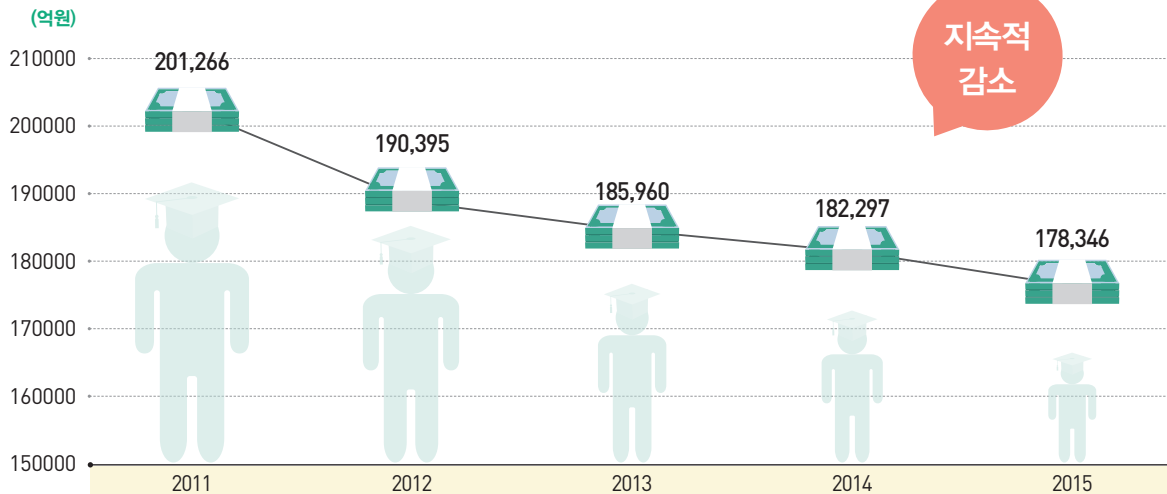


- ✓ 진학률 - 특정 등급의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상급학교에 입학하는 비율
 ✓ 산정방법 - 상급학교 입학자 / 하급학교 졸업자수 X 100
 ✓ 중학교, 고등학교의 진학률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나, 대학교의 진학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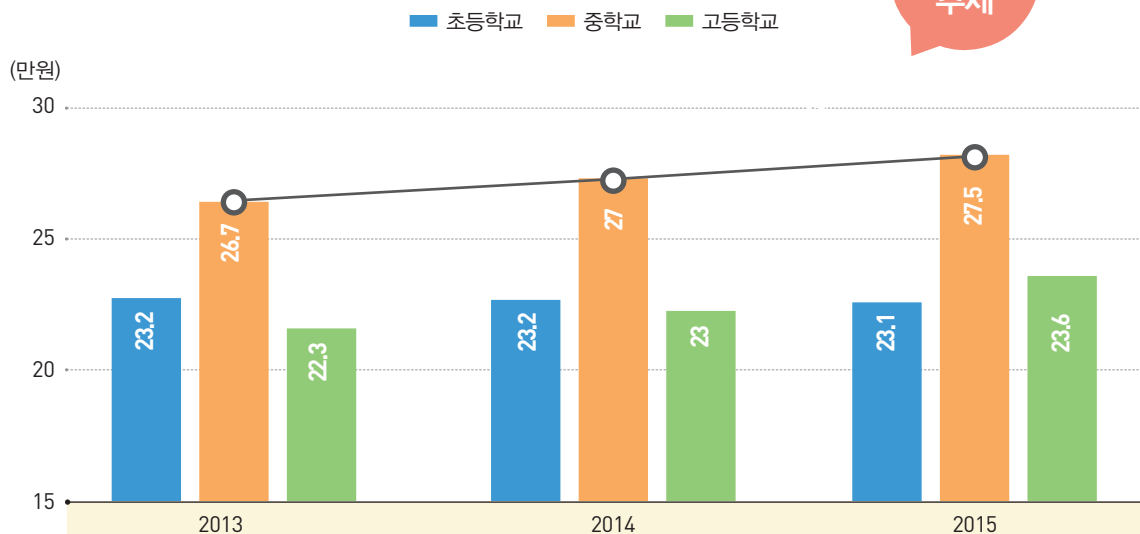
사교육비, 얼마나 지출하고 있을까요?

1 연도별 사교육비 총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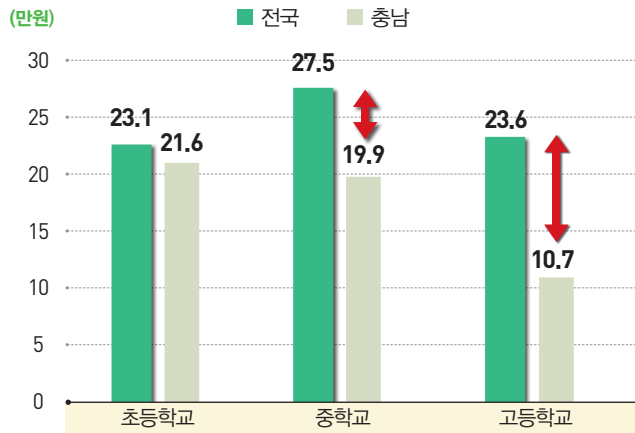


2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 ✓ 학교급별 사교육비 금액은 중학교가 가장 많으며, 초등학교, 고등학교 順
- ✓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하는데도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 소수의 자녀에게 교육이 집중되는 현상 때문



3 충남의 월평균 사교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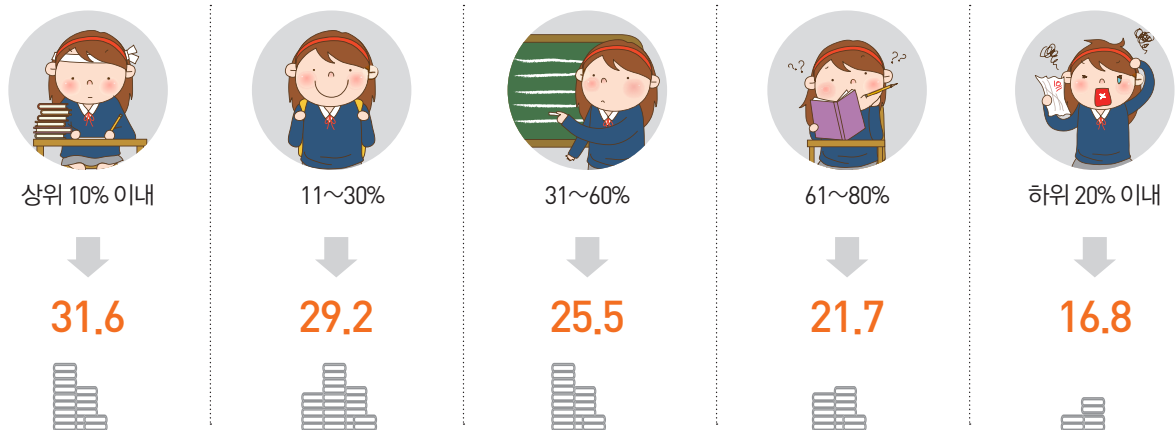
- ✓ 충남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국 대비 전체적으로 낮음
- ✓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과의 격차가 미미하나, 중학교 이후부터 급격히 커짐



4 학생 성적별 사교육비

※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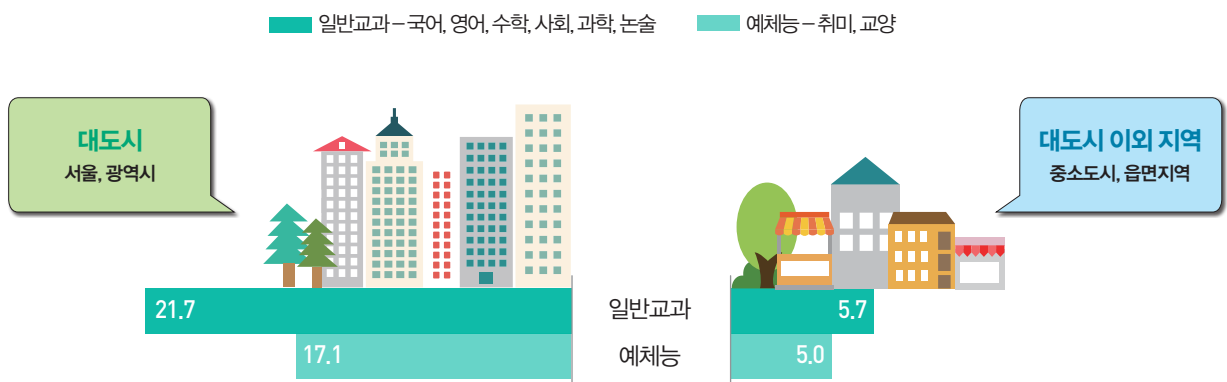
✓ 사교육비 지출은 학생의 성적수준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임



5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

※ 단위: 만원

✓ 대도시일수록 사교육비가 많고, 대도시와 이외지역의 사교육비 격차는 일반교과에서 뚜렷한 양상을 보임



자료: 교육청(교육통계), 통계청(사교육비 총액), 통계청(월평균 사교육비), 통계청(학교급별 / 과목별 사교육비)

충남 사람들의 직업선택 & 근로여건 만족도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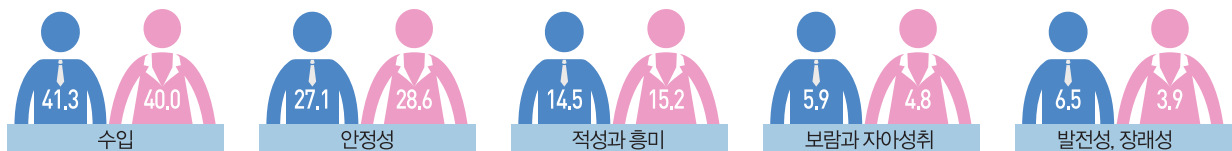
- ✓ 충남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제1요건은 수입! 하지만 실제 만족도는 임금, 복리후생 등 직업선택에 있어서 고려되는 주요 요인보다 인간관계, 근무환경 등에서 높게 나타남
- ✓ 또한 충남 사람들은 평균 2.3회 이직을 경험, 여자(2.32회)가 남자(2.25)보다 좀 더 빈번하게 이직하지만 비슷한 수준
- ✓ 근로여건의 전반적 만족도는 하락 추세, 직장이동은 감소, 평균재직기간은 6.8년, 10년 이상 장기 근속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세

충남 사람들이 직업 선택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 단위 : %

- 전반적으로는 금전적 요인(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기타 요인으로는 남자는 명예, 자아성취, 발전가능성, 여자는 직업안정성과 적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직업선택요인 (13세 이상 인구, 2015년 기준)



충남의 근로여건 만족도! 한눈에 알아보기



만족 > 불만족

하는 일, 인간관계, 성희롱방지 노력, 교육훈련



만족 = 불만족

근무환경,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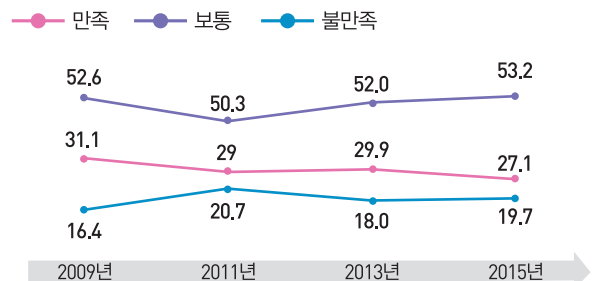
만족 < 불만족

임금, 인사관리, 복리후생, 직장내 장래성

근로여건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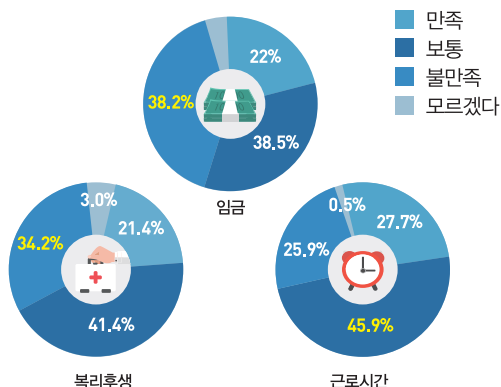
※ 단위 :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근로여건의 전반적 만족도는 하락 추세
-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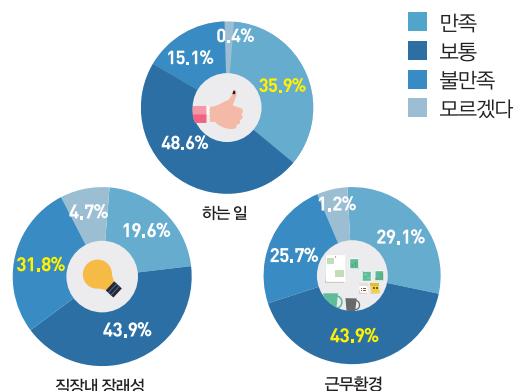
양적측면 만족도

- 대표적인 근로여건의 양적측면을 나타내는 임금과 복리후생은 다소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우세한 반면, 근로시간에 대한 응답은 평이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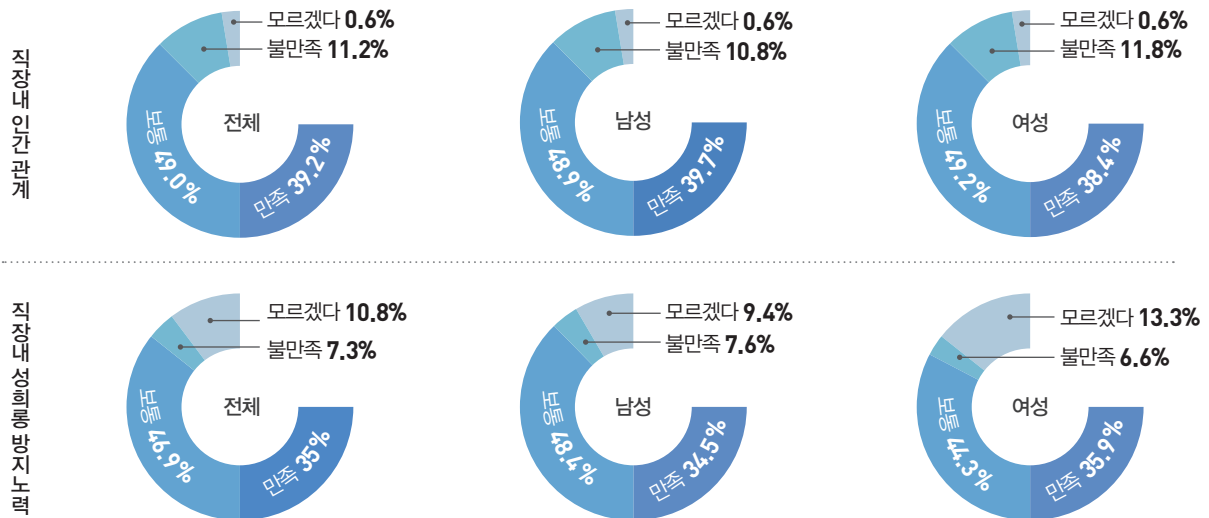
질적측면 만족도

- 하는 일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지만 현 직장에서의 근속으로 인한 장래성에 대한 응답은 다소 부정적임



기타 만족도

- 여자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한 노력도 근로여건 만족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만족한다는 응답이 35%로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지표보다 '모르겠다' 라고 응답한 비중이 10.8%로 다소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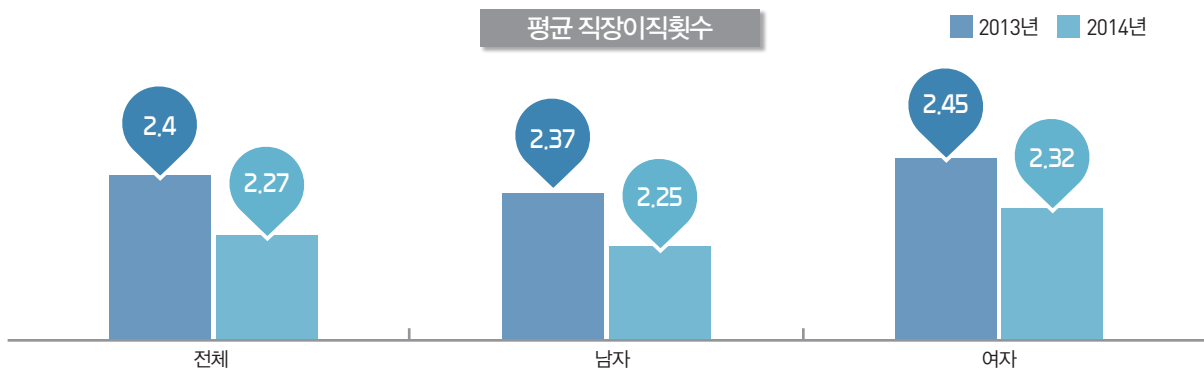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근로여건 만족도(13세 이상 인구), 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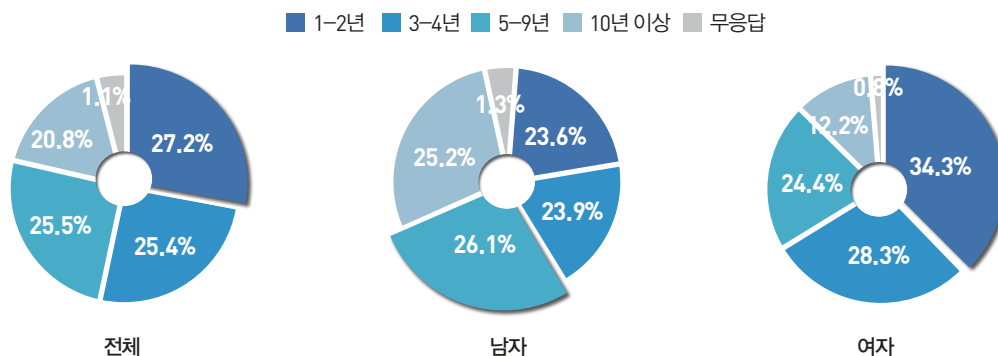
충남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이직을 할까?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할까?

※ 단위 (회)

- 직장이동은 보통 1~2회 정도 경험하고 3회 이상 빈번한 이동도 10명 중 3.5명이 경험함



- 평균재직기간은 남자는 6.8년, 여자는 4.5년이며, 10년 이상 장기 근무로 갈수록 성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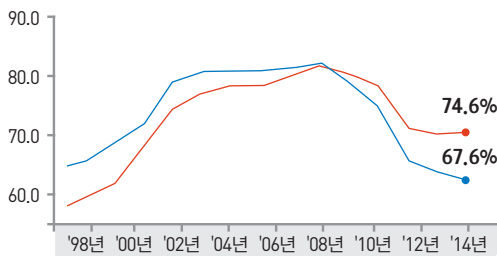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충청남도 사회조사, 직장이직 횟수 및 평균 재직기간

사회통계로 살펴본 국내 경력단절 및 여성고용 현황은?

여성의 대학진학률과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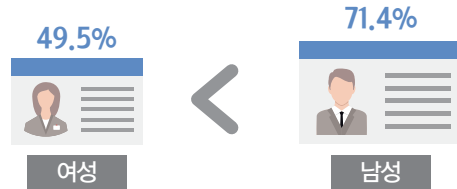
- 여자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 이후 남자를 역전하여 최근 그 격차가 7%p를 넘어서고 있지만 고용률은 남자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임

대학진학률



고용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1.9% 높음
(20대 중후반의 경우 69.1%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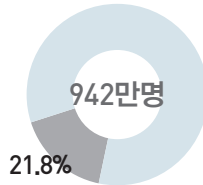
※ 2014년 기준

경력단절여성 현황(20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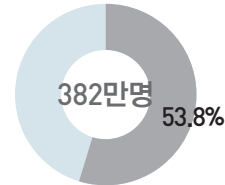
- 전체 15~54세 기혼여성 5명중 1명은 경력단절, 비취업여성 2명 중 1명이 이에 해당



경력단절여성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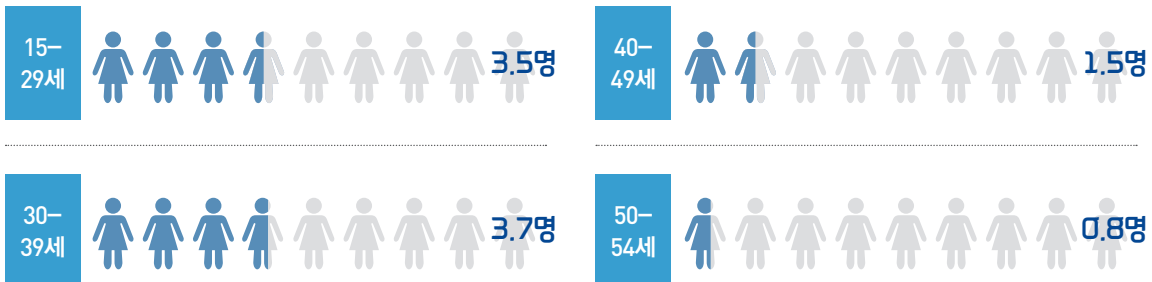


비취업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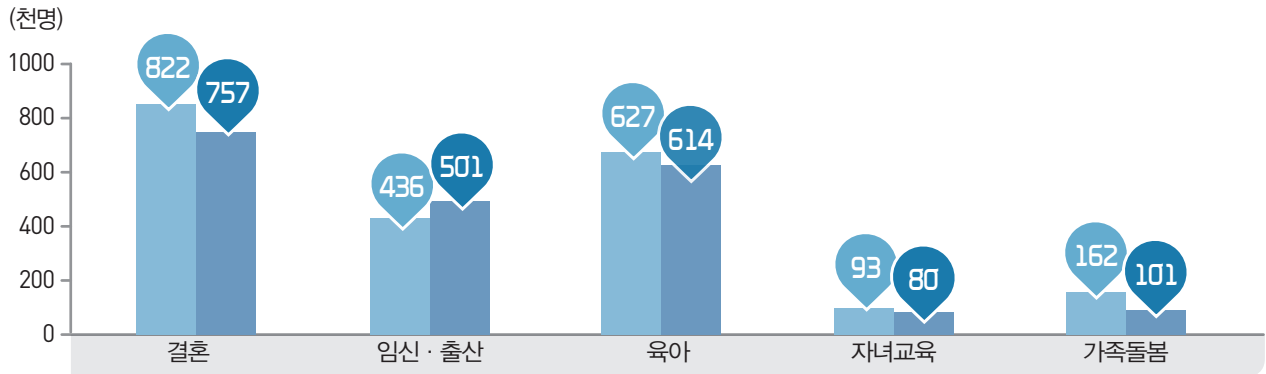
- 최근에는 일한 경험이 없는 여성보다는 초기에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일을 하지만 결혼 및 출산 또는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 시장에서 퇴장하여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현상이 심화됨

연령별 경력단절 현황

※ 10명 중 몇 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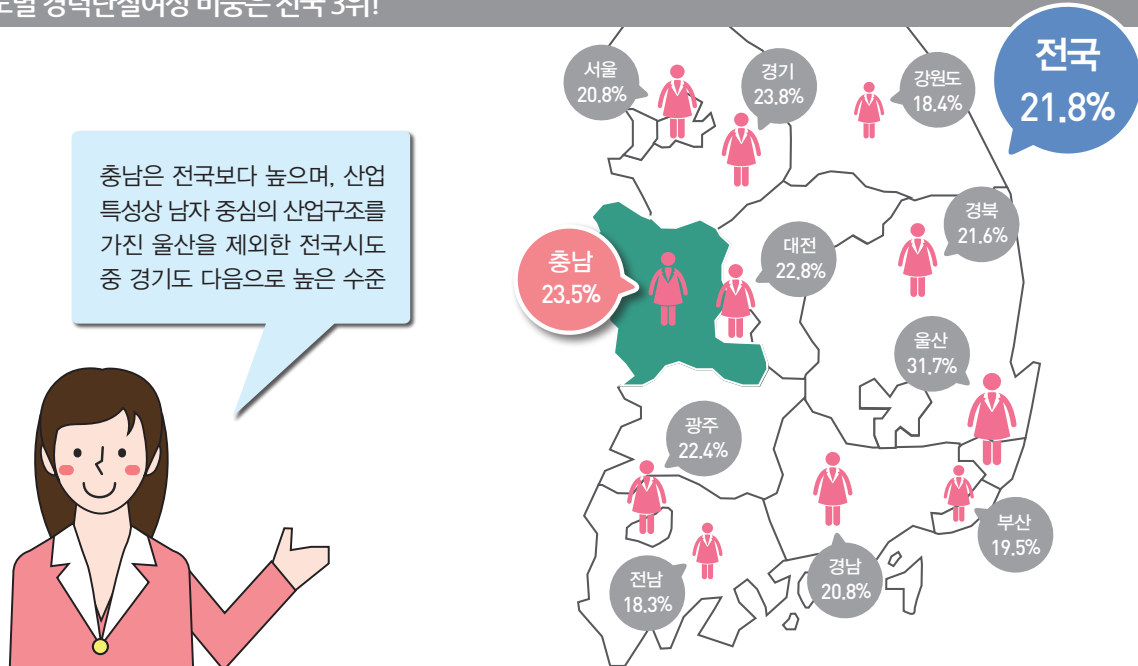


경력단절 사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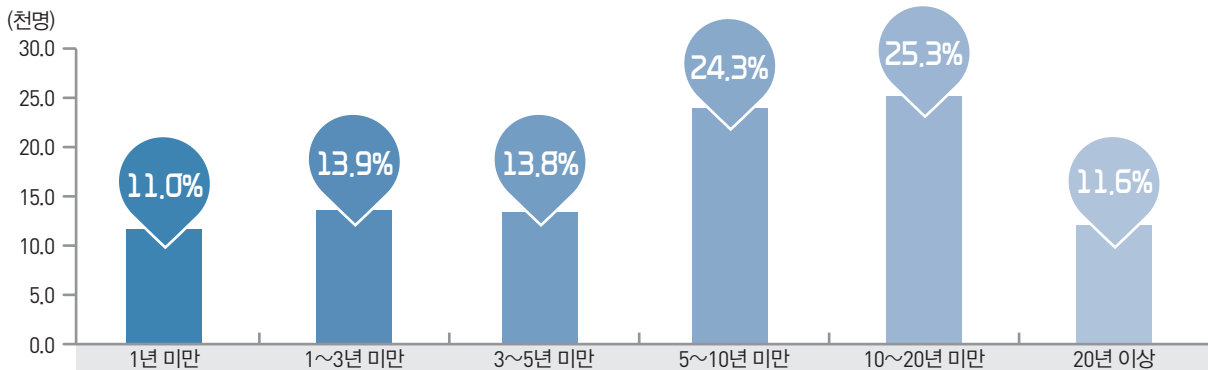
● 결혼: 75만 7천명 (전년 대비 6만 5천명 ↓) ● 임신, 출산: 50만 1천명 (전년 대비 6만 5천명 ↑) ● 육아: 61만 4천명 (전년 대비 1만 3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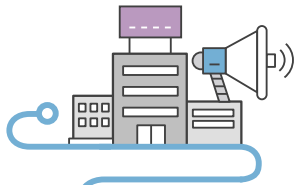
시도별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전국 3위!



경력단절기간 현황

☛ 우리나라 여성은 10~20년 미만의 경력단절기간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주로 20~30대 결혼·출산 등으로 단기간 일을 그만둔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보다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남





충남지역 인재확보역량과 정책과제

인재가 찾아오고 머무는 지역으로 변모하려면

‘수도권만 바라보는 지역인재’

바야흐로 국경과 지역을 넘어 인재전쟁·두뇌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재의 확보 여부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과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나 지역의 경제구조가 기술 집약형·지식경제로의 전환과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라 고급인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인재들의 행렬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매년 비수도권 대졸자의 약 30%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특히 충남은 66%의 대졸자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른다. 인재들의 수도권 빨대현상으로 충남을 포함한 많은 지방에서는 고급인력 부족과 일자리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는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구인·구직의 미스매치)에 직면해 있다. 지방의 미래가 밝지 않은 이유다. 왜 지역인재들은 수도권만 바라보는 걸까?

‘충남, 고(高)유인역량·저(低)양성역량의 역외인재 의존형’

지역이 인재를 확보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다른 지역 인재를 자석과 같이 빨아들이는 유인환경을 구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내에서 교육 및 능력개발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다.

충남의 인재확보 종합역량(유인+양성)은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돌아 16개 광역시도 중 5위를 차지했다. 결코 나쁜 성적표는 아니다. 하지만 인재의 유인역량과 양성역량 간 불균형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외인재 유인역량은 서울,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한 반면, 역내인재 양성역량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9위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충남의 인재확보역량 유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외인재 의존형’으로 분류됐다. 충남은 지역인재의 상당수가 타 지역으로 떠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역외인재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경제성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충남이 언제까지고 지역성장을 지속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만약 충남경제를 견인하는 대표산업이 경기침체에 직면했다고 가정하면 과연 역외인재를 지금처럼 유입할 수 있을까?

‘충남이 인재를 유인·양성하려면’

본 연구의 결과, 관용성이 넘쳐흐르고 기술수준이 높은 지역이 고학력자·창의인재·R&D인재·지식기반산업인재 등의 고급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여 충남이 관용성 확충 방안으로 여성경제 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지역’을 지정 및 운영하고, 향후 충남의 산업발전전략과 부합하는 외국인 유입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특구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R&D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R&D인력에게 부합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유치와 기업체의 R&D기능을 역내에 유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인재들은 활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를 즐기고, 이들 활동이 한정된 구역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하므로 직장과 거주지, 배움과 놀이가 복합된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인재들이 선호하는 직·주·학·유 일체형의 혁신지구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남과 같은 역외인재 의존형은 역내인재의 효율적인 양성을 통해 인재 비교우위형으로 이동 가능하다. 충남 지역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인재의 수급상황을 사전에 감지, 대응할 수 있는 우수인재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의 위기관리 구축도 검토 대상이다.

키위새는 날개가 있어도 퇴화해 날지 못한다. 굳이 날지 않아도 먹이를 충분히 제공해주는 서식지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충남도 일자리를 찾아오는 역외인재들에게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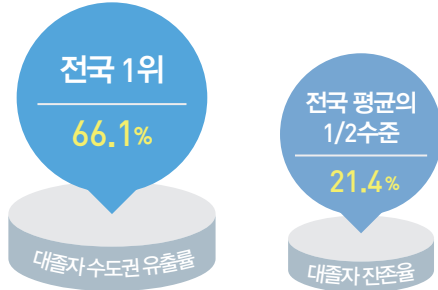
저자_산업연구원 허문구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55

인재를 둘러싼 두뇌전쟁! 충남이 인재를 유인·양성하려면?

수도권으로 Go! Go! 지역내 인재유출 High

※자료 : 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3년)



인재와 기업입지·고용·지역성장간 관계



인재확보 종합역량
전국 5위

역내인재
양성역량
전국 9위

역외인재
유인역량
전국 3위

충남은
“역외인재 의존형”
(고)인재유인 / (저)역내인재양성역량

“인재 비교우위형”
(고)인재유인 / (고)역내인재양성역량

1 관용성 확충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지원



지역의 산업발전전략과
부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2 기술수준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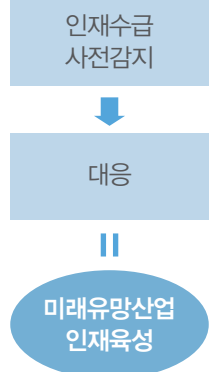
혁신활동 강화로 산업구조 고도화 도모
기업 R&D기능 역내 유치

3 혁신지구 조성 및 유형별 인재 조기경보 시스템개발



직 · 주 · 학 · 유
일체형 혁신지구

인재조기경보시스템





최근 디스플레이산업 현황과 정책 제언

‘세계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OLED’

IHS 2016년 1분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1,274억불이었으며, OLED의 성장에 따라 2022년에는 1,487억불이 전망되고 있다. LCD 시장은 OLED의 가격 경쟁력 상승 및 수요 증가로 축소된 반면, OLED 비중은 '15년 10%에서 '22년 25%까지 확대 될 전망이다.

‘최근 디스플레이 수급 및 가격 동향’

2015년에 이어 2016년도 중국 업체들의 지속적인 생산라인 증설은 수급 불안정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2016년 공급과잉 수준을 살펴보면 1분기에는 26%, 2분기에는 2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015년 중국 생산라인 증가는 32인치와 같은 특정 패널에만 집중되었으나, 올해부터는 40인치 이상 패널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높은 공급과잉은 하반기에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IHS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디스플레이 공급과잉 수준이 3분기 8%, 4분기 6%까지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진 영향을 받은 대만 이노룩스의 가동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영향도 공급과잉 개선에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하반기는 수급개선에 따른 LCD 패널가격 회복세가 기대된다. 비록 이번 LCD의 수급개선은 공급변수에 의해 시작됐지만 최근 중국,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55, 65인치 대형 TV 판매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은 수요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 된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분석’

LCD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중이나 중국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 중에 있다. 중국은 '10년 세계 LCD 시장 점유율 4.1%에서 '15년 15.5%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44.8%에서 39.2%로 하락하였다. 2015년 글로벌 OLED 시장은 한국이 96.2%로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소형

OLED 및 초기단계인 대형 OLED 시장 모두 우리가 주도 중이며, 특히 대형 OLED 시장의 선점을 통한 주도권 확보가 중요하다. OLED는 향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구현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경쟁국에서도 맹렬히 추격 중인 상황이다.

‘신산업 OLED의 중요성’

OLED는 ICT 융합을 통한 기존에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OLED만이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하여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건축, 광고, 자동차 등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향후 5년간 연평균 21.4% 성장률로 시장 규모 확대가 전망된다. OLED TV의 대중화 및 Head Up Display, 스마트워치, 자동차용 등 신시장에 대한 OLED 침투율이 2015년 10%에서 2020년 22%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책 제언’

디스플레이가 신시장을 개척·창조할 수 있도록 중간재 기능을 넘어서는 성장 한계 극복이 필요하다. OLED 기술을 이용하여 구부릴 수 있고(Flexible), 말 수 있고(Rollable), 접을 수 있는(Foldable), 그리고 투명한(Transparent)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이다. 진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은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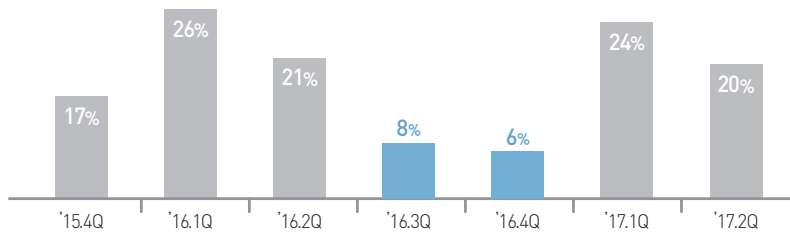
또한, 패널산업 대비 R&D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기술경쟁력에서 열세인 후방산업(소재·장비)의 석·박사급 고급 인력양성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조기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장비·부품소재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방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저자 _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산업지원팀장 김현진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56

지역의 성장 동력,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는?

디스플레이 수급과 가격 동향



• 2016년 하반기 공급과잉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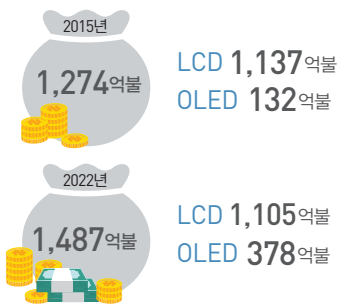
- ① 공급측면: 대만지진으로 이노룩스 가동을 일시 하락
- ② 수요측면: 중국·북미시장 TV 수요 증가



LCD 패널가격 회복세 기대

세계시장을 이끄는 “OLED”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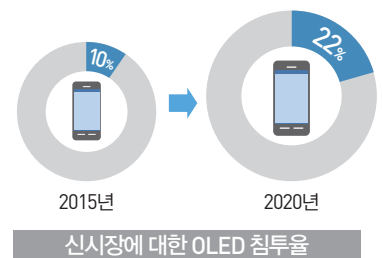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주소

신산업 OLED 시장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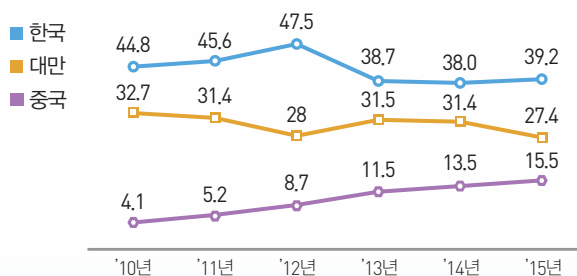
향후 5년간 연평균

21.4%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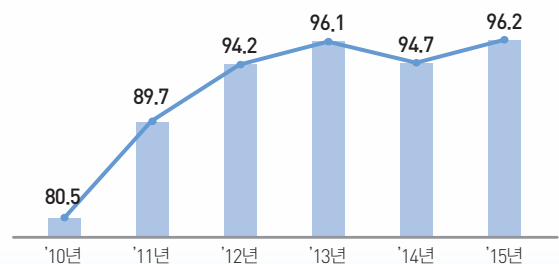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시장 점유율

중국의 성장, 주요 국가별 LCD 시장 점유율



한국의 주도권 확보! OLED 시장 점유율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① 타산업과의
융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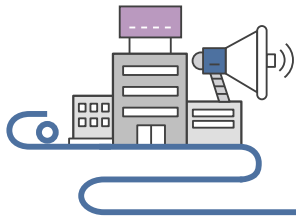


② 후방산업의
고급 인력양성



③ 핵심장비·부품소재
기술력 확보

※자료: IHS



유가하락으로 인한 수출 부진, 충남지역 수출은?

‘2014년 6월말 이후 국제유가 70% 이상 하락’

2014년 중반 배럴당 100달러 이상 수준에서 머물던 국제유가는 미국의 셰일혁명 쇼크로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설상가상으로 OPEC 산유국간 생산량 합의 불발과 달러화 강세가 겹치면서 올해 초 배럴당 2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국제유가 하락은 제조단가 절감, 석유제품 가격 인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유가 변동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유가급락에 따라 원유 수출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최근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맞물려 당초 기대만큼 원유수입국의 수입수요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연 국제유가 하락은 우리 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2015년 우리나라 수출은 8.0% 감소, 충남지역 수출은 3.1% 증가’

2015년 우리나라 수출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 국제유가 하락에 기인한 수출단가 하락,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 축소와 수입대체 진전 등으로 전년 대비 8.0% 감소세를 시현하였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에 직격탄을 맞은 석유제품(MTI 133, -37.0%), 합성수지(MTI214, -15.1%) 등을 중심으로 수출감소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지역의 수출은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671.2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충남 지역의 수출이 지역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등 원유수입국으로 이뤄지고 품목별로는 국제유가 변동에 영향

을 적게 받는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유가 영향 적은 충남 수출,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국제유가라는 외생변수에 충남지역의 수출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대다수의 제조업 시설이 석유제품을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저유가는 제품 생산에 따른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충남 지역의 수출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수출 부진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중국·미국·베트남과 같은 주요 교역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앞으로의 수출 성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출 품목과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기준 중국과 홍콩 수출에 전체 수출의 59.6%가 집중되어 있어 중국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충남지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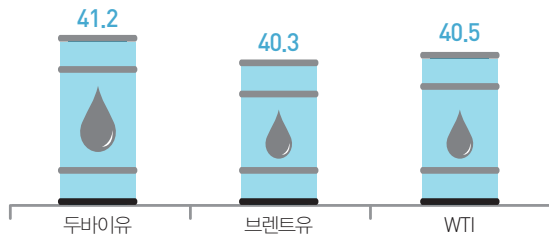
이에 따라 향후 충남지역은 중화권뿐만 아니라 미국, 베트남, 인도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에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남 지역 소재 석유·화학제품 수출 기업들은 최근의 나프타(납사)-원유 마진 확대로 확보된 현금자산을 활용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생산 확대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저자 _ 국제무역연구원 류승민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57

인재를 둘러싼 두뇌전쟁! 충남이 인재를 유인·양성하려면?

1 2016년 주요 기관의 평균 국제유가 전망과 요인



• 주요 국제유가 변동요인



2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 원유 수출국의 수입수요는 **감소**
원유 수입국의 수입 수요는 **제자리걸음!**

2015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충남의 수출은 3.1% 증가! 국제유가 영향도 미미

3 충남의 수출 증가 요인은?

① 충남의 주요 수출국 = 원유 수입국

② 충남의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 국제유가에 부침이 적은 수출 구조



– 반도체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무선통신기기
– 합성수지

중국



– 자동차
– 무선통신기기
– 자동차부품
– 반도체

미국



– 무선통신기기
– 반도체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기구부품

베트남

③ 직격타를 맞은 석유제품도 호주·미국·인도 등으로 수출이 증가

※ 충남 수출이 직면한 과제는?

- 중국경기 침체 우려 → 미국·베트남·인도 등 수출 다변화 노력
- 원재료와 가공제품간의 영업이익에 Focus → 생산단가 영향이 적은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생산 확대

유가제품의 생산단가



충남의 경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국내총생산을 나타내는 GDP, 국민소득(GNP)

기업활동의 실적, 계획, 동향 등에 대해 기업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지수화 하는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지출 저축, 부채 등에 대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묻는 CSI(소비자동향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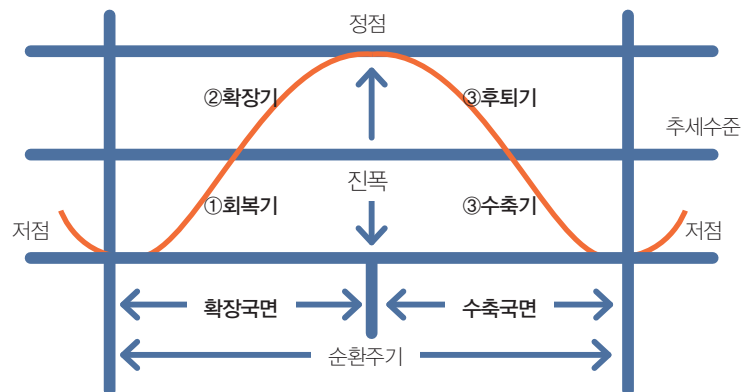
그 외 주가지수 등 경기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들을 들 수 있음.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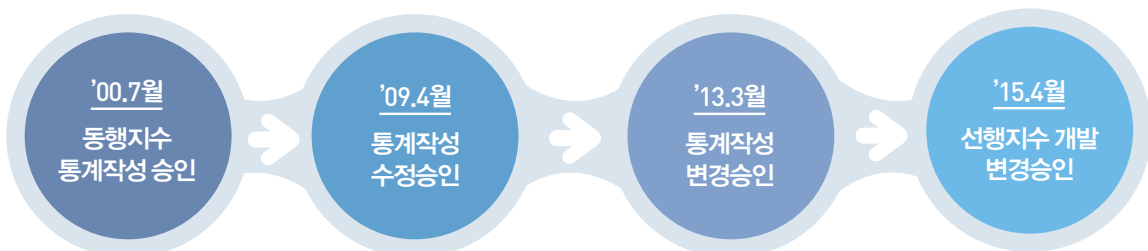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정보 수집에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범위가 좁아 전체적인 경기흐름을 판단하기 어려움

※ 경기종합지수란,

경제 전체의 경기 동향을 쉽게 관측하고 예측하기 위해
주요 경제부분별 대표적인 지표를 종합하여 매월 산출한
지수로 경기변동의 국면, 전환점, 속도 및 진폭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됨.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와
향후 경기에 대한 예측인 선행지수, 과거 경기를 재차
확인하는 후행지수로 이루어짐. 순환변동치가 상승하면
경기 확장, 하락하면 경기 수축을 나타내고, 순환변동치가
가장 클 때가 경기정점, 가장 작을 때가 경기저점이라 함



1 충남경기종합지수 현황은?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발표!





- 비농가취업자수
- 산업생산지수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 판매전력량
- 수출액
-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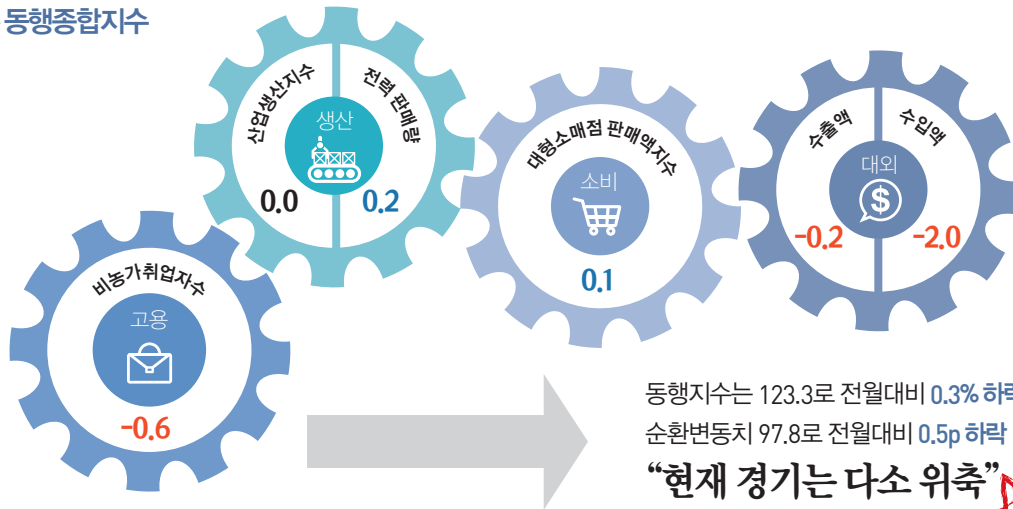


- 신규구인인원(충남)
- 제조업재고순환지표(충남)
- 비제조업자금사정_실적(충남)
- 주가지수(KRX_Semicon)
- 반도체수출입물가비율(전국)
- 자본재수입액(충남)
- 제조업중간재출하지수(충남)

3 2016년 4월 충남경기종합지수 동향은?

※ 단위 (%)

동행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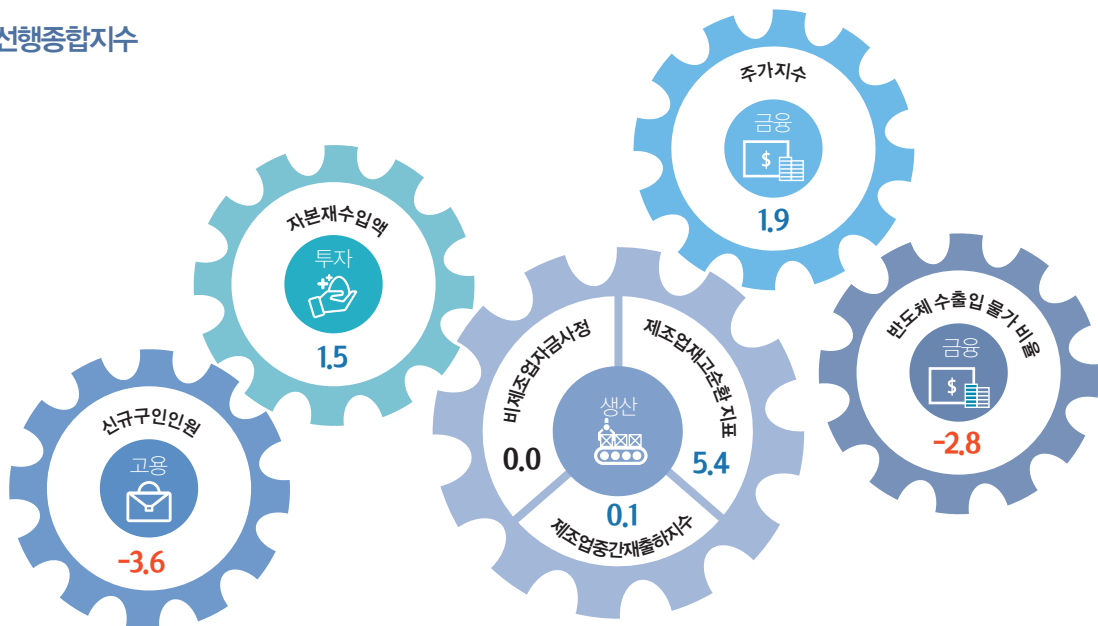


동행지수는 123.3로 전월대비 0.3% 하락

순환변동치 97.8로 전월대비 0.5p 하락

“현재 경기는 다소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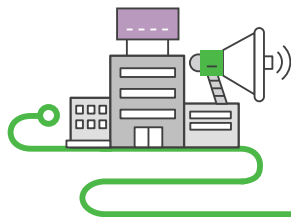
선행종합지수



선행지수는 122.0으로 전월대비 0.3% 상승

순환변동치 99.7로 전월과 동일

“향후 경기는 주춤”



2016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 전망

수출 : 조선·반도체 등 부진 지속, 디스플레이·일반기계 증가세 전환

2016년 12대 주력산업의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하락 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주요 산업 대부분이 주력수출 시장인 신흥시장 수요부진, 중국업체 경쟁력 상승 등의 요인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전망되나 전년동기 실적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하락세는 다소 둔화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조선, 반도체 등 대부분 업종에서 부진이 지속되나, 디스플레이, 일반기계, 철강 등은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조선은 상선인도 물량의 지속적 감소, 고가 해양플랜트의 계약 취소 및 연기 등이 이어져 전년동기 대비 11.8% 감소가 예상된다. 소재산업군은 석유화학, 정유, 섬유 등이 감소세를 지속하며 철강은 국제가격 및 신흥국 수요 회복으로 전년동기 2.5% 상승이 전망된다. 디스플레이는 공급 축소, OLED 수요 증가 등의 긍정적 요인이 우세하여 전년동기 대비 5.9%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중국 성장 둔화, 수요감소 및 미세공정 전환에 따른 수출상승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되면서 10.1% 큰 폭의 하락세가 예상된다.

내수 : 대부분 감소 추세 속 IT기기, 정유 등은 소폭 증가

내수는 대부분 산업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IT기기, 음식료, 정유 등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브라질 올림픽 특수로 가전, 디스플레이, 정보통신기기가 소폭상승예상되며 정유는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증가, 음식료는 가공식품시장 확대 등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반면 소비심리 위축,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일반기계, 조선, 섬유 등의 내수가 부진하고 이러한 전망산업의 부진으로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도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자동차는 수요 진작책으로 시행되었던 개별 소비세 인하가 하반기 종료되면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 전반적 부진 속, 조선과 반도체 특히 큰 폭 감소

하반기 생산은 대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부족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한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조선, 반도체 등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은 2014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수주 부진 영향으로, 반도체는 수급 조절을 위한 D램 생산 축소, 해외 현지생산 확대 등의 요인으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자동차는 생산을 견인해오던 내수가 감소세 전환이 예상되면서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유는 수출선 다변화와 수출물량 증가 등이 예상되어 전년대비 3.6% 증가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는 수출회복, OLED 생산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할 전망이다. 상반기 부진을 만회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 대부분 하락하나 소비재 산업은 증가 예상

12대 주력산업의 하반기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4% 하락이 예상되며 전망산업 생산 부진으로 소재산업군의 하락이 4.3%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 속에서도 소비재 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양극화되고 있는 소비 패턴에서 기인한다. 가전은 구매여력 부족으로 중저가 제품 선호가 늘어나고 중국 가전업체의 국내 진출 확대, 해외생산 제품 역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정보통신기기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스마트폰 부품 수요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수입차 보유대수 증가에 따른 AS 부품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자 _ 산업연구원 김경유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59

2016년 하반기, 충남의 주력산업 전망은?

- ✓ 선진권 혼조세, 개도권 침체로 대부분의 주력산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
- ✓ 저성장 체제 지속 + 중국 등 신흥시장 리스크
- ✓ 저유가 기조가 다소 완화되는 것은 긍정적 요인이나 신흥시장 경기회복은 다소 시간이 필요

수출 수입 생산 내수 증가요인 / 감소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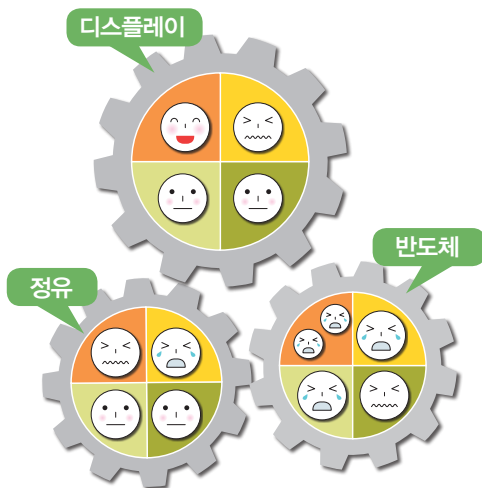
수출: 신흥시장의 경기침체 지속,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내 할부판매 비용 증가
내수: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선수요 실현



수출: 글로벌 공급과잉 기조 지속
국제가격 회복, 신흥국의 수요 회복
내수: 기저효과 > 건설용 철강소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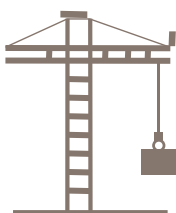
수출: 중국의 자급률 상승, 중동업체 등
경쟁력 상승 < 수출단가 상승 = 낙폭둔화
내수: 전방산업(자동차, 가전 등)의 생산 부진, 범용
제품 생산 감소(석유제품)



수출: 일본업체 생산중단, 중국의 생산수율
부진 등 공급 축소와 OLED 수요 증가
내수: OLED 스마트폰 판매 확대, 대형 UHD
TV 가격 인하로 수요 증가



수출: 중국 성장 둔화 · 현지생산 증가, 수출
상승으로 인한 가격하락
내수: 반도체 수요 견인 제품의 부진 >
웨어러블디바이스, IoT 등 신산업 수요
성장



- 주: 1) 전망: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5~10%, (😓) -5~0%, (😐) 0~5%, (🙂) 5~10%, (😊) 10% 이상
-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제품, 정유는 석유제품,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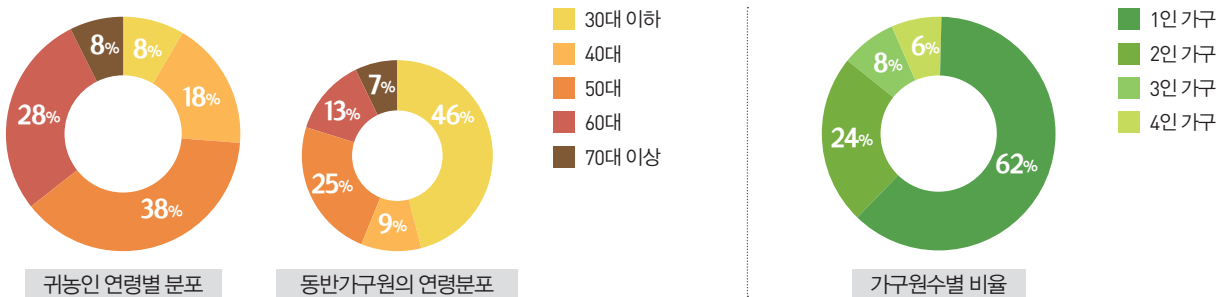
새로운 귀농인 통계, 충남은 어떠한가?

- ✓ '15.1월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 귀농인 개념을 바탕으로 작성된 행정 자료 기반의 통계
- ✓ 귀농인이란, 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지역으로 이동하고, 농업경영체등록 명부, 농지 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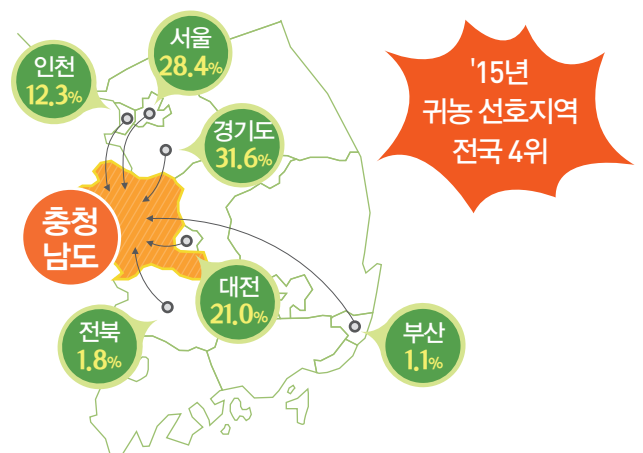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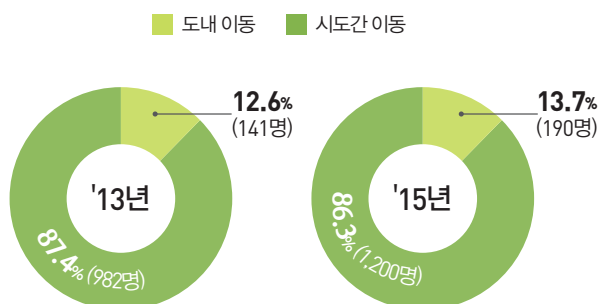
☞ '15년 충남으로 귀농한 사람은 1,390명으로 '13년 대비 23.8% 증가하였지만 함께 귀농을 선택한 가족은 많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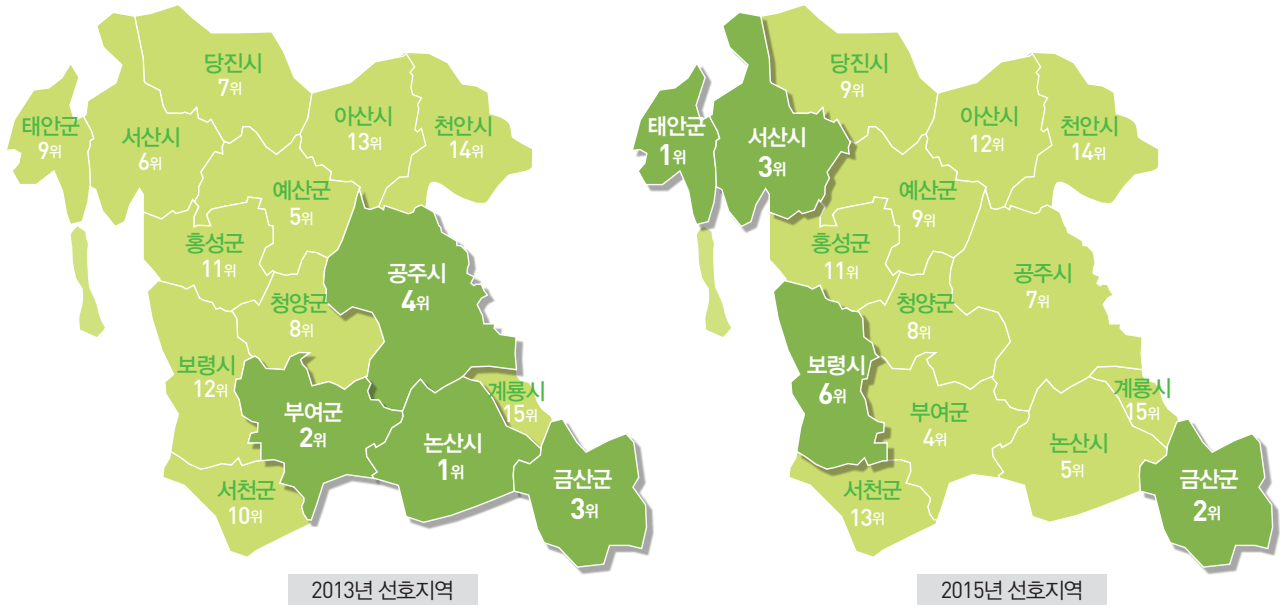
☞ 충남으로 귀농한 사람들은 50-60대가 가장 많고, 많은 분들이 혼자서 가구를 형성하였어요.('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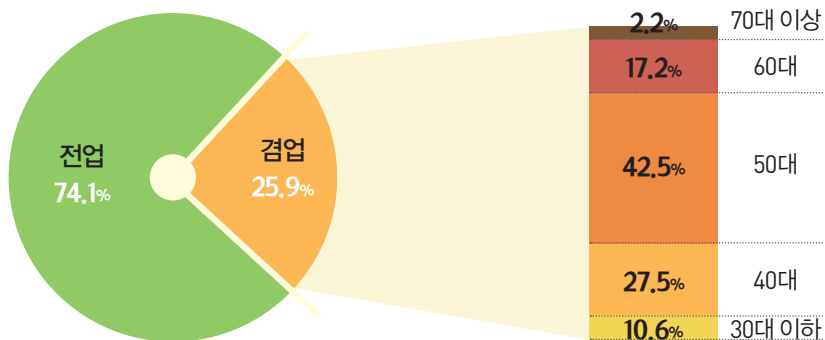
☞ 귀농전 거주 지역을 보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유입되었는데 인근 대도시인 대전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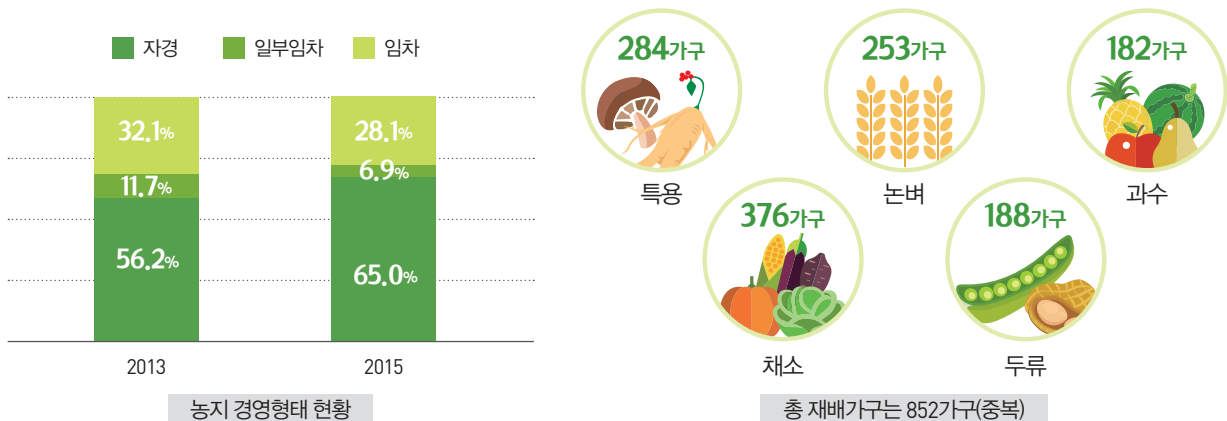
- ❶ '15년 귀농인들이 선호한 충남 도내 지역은 태안, 금산, 서산, 보령이고, 여전히 인기지역이지만 '13년 보다 논산, 부여, 공주의 귀농은 줄었어요.



- ❷ 아, 귀농인들이 농업에만 종사 하냐고요?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지만 1/4 정도는 다른 일도 함께 하고 있어요.



- ❸ 귀농인의 65%(’13년 56.2%)가 본인 소유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임차 가구 수는 줄어들었어요. 재배작물은 특용·논벼·과수 등 주요 농작물과 함께 채소나 콩도 재배를 한답니다.





석유화학 경기 낙관적 전망을 경계하는 이유

석유화학산업, 미래 리스크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

‘석유화학 낙관적 경기전망으로 설비투자 활성화’

최근 한국 석유화학산업에 대하여 상반된 시각들이 공존하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업종으로 거론되는가 하면, 상반기 실적도 좋고 하반기 전망도 양호한 업종이라는 발표도 나온다. 또 중장기적으로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미래가 어둡다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대형 설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중기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업계의 산업경기 전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석유화학의 호황은 2017년경 완만하게 하향세로 바뀌겠지만 큰 어려움 없는 조정 수준이고, 1~2년의 조정기간을 거쳐 다시 상승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위축되었던 설비투자가 다시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거시 환경 변수나 경쟁구도 변화를 볼 때, 석유화학 산업의 경기를 예상보다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적지 않다.

‘경기 불확실, 유가, 중국기업 급성장 등 리스크 요인 산재’

첫째, 수요성장이 기대에 못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매년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석유화학 수요 성장도 예상에 못미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유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리스크다. 가스 및 석탄 기반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유가는 제품 수요 위축과 상대 원가경쟁력 약화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중국시장의 자급화가 석유화학 전제품으로 확산되는 것과, 또 중국 석유화학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갖는 제품들이

이제는 범용뿐만 아니라 기능성제품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번째 리스크는 최근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석유화학 설비투자 검토 및 추진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검토 계획들 중 과반수 정도만 추진되어도 중장기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섯번째는 중국의 석탄화학처럼, 미국과 중동 등 산유국에서 천연가스나 원유에서 직접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의 상업화가 검토되고 있다. 경쟁구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 요인이다.

‘낙관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방안 준비 필요’

향후 이런 리스크 요인이 석유화학산업 경기에 어떤 양상으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기업 스스로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형 설비투자에 보다 신중을 기하면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고, 제품 품질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현재 상황은 다른 장치산업 대비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이 우호적인 현 시점이 향후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위기를 준비할 수 있는 적기다. 중요한 것은 기업 내부에서 누군가는 사업의 객관적 상황과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하고 공유하면서, 충분한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체질을 구축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변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저자_ LG경제연구원 임자수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61

석유화학산업, 리스크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

★ 석유화학산업 전망! 구조조정 대상 VS 장밋빛 미래?!

부정적



중국발 공급 과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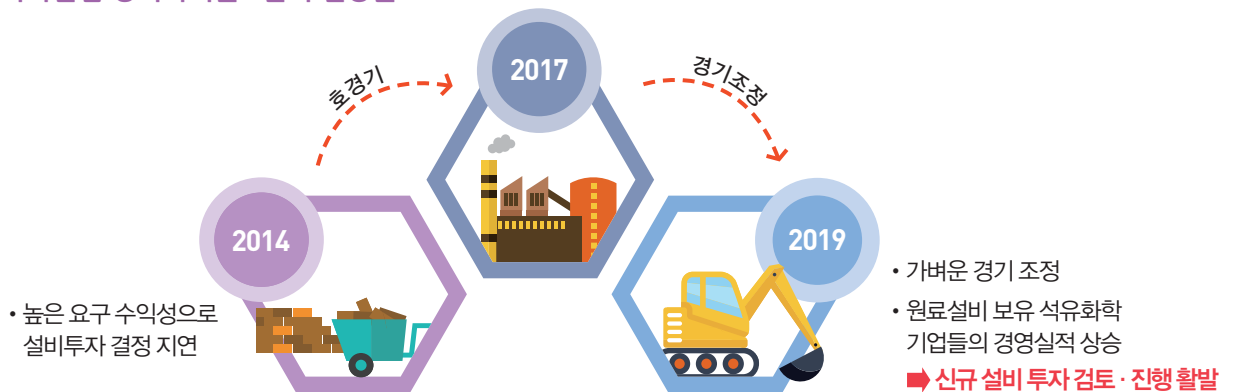


설비투자 위축 → 중기 공급부족 현상

긍정적



★ 석유화학산업 경기사이클 : 단기 전망은?



★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Four risk

<p>One. “수요 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아진 세계경제성장률 • 일시적 경기 위축? vs 한단계 낮아진 균형성장수준? 	<p>Two. “유가 상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가 환경은 한국 석유화학기업에겐 부정적 • 중기 균형 유가 배럴당 50~60달러! 산유국 경기 침체 · 정치 불안정, 세계적인 석유개발 투자 감소 등으로 예상보다 빠른 고유가 시대 진입 가능성 존재
<p>Three. “중국 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의 기반이자 핵심 경쟁력 중 하나 • 최근 석유화학제품 9개 품목의 순수입 감소, 중국 자급체제 제품은 수출시장의 경쟁자 	<p>Four. “공급 과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중동, 동남아 등 에틸렌 설비 투자 계획 확정 또는 검토

★ 업계의 양분된 시각을 반영한 한국 석유화학 기업의 과제는?

- 우호적 환경이 악화될 경우를 냉철하게 분석, 판단 ➡ **선제적 대응 준비**



신중한
투자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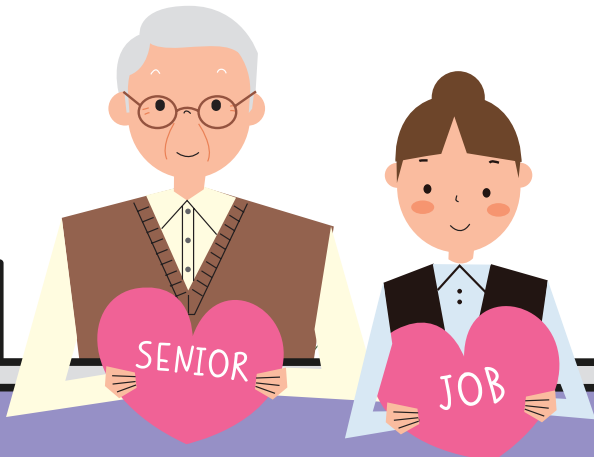
재무건정성과
안정성 엄격한 관리



제품/품질
고도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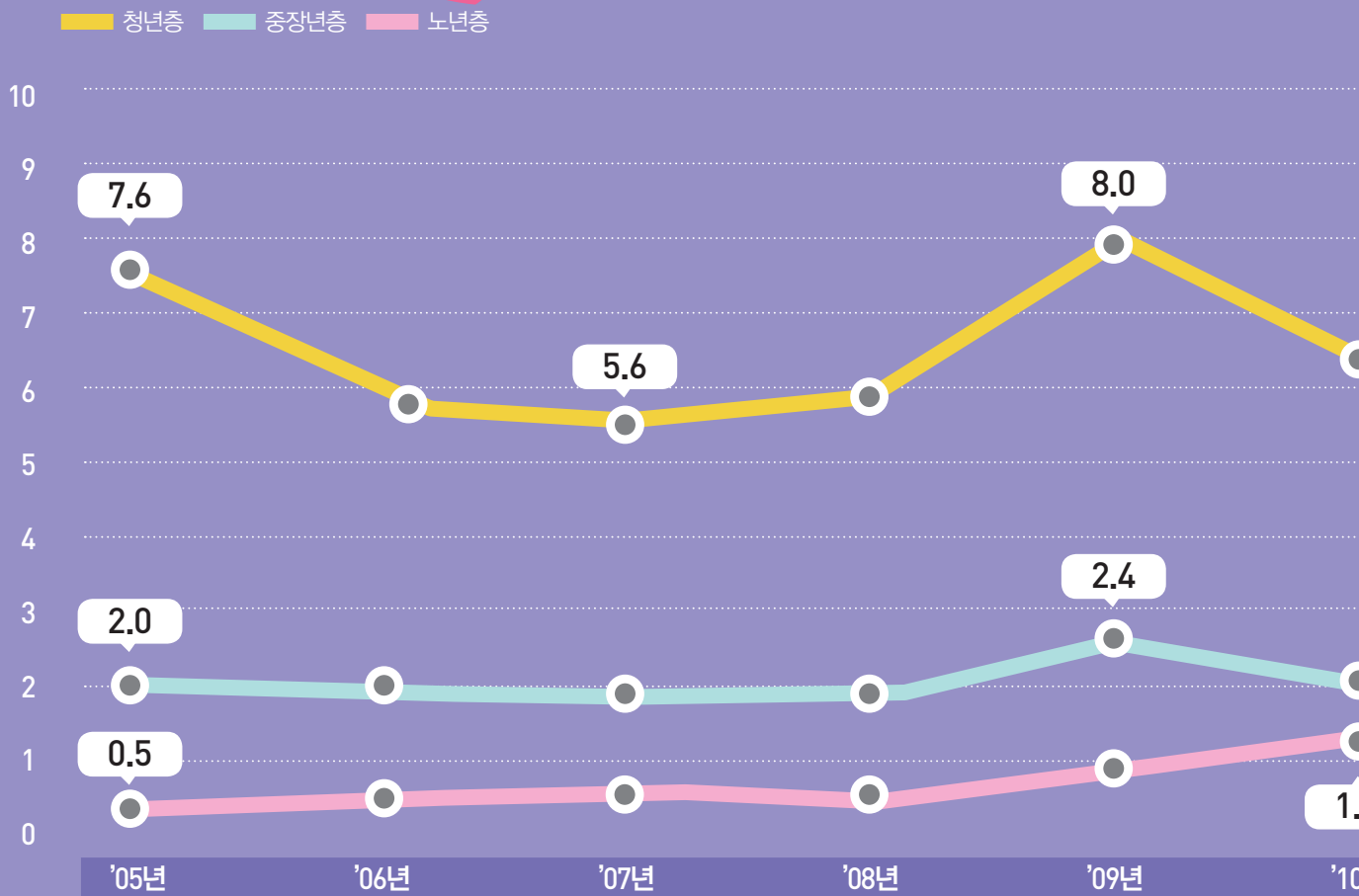
최근 충남의 연령별 실업률 추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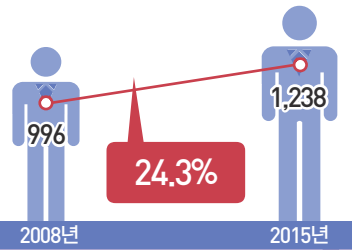
- ✓ 청년층은 '09년 수준,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실업률은 상승세
-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등으로 50세 이상 실업률이 높아지는 추세
- ✓ 16개 시도 중 청년층과 노년층 실업률은 낮은 수준이지만, 중장년층은 다소 높은 수준
-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볼때, 청년층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경기가 둔화될 때, 노동시장 2가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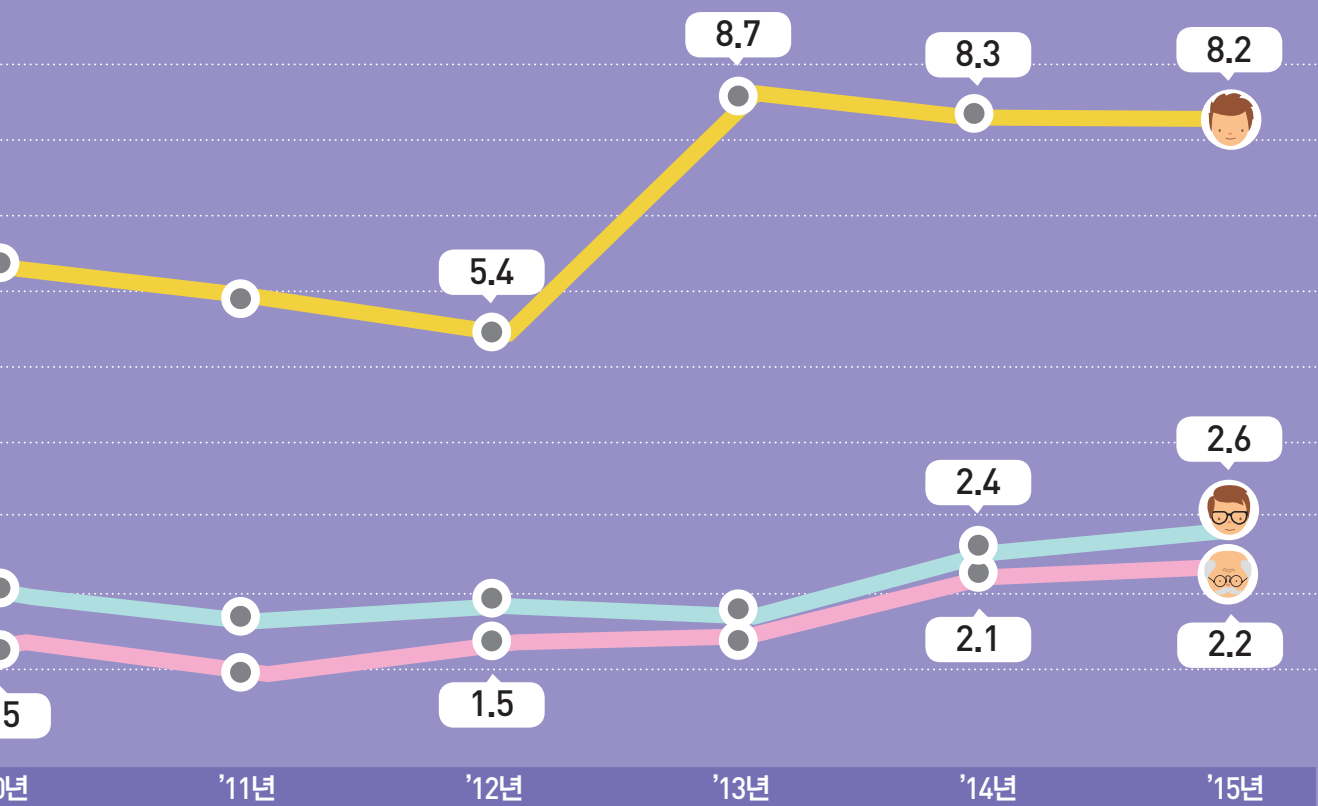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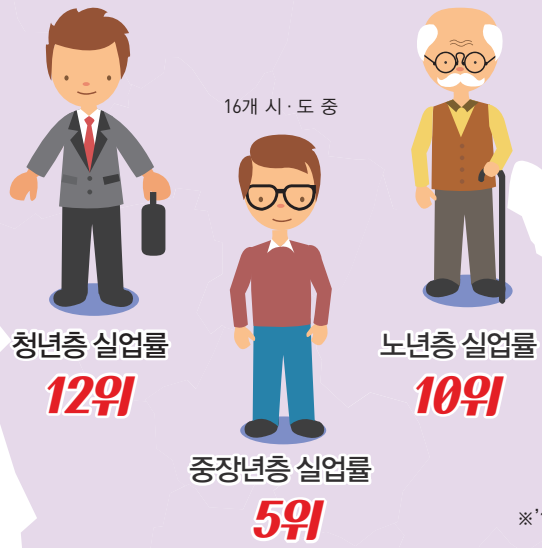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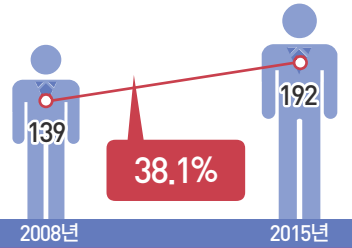
- ① 실망노동자 (실업자 중 구직을 포기하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와
- ② 부가노동자 (구직활동을 하지 않던 가구원의 일부가 취업활동에 나서는 것) 효과



경제활동인구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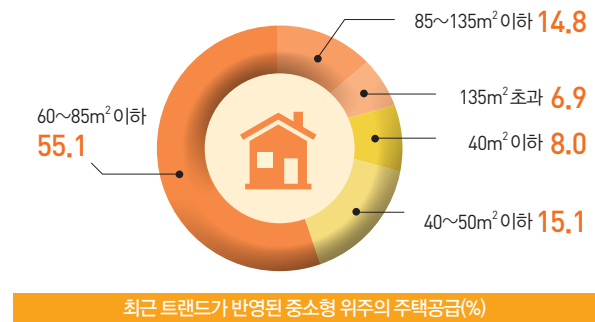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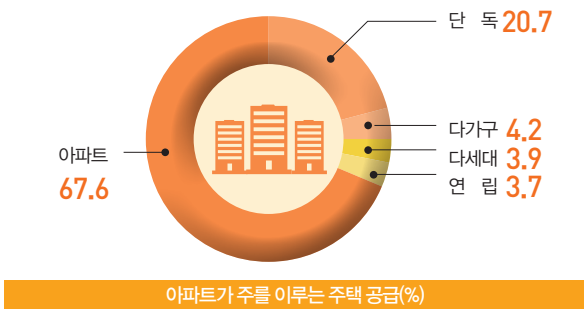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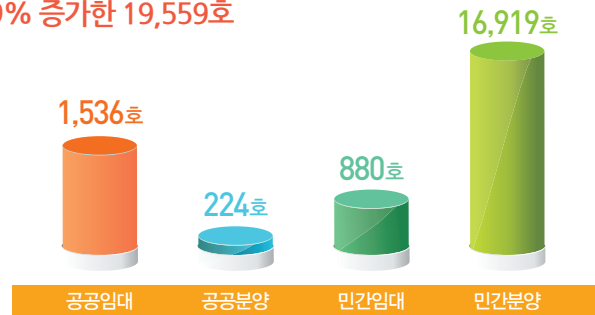
비경제활동인구 (통학, 가사, 육아제외, 천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 %, 연령별 구분 기준 : 청년층(15세~29세), 중장년층(30세~39세), 노년층(6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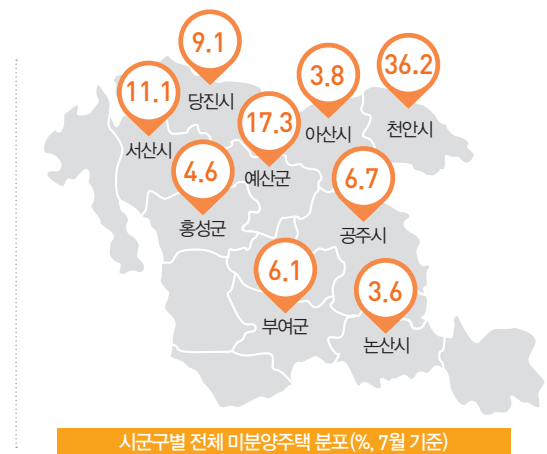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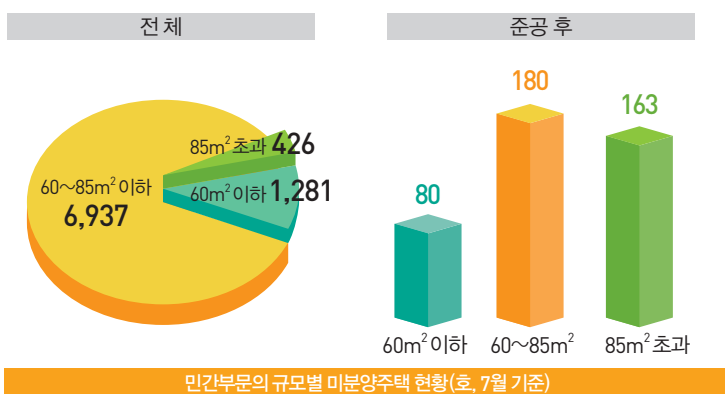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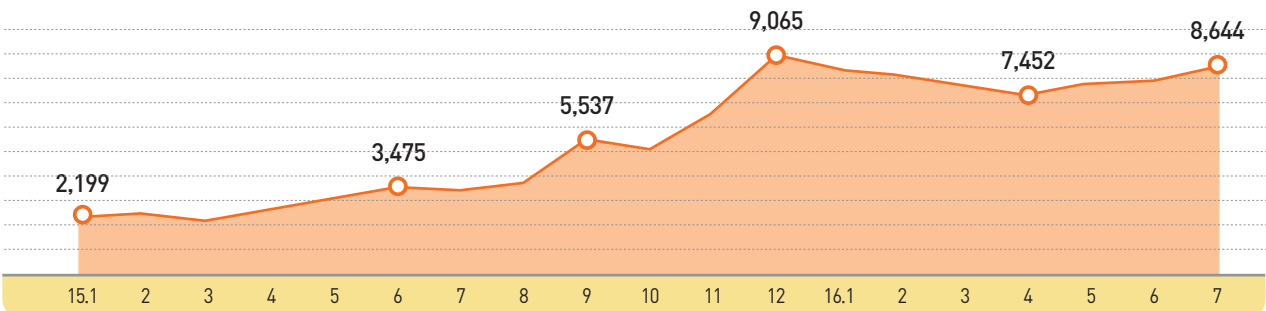
충남지역 아파트 및 임대주택 공급실적 및 현황은?

2016년 충남의 아파트 공급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한 19,55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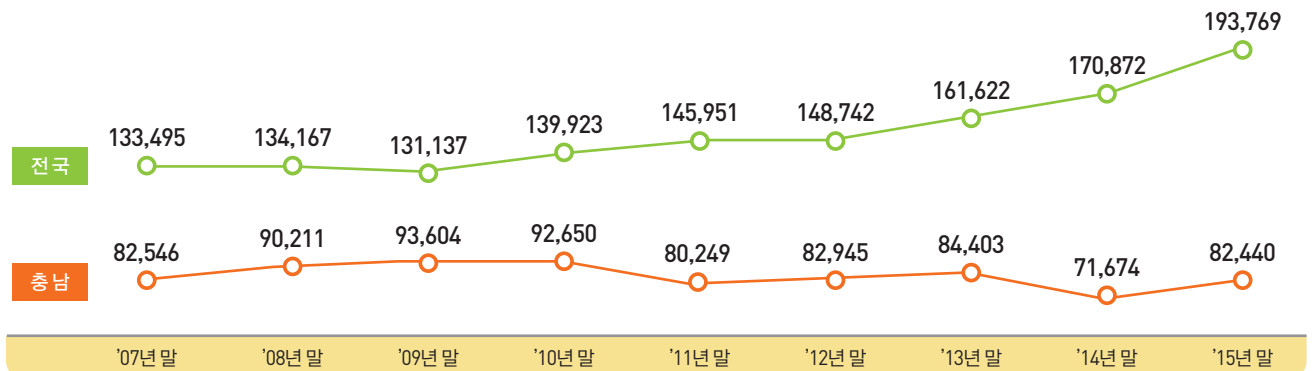
최근 급격히 늘어난 미분양주택

※ 단위: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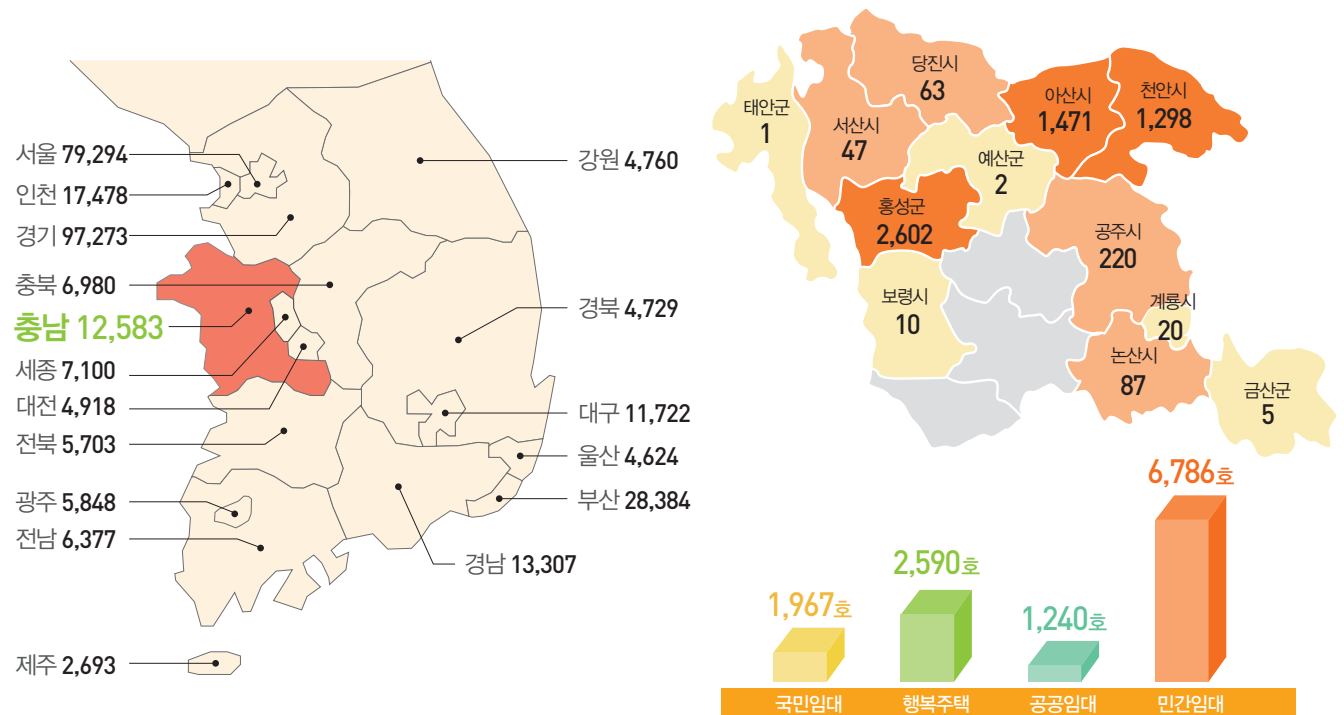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임대주택 재고현황! '14년 최저, '15년 반등

※ 단위 - 전국: 십호, 충남: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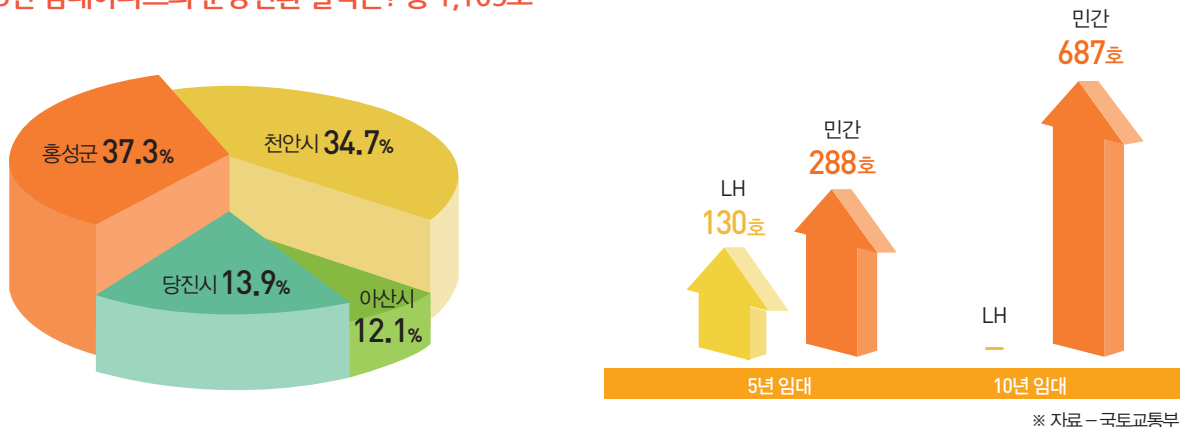


'15년 충남지역 임대주택 건설공급은 12,583호, 천안과 아산, 홍성지역에 집중된 분포

※ 단위: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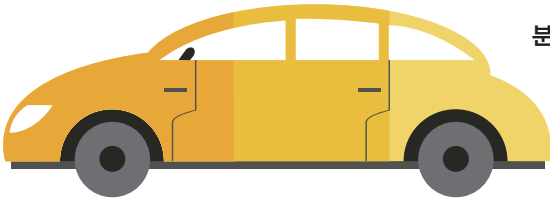
'15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실적은? 총 1,105호



우리나라 튜닝산업! 현황과 미래는?

⚙ 튜닝의 정의 및 분류

정의: 자동차의 성능향상이나 외관단장을 위한 구조·장치 변경 또는 부착물 추가(자동차관리법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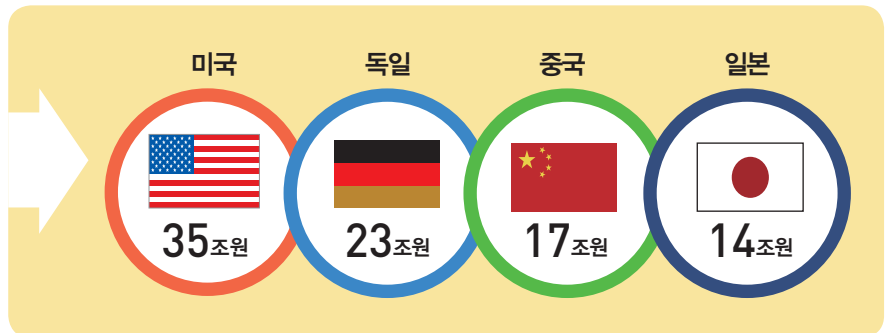


분류: 목적에 따라 빌드업·튠업·드레스업 튜닝, 주체에 따라 소비자·제작자 튜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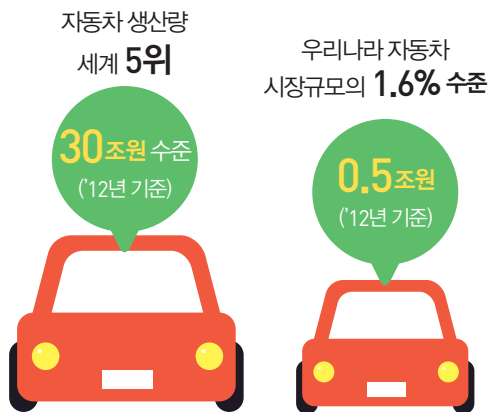
- (빌드업) 특수장치 부착, 구조변경 (튠업) 엔진·주행 장치 변경 (드레스업) 외형변경, 악세사리 부착
- (제작자 튜닝) 소비자의 옵션 주문에 따른 튜닝

“ 최근 대전·충남지역의 **자동차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세계 튜닝시장 규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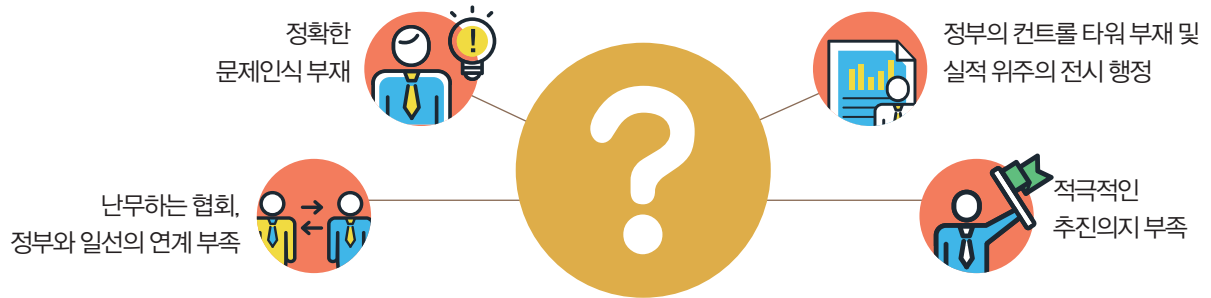
⚙ 우리나라 튜닝시장 규모, 전체 자동차 시장 대비 미미한 수준



⚙ 우리나라 튜닝 동호회 회원수 증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 수요 꾸준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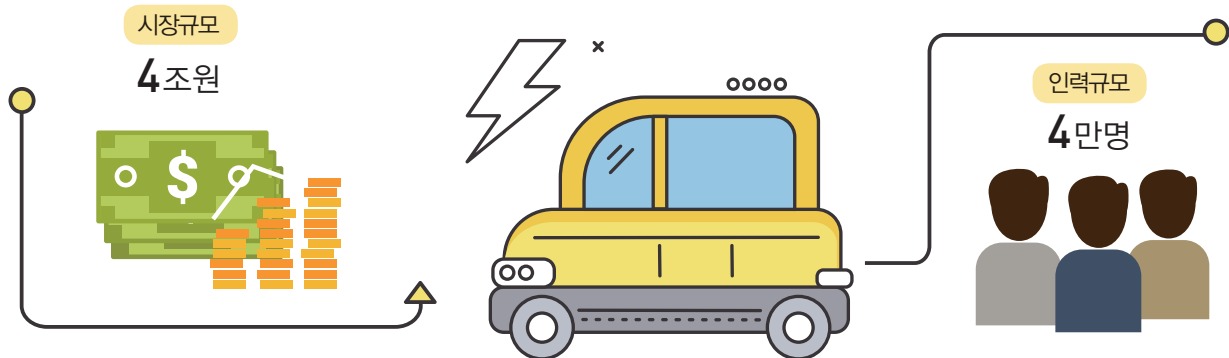
⚙️ 우리나라 튜닝산업 비활성화 원인은?



⚙️ 실질적인 해결방안



⚙️ 튜닝활성화의 기대효과(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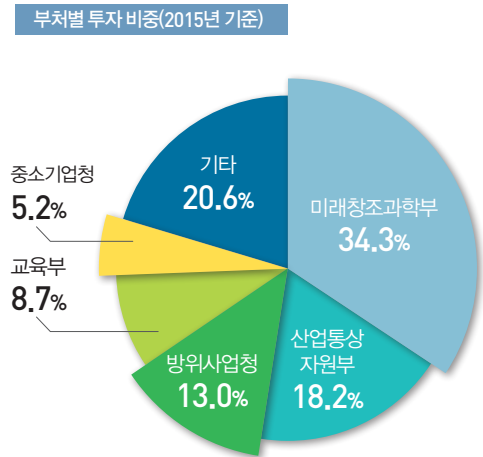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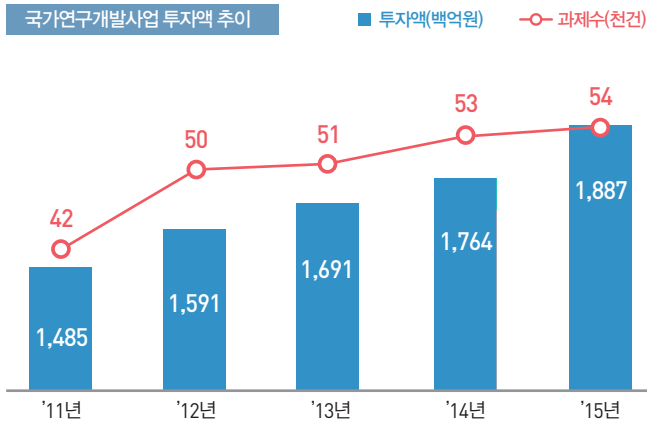


* 보수적 가정을 통한 시장규모(경제성장률, 부품시장 성장, 1.5조원) + 정책효과 등 튜닝시장 성장가능성이 반영된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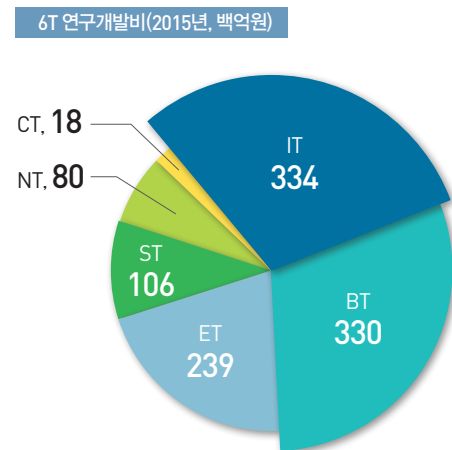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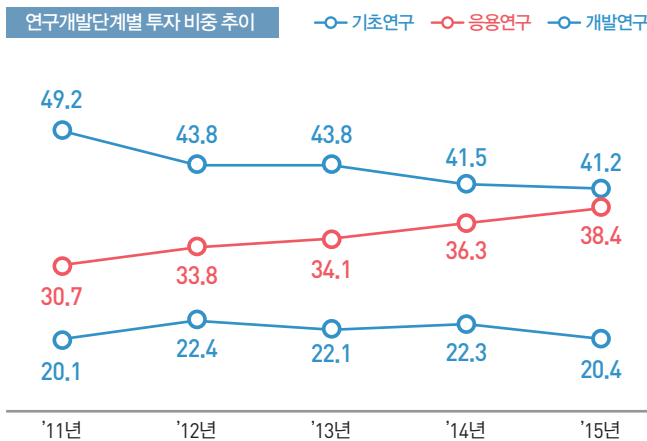
※자료: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2014.6.17., 관계부처 합동)
대전충남지역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발제자료 인용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충남 현황은?

- 🔍 '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추이는 전년대비 투자액 7.0% 증가, 과제수 1.8% 증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개발사업의 주도,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이 그 뒤를 이음



- 🔍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분야의 투자 비중 증가
'15년 미래유망신기술(6T) 투자는 전년대비 9.5% 증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총투자액 증가율(7.0%)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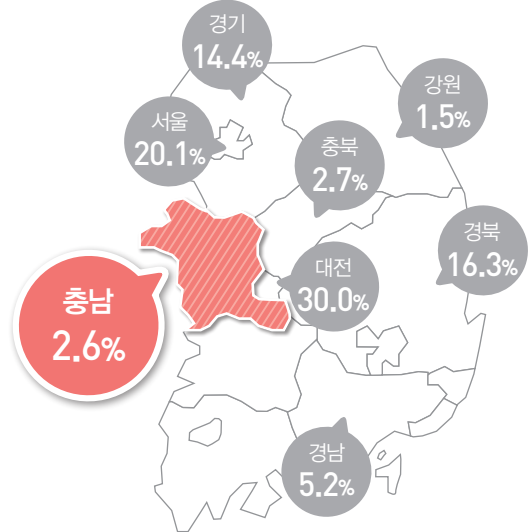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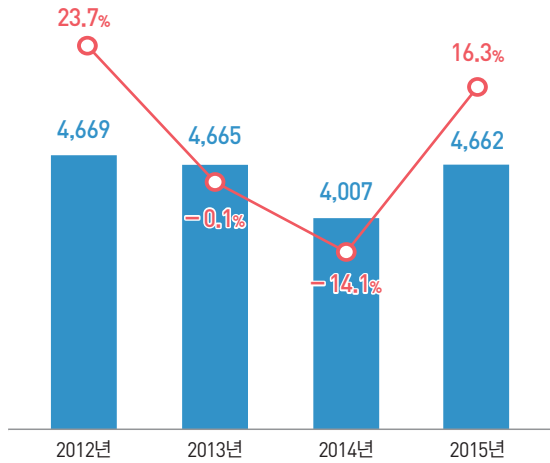
* 6T란, NT(나노기술), BT(생명공학기술), ET(에너지환경기술), ST(우주항공기술), IT(정보기술), CT(문화기술)

- 🔍 목적별로 보면, 전년대비 보건환경(14.9%) · 우주(14.0%) · 국방(7.0) · 경제발전(6.2) 순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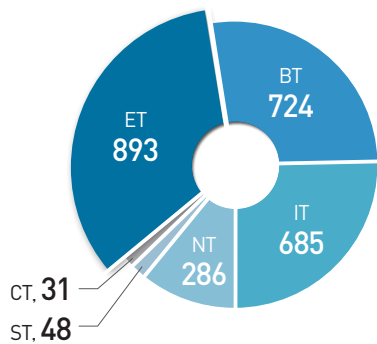
충남지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은? '15년 총 투자액은 4천 7백억원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

-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총 투자액(18조 2천억원) 중 대전이 5조 4천억원으로 전체 30%를 차지, 충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2.6% 비중을 나타내며 1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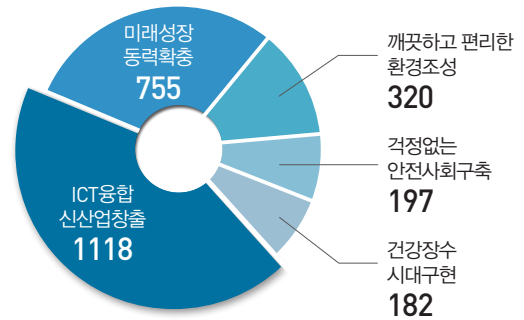
미래유망신기술(6T) 투자는? 총 2,667억원

- ET(33.5%) · BT(27.1%) · IT(25.7%)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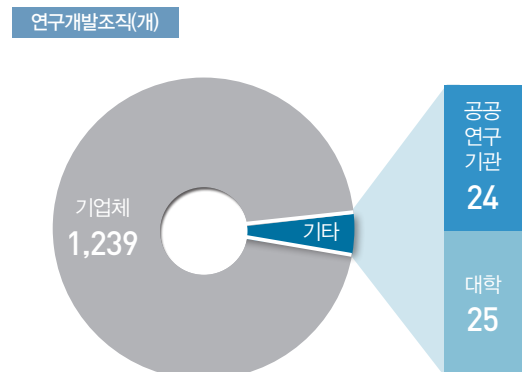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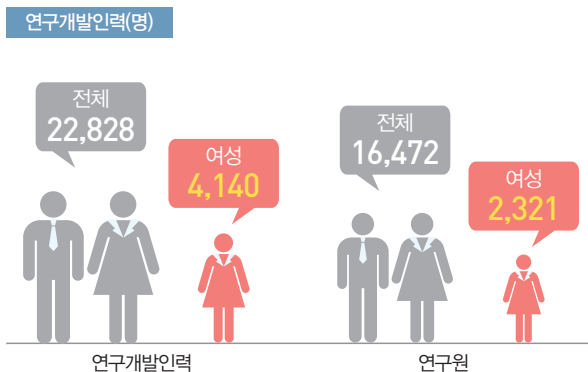
국가전략기술 투자현황은? 총 2,573억원

- ICT융합 신산업 창출(43.5%) · 미래성장동력 확충(29.3%)가 대부분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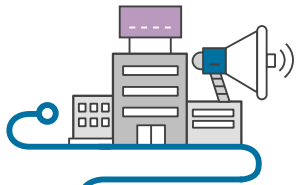


충남지역 연구개발인력 및 조직 현황(2014년 기준)

- 전국대비 연구개발인력(연구원)의 비중은 전체 3.8%, 여성은 2.9% 수준 / 연구개발조직은 전체 1,288곳으로 기업체가 96.2%를 차지



※ 자료 :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 분석보고서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 우리나라의 지역별 연구개발 활동현황



충남지역 주력품목의 수출경쟁력 국제비교와 시사점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중, 한·일, 한·미 간 경쟁심화와 함께 충남 10대 수출품목의 韓 세계시장 점유율 소폭 하락

충남의 수출 주력품목 부진으로 수출비중 하락

우리 수출은 세계경제 저성장과 유가하락 등으로 지난해 8% 감소한데 이어 올해 1~8월에 8.8% 감소하면서 부진이 심화되었다. 충남 수출은 지난해 3.1% 증가, 올해 1~8월에는 4.1% 감소로 전체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11.4%에서 2015년 12.7%, 2016년 들어 12.9%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충남 수출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등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온 결과 10대 주력품목이 충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력품목의 수출이 오히려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충남 전체 수출에서의 10대 주력품목 수출비중이 2016년 1~8월에는 89.3%로 하락했다. 특히 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 자동차, 철강제품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수출 감소세가 지속 되고 있으며, 평판디스플레이(2016년 1~8월 수출증가율 -25.1%)와 석유제품(-15.6%), 자동차(-12.4%)는 두 자리 수의 수출 감소를 기록하면서 수출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충남 10대 수출품목의 우리나라 수출비중은 하락, 세계시장 비중은 상승

충남 10대 수출품목의 우리나라 수출규모(2015년 기준)는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 석유제품 순이다. 우리나라 총수출 대비 10대 품목 비중은 2011년 67.2%에서 2014년 68.2%로 상승했으나,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제품, 평판디스플레이 등의 비중 축소에 따라 2015년에는 66%미만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전 세계시장에서는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큰 폭으로 수출비중이 하락했던 석유제품을 제외한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의 비중 확대에 힘입어 10대 품목의 합계 수출 비중은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10대 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 소폭 하락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철강제품, 석유제품이 5% 이상을 기록했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10대 품목의 우리나라 점유율을 보면 반도체, 일반기계, 컴퓨터 등은 상승, 나머지 7개 품목의 점유율은 하락했다. 국가별로는 10대 품목의 세계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하락했다. 특히, 중국은 13대 전 품목에서 점유율 상승을 가져오며, 우리의 주력 품목을 계속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품목의 수출경쟁 치열해져

세계시장에서 한·일 및 한·중, 한·미 간 10대 품목 수출 경쟁도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10대 품목 중 8개 품목에서 한·일 간 수출경합도가 상승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철강제품 등 4개 품목은 한·일, 한·중, 한·미 간 경쟁도가 심화되었다.

수출 주력품목의 업그레이드와 수출구조를 개선해야

주력품목의 수출감소가 상당부분 수요둔화에 기여한 것으로 앞으로 수요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및 충남 수출의 회복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주력 제조업 내에서 새로운 수출상품을 발굴하고 현재의 주력산업과 제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제조업의 스마트(Smart)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시너지(Synergy), 소비재수출확대, GVC 활용, 혁신과구조개혁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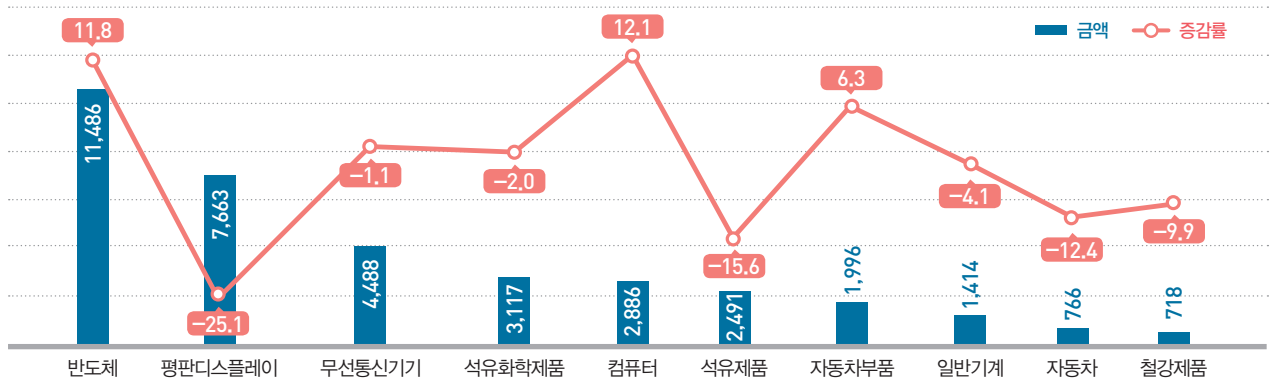
저자 _ 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66

충남 10대 주력품목의 중국·일본·미국과의 수출경합도는?

충남의 10대 주력품목 수출 동향(MTI 3~4단위 기준,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 충남 10대 주력품목 올 1~8월까지 수출액은 37,025백만불
- 충남 전체 수출에서 10대 주력품목의 수출비중은 지난해 90%에 육박하였으나 올해 1~8월까지 89.3%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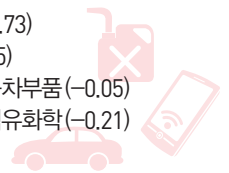
우리나라 10대 주력품목의 대세계 점유율은?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p)



- 반도체(0.51)
- 일반기계(0.08)
- 컴퓨터(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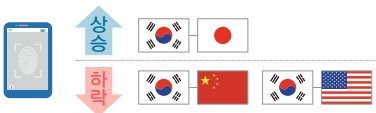
- 평판디스플레이(-4.73)
- 무선통신기기(-0.95)
- 자동차(-0.52), 자동차부품(-0.05)
- 석유제품(-0.42), 석유화학(-0.21)
- 철강제품(-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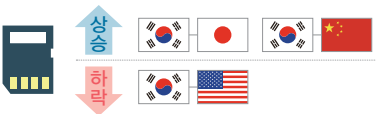
10대 주력품목의 수출경쟁 점점 치열해져(2011년대비 2015년 수출경합도 비교)

- 「한-일」 수출경합도: 컴퓨터를 제외한 9개 품목의 수출경합도 상승 특히, 자동차부품 수출경쟁 심화
- 「한-중」 수출경합도: 자동차·자동차부품 수출경합도 상승 이어 일반기계, 반도체, 석유제품 경쟁도 상승
- 「한-미」 수출경합도: 자동차·자동차부품, 컴퓨터, 일반기계, 철강제품 수출경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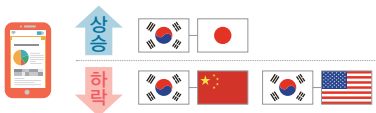
평판디스플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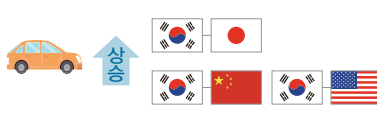
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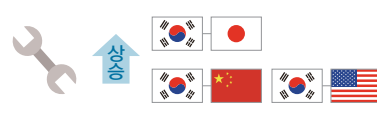
무선통신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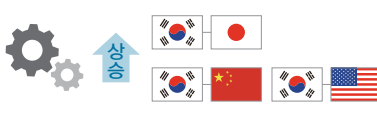
자동차·자동차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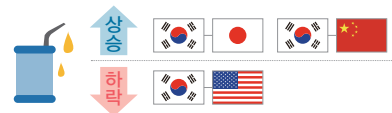
철강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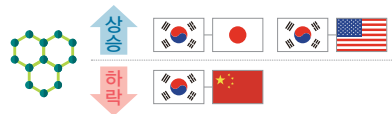
일반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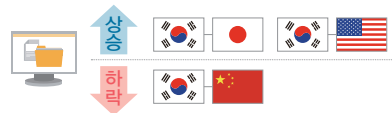
석유제품



석유화학



컴퓨터





아베노믹스 2기의 일본 전기전자 및 자동차업체,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박차

‘주력인 자동차도 재편 및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닛산은 경영부진에 빠진 미쓰비시자동차에 34%를 출자한다. 닛산과 미쓰비시자동차의 제휴 동기는 다음과 같다.

① 핵심 개발인력의 교류 확대, ② 신기술자원의 공유를 통해 자동운전이나 커넥티드 카 개발 등 신기술 개발 부담을 상호 경감, ③ 경자동차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 ④ 동남아시아에서의 협력 강화를 추구, ⑤ 환경대응차 개발에 대한 협력이 필요, ⑥ 생산거점을 공유, ⑦ 플랫폼이나 부품의 공통화를 통해 개발·조달 비용을 경감하고 규모의 경제이점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2년 연속 2조엔 이상의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도요타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위기의식을 갖고 향후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자동운전 등의 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요타는 TNGA(도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TNGA는 부품의 공통화 외에 복수 차종의 전사적 최적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개별 차종의 차별화/고급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특히 자동운전 기술과 관련하여 AI(인공지능) 분야에 향후 5년간 1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2016년 1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AI 관련 연구소를 설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샤프 대만회사에 인수, 르네사스도 관제 구조조정 추진’

샤프는 2015년 4-12월 결산에서 1,083억엔의 당기손실을 기록한 후 대만기업인 홍하이에 인수되었다. 세계적인 액정 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액정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샤프가 이를 견뎌낼 수 있을지, 홍하이가 샤프를 얼마나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결정에 대하여 일본 내에서는 주무 기관인 산업혁신기구와 감독 관청인 경산성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도시바, 히다치는 핵심사업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 추구’

도시바는 원전과 반도체가 부진을 보이고 있다. 동사는 백색가전, PC, 의료기기 사업분야를 매각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2016년도에는 종래의 백화점식 종합전기(電機) 메이커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향후 도시바는 주력인 에너지, 반도체, 사회인프라의 3개 부문을 각각 에너지시스템솔루션社, 스토리지&디바이스솔루션社, 인프라시스템솔루션社로, 또한 이들을 지원할 인터스트리얼 ICT솔루션社 등 4개 컴퍼니체제로 재편할 방침이다. 냉장고 등 백색가전은 보유주식 대부분을 중국기업(미데아)에 매각할 방침이다. PC사업 분야에서는 이미 소니에 CMOS센서를 매각한 바 있으며, 재산이 맞지 않는 분야를 타사와의 경영통합 등을 통해서 과감히 정리할 예정이다. 의료사업을 담당하는 도시바메디컬시스템즈를 캐논에 6,655억엔에 매각함으로써 동사의 자기자본비율을 15%로 높일 계획이다. 2017년 3월말 그룹의 종업원 수를 18만 3,000명으로 2015년 동월에 비해 3만 4,000명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이익률이 5%에 미달하는 사업은 철수하거나 재편하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히다치는 성장률 감소를 탈피하기 위해 저수익사업 분야에서의 철수뿐만 아니라 비핵심사업의 정리를 통해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다. 히다치물류가 SG홀딩스에, 히다치캐피탈이三菱UFJ파이낸셜 그룹에 보유 주식의 대부분을 매각한 것은 비핵심 사업분야의 정리 차원에서였다. 히다치의 CEO는 비핵심 부분의 정리로 인한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동사는 핵심사업 강화를 위해 M&A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본고는 산업연구원의 월간산업경제(2016년 중) 해외산업이슈 코너에 필자가 게재한 것들을 본고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임.

저자_ 산업연구원 사공 목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67

일본 자동차 & 전기전자산업의 구조조정, 어떻게 진행되는가?

자동차산업

✓ 협력체계 구축 → 닛산자동차, 미쓰비시자동차에 34% 출자!



개발인력 교류



신기술 자원공유



경자동차분야 협력



동남아 진출협력



환경대응차 개발



생산거점 공유



플랫폼&부품의 공동화

✓ 도요타의 위기의식 → “TNGA(Toyota New Global Architecture) 시스템”으로 에너지·환경문제 등 새로운 문제에 대응



부품의
공동화



복수차종의 전사적
최적시스템 구축



개별 차종의
차별화/고급화



AI(인공지능)
10억달러 투자

전기전자산업

✓ 인수합병, “샤프” SHARP & “홍하이” FOXCONN 鴻海科技集團



홍하이
4,980억엔
출자

인수조건

사업의
일체성과
고용유지

기술유출
방지

고유
브랜드
사용

샤프의
독립성

불황인
액정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샤프 & 홍하이”의
협력체계 구축이 관건

✓ 관제 재편, “르네사스” RENESAS

• 2010. 4월 르네사스 출범

• 2013년 산업혁신기구 1,383억엔 출자

• 2016년 9월 미국 인터실에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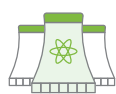
3년간 적자 3,451억엔

2015.3월
4.7만명 → 2.1만명 구조조정

✓ 선택과 집중, “히다치” HITACHI Inspire the Next



사회이노베이션



중전기



하드디스크 구동장치



물류



캐피탈



반도체







중소형 액정사업

집중 투자

매각 &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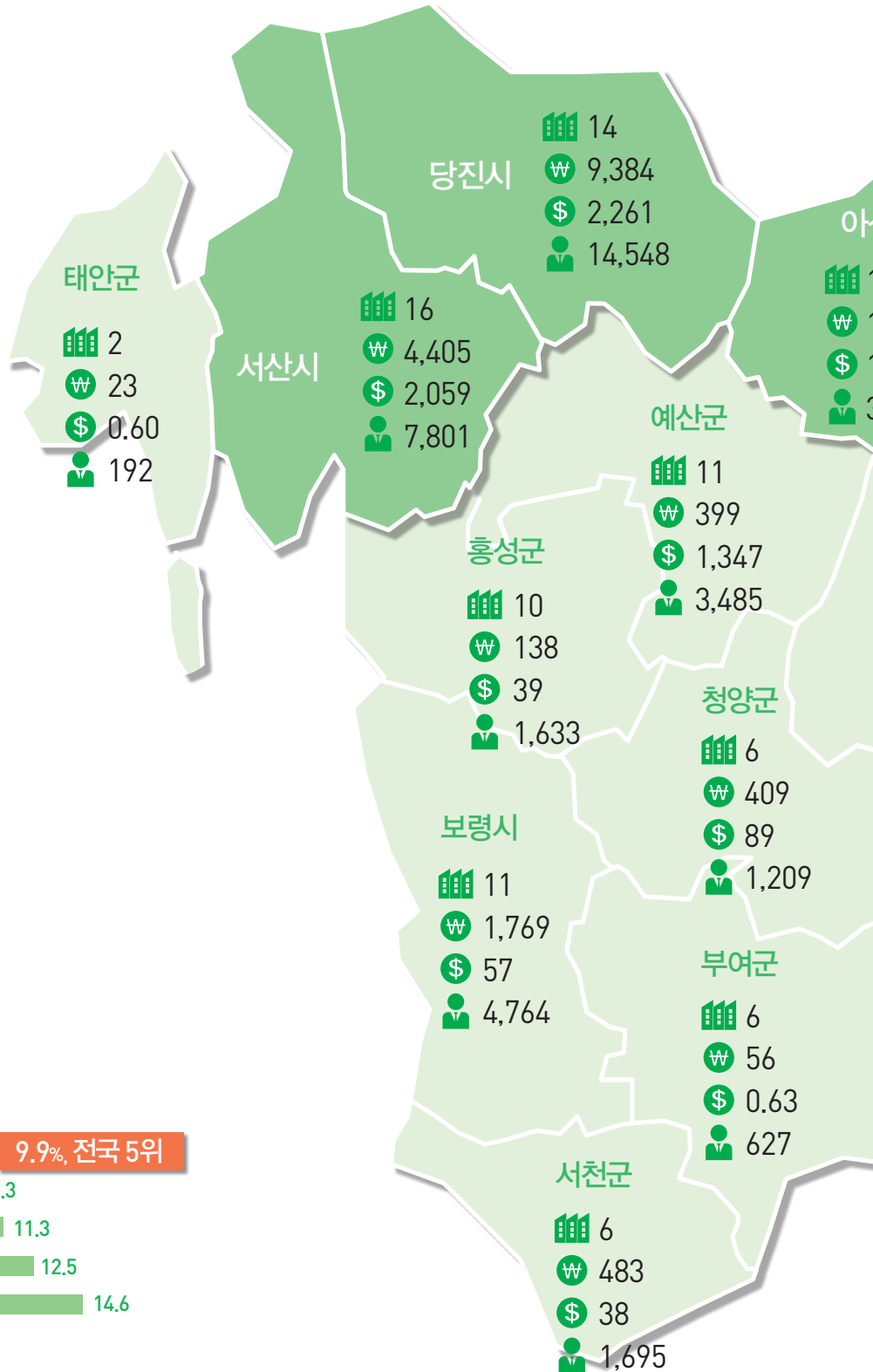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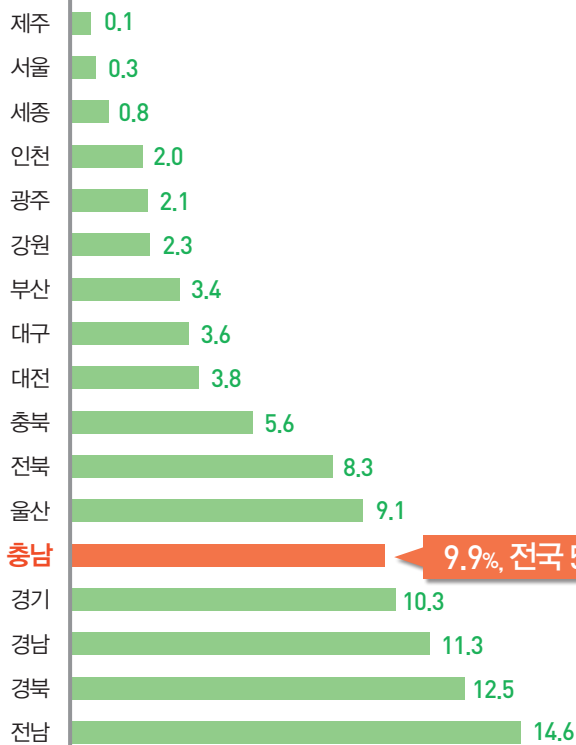
충남지역 산업단지 일반현황과 시군별 분포!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범례

-  산업단지수(개)
-  생산액(십억원)
-  수출액(백만불)
-  고용(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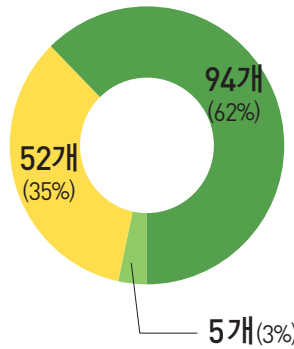
 산업용지 65,556천m²,
전국 5번째로 많은 면적을 소유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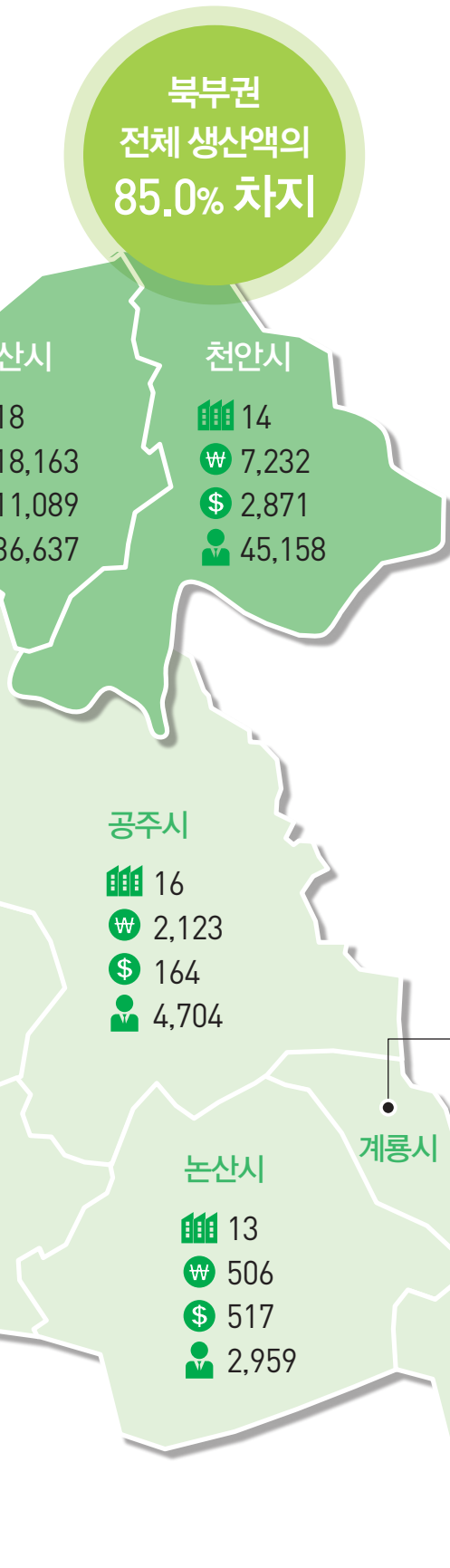


총 151개의 산업단지 중 108개는 조성완료 43개는 조성 중으로 현재진행 중

농공단지 일반산업 국가산업



108개 43개



충남지역 산업단지 전체 생산액과 수출액은?

₩ 46,111 십억원 \$ 21,093 백만불

총 고용인원은? 약 13만명

97천명 33천명

※ 자료 : 충남넷, 산업단지분기별 통계(2016.2분기 기준), 산업입지 정보시스템(2016년 6월 기준)

A large circular graphic with a thick black border and a white center. Inside the circle, the text '충남경제뉴스' is written in bold black Korean characters.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age is a light gray with a faint, stylized bar chart and line graph pattern. The circular graphic has two curved arrows: a thick black one on the left and a thinner gray one on the right, both pointing clockwise.

충남경제뉴스

충남경제뉴스

2016. 11. 22.

2개 마을기업 전국 경진대회 '우수'

청양 꽃뫼마을영농조합 ·
금산 금강나루영농조합
우수 · 장려상 수상

- 충남 청양 꽃뫼마을영농조합과 금산 금강나루영농조합이 '2016년도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각각 수상
- 이번 경진대회는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마을기업 중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공동체에 모범이 된 마을기업 사례를 찾아 확산시키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개최했으며, 최우수와 우수, 장려 등 모두 20개 마을기업 선정
- 꽃뫼마을영농조합은 지역 특산물인 맥문동을 이용 생산한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판로 개척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주민 화합을 이뤄 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금강나루영농조합은 금강생태과학체험장과 금산국민여가캠핑장 등 체험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며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
- 꽃뫼마을영농조합과 금강나루영농조합은 이번 선정에 따라 5000만 원과 3000만 원의 사업비를 각각 지급받음
- 도내에는 현재 108개 마을기업이 있으며, 지난 2011년 홍성 지역센터마을활력소와 2012년 당진 백석올미마을, 2014년 예산 협동조합 느린손 등이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음

2016. 11. 22.

'중 GDP 성장률 2위'와 교류협력 넓힌다.

안희정지사,
구이저우 '충남의 날' 행사서
자매결연 협정 체결

- 중국을 방문 중인 안희정 지사는 22일 중국 구이저우성에서 열린 '충남의 날' 행사에서 천민얼 구이저우성 당서기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 지난 2014년 9월 우호교류협정 의향서를 체결한 뒤 2년2개월만이며, 우호교류 협력 강화 공동성명을 채택한지 7개월 만임
- 협정에 따르면 도와 구이저우성은 '한·중수교 공동성명'과 '한·중 공동성명' 원칙에 입각하고, 양 지역 간 우호협력 증진과 한·중 양국 국민 간 이해 및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자매결연 관계를 맺음
- 이번 자매결연 협정 체결에 따라 도의 중국 내 자매결연 단체는 모두 4곳으로 늘어나게 됨
-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구이저우성은 17만㎢로 우리나라 면적의 1.5배에 달하며, 인구는 2014년 말 기준 3800만 명에 달함
- 이 곳은 특히 지난해 상반기 중국 내 GDP성장률 2위를 기록하며 중국 서부 대개발 정책의 핵심지역으로써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중국 제1의 명주인 '마오타이주' 생산지로도 유명

2016. 11. 23.

구이저우 기업 · 여행사 만나 '충남 세일즈'

중국 방문 안희정 지사,
경제인 교류회 · 충남 관광
설명회 참가

- 안희정 지사가 중국 구이저우성에서 양 도 · 성 경제인 교류 지원과 구이저우성 관광객 충남 유치에 나섬
- 중국 GDP 성장률 2위로 서부 대개발 핵심지로 꼽히는 구이저우성과의 자매결연 체결과 '충남의 날' 행사 참가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안 지사는 23일 구이저우에서 열린 경제인 교류회와 충남 관광 설명회에 잇따라 참가해 '충남 세일즈' 활동을 펼침
- 도내 참가기업은 충남경제사절단선정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뽑은 자동차 부품과 철강 플랜트 등 11개 업체이며, 빅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KT도 자리를 함께 함
- 충남관광 설명회는 지난 9월 광동성 관광 설명회 개최 이후 중국 내 교류지역에 대한 관광 마케팅 강화 계획에 따라 마련했으며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

2016. 12. 1.

중국 뉴라이프, 도내 투자 본격화

천안5외투단지 입주 계약
체결하고 생산공장 실시설계
돌입

- 충남도가 지난 6월 유치한 중국 유명 화장품 기업인 신생활집단(이하 뉴라이프, New Life)이 도내 투자를 본격 시작
- 뉴라이프는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천안5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에 들어감
- 뉴라이프는 도와의 협약 체결 직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된 뒤 이번 계약을 맺었으며, 공장은 내년 착공해 2019년 가동예정
- 뉴라이프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종업원 900여명, 방문 판매원 12만 명, 매출액 7억 7300만 달러(8500억 원)에 달하는 중국 굴지의 화장품 회사로 심양과 상해, 청도 등에 5개 공장을 보유
- 안봉락 뉴라이프 회장은 천안 공장 제품생산을 통해 중국과 한국시장에 동시 진출할 예정이라며, 향후 5년간 매출액 2000억원을 달성하고, 지역 내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힘
- 도는 뉴라이프의 투자에 따라 도내에서 향후 5년 동안 2000억원의 매출과 직접고용 320명, 생산유발 55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1500억 원, 1150억 원의 수출 및 11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016. 12. 4.

천안5외투단지 '완판'초읽기

4일 현재 입주율 92.1%기록 ...
내년 초 입주 완료 전망

- 지난 1일 중국 굴지의 화장품 기업인 뉴라이프 등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율 90%를 돌파, 내년 초에는 입주율 100% 달성이 기대
- 천안5외투단지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 등 앵커기업 주력 수출 상품에 대한 양질의 부품 제공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외국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2012년 말 조성하여 전국 최초로 외투단지 지정 4년만에 대성공
- 투입 예산은 국비 584억 원과 도비 125억 원, 시비 125억 원 등 모두 834억 원이며, 규모는 성남면 · 수신면 일원 천안5산단 내 33만6208㎡임
-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 천안5외투단지는 전국 외투단지 중 분양률이 가장 빠른 곳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캐나다와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이탈리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선 충남 핵심 산업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2016. 12. 5.

수출 지원 '전국 1위' 올랐다

경제위기 속 수출 정책
빛발하며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 충남도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53회 무역의 날' 기념식서 수출 지원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며 대통령상 수상
- 이번 수상은 산업부의 전국 자치단체 대상 수출 증진 우수기관 평가 결과, 도가 수출 증진 노력과 단체장 관심도, 우수사례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
- 도는 올해 통상 진흥 시책으로 해외시장 무역사절단 운영, 국내 · 외 전시 · 박람회 참가 지원 등 20개 사업을 추진
- 이밖에 FTA 체결국가와 틈새 신규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다변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는 등의 노력으로 지난 10월 말 현재 무역수지 358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음
- 도 기업통상교류과장은 "이번 영예는 어려운 세계 경제속에서도 수출 증대를 위해 앞장서 준 도내 수출기업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내년에도 지역 중소 기업들이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통상 진흥 시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함

2016. 12. 6.

저성장 시대, 충남경제 잠재력 확충 방안은

도, 6일 한국은행과
경제세미나 개최 ...
주제발표 · 토론 등

- 충남도는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은행과 함께 '충남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을 주제로 경제세미나를 개최
-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와 김한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양 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
- 발표는 주진철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과장이 '충남지역 주요산업의 공급과잉 현황 및 리스크 점검'을 박하일 경희대 교수가 '대전 · 충남지역 인구 구조 변화와 정책 과제'를 박승록 한성대 교수가 '충남지역의 산업 생산성 현황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각각 진행
- 주진철 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장기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급과잉에 직면하며 우리나라도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한편,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도 뚜렷하게 둔화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철강과 석유화학, 전자 등 도내 주요 산업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
- 이에 대한 대응과제로 주 과장은 △구조적 수익성 악화 해소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 △운영 노하우 · 인력 · 기술 패키지, 설비운용 서비스 등 수출 다양화 △ 중국의 소비 · 서비스업 비중 확대 대비 소비재 등 다양한 수출 포트폴리오 확보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 나프타 재협상, 대미 무역수지 흑자 국가 관세 부과 등에 대한 지원 전략 마련 등을 제시
- 또 박하일 교수는 "충남의 노인 인구 비중은 16.5%로 전국에서 5번째로 비중이 높고, 생산가능인구(14~64세) 비중은 69.2%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고 말함
- 그러면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성장 방향 수정 △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정책 현실화 및 주거비 부담 완화 △고령 노동력 적극 활용, 청년층 역외유출 방지 노력 △연금제도 개혁, 의료보험제도 보완, 노인복지 제도 확충 △새로운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정책 과제로 내세움
- 박승록 교수는 "충남의 GRDP는 전국 4위 수준이고 제조업 비중과 고용률은 2~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근로자 생산성 및 1인당 GRDP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도내에서 생산성 수준이 높은 분야로 의약품과 전기장비, 가축 · 신발, 기타기계 등을 꼽음
- 이어 토론에서는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김흥기 한남대 교수와 오근엽 충남대 교수, 오지윤 KDI 부연구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충남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 한편 도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지난 2012년 '도청 이전 기념 경제정책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년 공동 세미나를 개최 중

2016. 12. 9.

충남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청 보증사업평가 전국1위

충남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청 보증사업평가
에서 전국 16개 지역재단 중
1위 달성

-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이하 충남신보)이 2016년도에 최초로 시행한 중소기업청 보증사업평가에서 총점 92.87점으로 평가받아 전국 16개 지역재단 중 1위 달성
- 중소기업청 보증사업평가는 신용보증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신용보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도입한 평가
- 충남신보는 총10개 지표 중 정책보증 지원실적 개선도를 포함한 5개 지표에서 만점인 10점을 평가 받는 등 세부지표별로도 고르게 매우 높은 점수를 획득
- 충남신보는 이번 보증사업평가 1위로 2017년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납부하는 재보증료 3천 6백만원 절감 및 금융회사 법정출연금 2억 7천만원 추가 확보 등 약 3억 6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예정

2016. 12. 12.

천안2산단, '혁신산단'으로 다시 태어난다

도정 사상 첫 노후산단 혁신사업 공모 선정 ... 6년 197억 투입

혁신지원센터 건립 등 추진 ... 노후산단 재생사업도 선정 가능성

-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가 '2016년도 혁신산업단지'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충남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다시 태어남
- 도와 천안시가 지난해부터 TF팀을 구성해 공모를 준비하고, 지역 정치권이 정당을 초월해 지원하며 도정 사상 첫 노후산단혁신사업 선정 결실을 맺은 것
- 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16년 혁신산업단지 선정 공모'에서 도전장을 제출한 전국 6개 산단 중 천안 제2산단을 비롯, 2개 산단이 최종 통과했다고 12일 밝힘
- 지난 1992년 조성된 천안 제2산단은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차암동·성성동 일원 82만 3000㎡ 규모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업체 63개사가 입주(58개 기업 가동)
- 이번 혁신산업단지 공모 선정에 따라 천안 제2산단에는 내년부터 6년 동안 국비 40억원과 지방비 40억원, 민자 117억 원 등 모두 197억 원이 투입돼 경쟁력 강화 사업이 추진
- 구체적으로 연구(R&D) 및 업무 공간, 기업지원센터와 기업연구소, 성장 유망 벤처, 각종 교육 및 컨벤션 공간, 관리사무소 등이 들어설 천안혁신지원센터가 건립
- 도는 이와 함께 발표만 남겨둔 국토교통부 노후산단 재생사업까지 합하면, 천안 제2산단은 진입도로가 2배로 확장되고, 주차장도 추가 설치되는 등 기반시설이 대폭 정비·확충될 것으로 기대
-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지난 8월 최종 평가를 마치고, 이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도는 공모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도는 노후산단 혁신사업과 재생사업이 오는 2022년까지 예상대로 추진될 경우, 천안 제2산단의 연간 생산액은 2조 8000억 원, 근로자 수는 6000명으로, 현재보다 각각 38%와 32% 급증할 것으로 기대
- 도는 앞으로 천안시와 산업부, 국토부 등과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며, 천안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설치할 예정

2016. 12. 12.

'무역수지 1위 견인' 주역들 한 자리에

'제53회 무역의 날' 기념 충남 수출 유공 기업·개인 시상식 개최

- 도는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제53회 무역의 날'기념 충남 수출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
- 안희정 지사와 윤석우 도의회 의장, 안경남 대전세종충남기업협회회장을 비롯한 도내 수출 관련 기관·단체장,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시상식은 정부 포상 전수와 충남도 수출탑 및 수출 유공자 시상식 진행
- 이번 시상식에서는 서산에 위치한 한화토탈(주)이 50억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모두 50개사와 수출탑을 받았으며, 이귀영 디와이오토(주)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19명이 정부표창을 받음
- 한화토탈의 50억불 수출탑은 특히 이번 무역의 날 수출탑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받은 상
- 이날 시상식에서 안희정 지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수출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온 기업인 및 종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충남 수출을 견인해 나아가자고 강조

2016. 12. 13.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 불씨 키운다

도, 국회의원 · 인천시 등과 13일 국회서 합동 정책토론회 개최

- 도는 1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우원식 · 어기구 · 안상수 의원, 인천시와 공동으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 사회적 공론화 시 · 도 합동 정책 토론회’를 개최
- ‘공정한 전력수급 체계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주제로 충남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안희정 지사와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도와 인천시, 시 · 군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제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
- 발표는 인천발전연구원 조경두 선임연구위원이 ‘전력 수급 정책과 환경 정책, 그리고 지역 이슈’를, 충남연구원 신동호 연구위원이 ‘공정한 원가가 반영된 전력요금 체계 방안’을, 이화여대 석광훈 교수가 ‘공정한 에너지 세제 개편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각각 가졌으며, 토론에는 건국대 박종배 교수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근대 선임연구위원, 홍익대 전영환 교수 등이 참여
- 한편 도의 공정한 전력수급체계 개편방안은 지난 2014년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에 담아 발표
- 도는 이를 통해 △ 새로운 지역 균형발전 도모 △ 화력발전소 및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민 환경 · 경제적 피해 최소화 △ 전력 다소비 산업체 및 기관 자발적 지방 이전 유도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도는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위해 내년 초 ‘전기사업법’개정을, 민주적인 전원 개발을 위해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

2016. 12. 13.

도내 내수 · 초보 업체 수출기업으로 변신

수출초보기업 해외마케팅 사업 ... 맞춤형 마케팅 솔루션 지원

도내 30개 업체 참가 ... 18개 업체 130만불 수출계약 및 성과

- 도에 따르면, 도와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수출초보기업 해외마케팅 사업’을 통해 도내 18개 업체가 130만 불(15억 1900만 원)의 수출 성과를 거둬
- 충남 아산의 잉크젯 프린팅기기 생산업체인 P사는 중국 B사에 25만 6000불을 수출했고, 천안의 콘크리트 몰드 생산업체 J사는 지난해 25만 불 수출에 이어 올해 인도네시아 바이어와 2만 5000불 규모의 추가 수주계약을 체결
- 수출초보기업 해외마케팅 사업은 수출인프라 구축은 물론 기업의 수출역량에 따라 업체별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년간 도내 30개 업체가 참가
-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참가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계약 성사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솔루션 마케팅을 지원
- 세부적으로는 온라인 마케팅 지원, 제품 해외홍보, 심층 해외시장조사를 통한 바이어 정보 제공 발굴 등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활동을 중점 지원
- 특히 현장 무역경험이 풍부한 한국무역협회 수출전문위원을 투입해 수출 전담제로 참가 기업을 1대1 밀착 지원해 업체들로부터 큰 호응
- 이동순 도 기업통상교류과장은 “내년 수출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중국 무역 제재 강화, 미국의 신 통상정책 등으로 수출여건은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전망된다”며 “충남도는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내년에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초보 기업의 수출기업으로의 성장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2016. 12. 15.

“어려운 이웃 위해” 사랑의 성금 기탁

중부도시가스,
15일 남궁영 행정부지사에
5000만 원 전달

-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5일 집무실에서 김병표 중부도시가스(주)대표의 예방을 받고, 이웃돕기 성금 5000만 원을 전달받음
- 이번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
- 아산시 음봉면에 위치한 중부도시가스는 지난 1993년 천안시를 시작으로, 현재 도내 9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
- 이 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사회복지법인인 중부재단을 설립, 지역사회 복지 및 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음
- 중부도시가스는 지난해에도 도에 5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천안단국대 병원과 협약을 통해 천안·아산 지역 저소득 가정에 대한 의료 지원사업도 실시 중

2016. 12. 16.

내년 상생산단 추진 과제 심의

16일 상생산단추진위개최 ...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방안
논의도

- 충남도는 1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상생산단 조성 사 추진 계획(안)을 심의
- 김용찬 도 기획조정실장과 상생산단추진위 위원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위원회는 올해 상생산단 조성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가 진행
- 이어 내년 추진하게 될 9개 시·군 19개 사업(145억 원)에 대해 심의하고, 교육·의료·문화 등 산단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
- 도는 올해 국비 지원 정부 공모 5개 사업 유치, 상생산단 조성 사업 12개 시·군 26개 사업 추진 성과를 거둠
- 내년에는 국비 지원 정부 합동 공모 사업 유치 확대, 주거 환경 시설 확대 보급을 통한 도내 근로자 정착 유도, 문화·체육·복지사업 점진적 확대 지원을 통한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
- 도는 이번 추진위 논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 내년 상생산단 조성 사업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
- 도 관계자는 “상생산단은 생산시설 위주의 산단이 아닌, 생산과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공간적으로 연계돼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사업 지역으로, 도내 산단 종사자가 기업체 인근에 거주함으로써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지역 발전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라며 “산단 입주 기업과 근로자,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상생산단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함



부 록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4. 주요 해외경제지표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P
국내총생산(GDP) ¹⁾	조원	1,265	1,333	1,377	1,429	1,486	1,559
1인당GDP ¹⁾	만원	2,561	2,677	2,755	2,846	2,947	3,079
국민총소득(GNI) ¹⁾	조원	1,267	1,341	1,392	1,440	1,491	1,566
1인당GNI ¹⁾	만원	2,563	2,693	2,783	2,867	2,957	3,094
경제성장률 ²⁾	%	6.5	3.7	2.3	2.9	3.3	2.6
생산구조	—						
농림어업	%	2.5	2.5	2.5	2.3	2.3	2.3
광공업		30.9	31.6	31.2	31.2	30.3	29.7
전기·가스·수도사업		2.2	2.0	2.1	2.3	2.8	3.2
건설업		5.1	4.8	4.8	4.9	5.0	5.1
서비스업 및 기타		59.3	59.1	59.5	59.3	59.6	59.7
제조업 평균가동률	%	80.3	80.5	78.6	76.5	76.2	74.3
취업자	천명	23,829	24,244	24,681	25,066	25,599	25,936
농림어업	%	6.6	6.4	6.2	6.1	5.7	5.2
광공업		17.0	16.9	16.7	16.8	17.0	17.4
건설업		7.4	7.2	7.2	7.0	7.0	7.0
서비스업 및 기타		69.1	69.5	69.9	70.1	70.3	70.4
실업률	%	3.7	3.4	3.2	3.1	3.5	3.6
경상수지 ³⁾		28,850	18,656	50,835	81,148	84,373	105,871
상품수지	백만달러	47,915	29,090	49,406	82,781	88,885	120,290
서비스수지		-14,238	-12,279	-5,214	-6,499	-3,679	-15,708
본원소득수지		490	6,561	12,117	9,056	4,151	5,902
이전소득수지		-5,317	-4,716	-5,474	-4,189	-4,985	-4,613
수출액	억달러	4,664	5,552	5,479	5,596	5,727	5,268
수입액		4,252	5,244	5,196	5,156	5,255	4,365
총저축률	%	35.0	34.6	34.2	34.4	34.5	35.4
민간 비중	%	27.1	26.6	26.6	27.7	27.6	28.4
정부 비중		7.8	8.0	7.6	6.8	6.9	7.0
총자본형성 ⁴⁾	십억원	405,188	419,283	409,640	409,154	430,686	—
최종소비지출	%	64.8	65.5	66.2	66.0	65.5	64.7
민간 비중	%	50.3	51.0	51.4	51.0	50.3	49.5
정부 비중		14.5	14.6	14.8	14.9	15.1	15.2
생산자물가 등락률 ⁵⁾	%	3.8	6.7	0.7	-1.6	-0.5	-4.0
소비자물가 등락률 ⁵⁾	%	3.0	4.0	2.2	1.3	1.3	0.7

주 : 2010년 기준 1)명목 2)실질성장률 3)IMF 국제기준 적용(BPM6) 4)자본재형태별(원계열, 실질) 5)전년대비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10	2011	2012	2013	2014 ^P	2015 ^P
지역내총생산(GRDP) ¹⁾	억원	831,668	918,164	953,079	991,543	1,050,024	—
전국대비 구성비 ¹⁾	%	6.57	6.90	6.92	6.93	7.07	—
GRDP 성장률 ²⁾	%	11.8	6.8	3.6	6.5	5.1	—
1인당 GRDP	천원	40,069	43,552	44,556	45,629	47,597	—
생산구조 ³⁾	—						
농림어업	%	4.9	4.7	4.7	4.5	4.8	—
제조업		54.0	57.5	57.3	54.4	52.5	—
전기가스수도업		3.8	2.9	2.6	3.3	4.5	—
건설업		6.3	6.0	6.4	6.8	6.6	—
서비스업 및 기타		31.0	29.0	29.0	31.0	31.5	—
15세이상인구	천명	1,613	1,643	1,717	1,811	1,855	1,915
경제활동인구	천명	1,003	1,025	1,080	1,170	1,198	1,237
취업자	천명	974	1,001	1,056	1,137	1,158	1,194
농림어업	%	16.8	16.2	15.1	14.6	13.9	12.3
광공업		19	20.4	20.2	21.7	21.6	22.9
건설업		5.6	6.4	6.6	6.7	5.8	6.4
서비스업 및 기타		58.6	57.0	58.1	57.0	58.7	58.3
실업자	천명	29	24	25	33	40	43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610	618	637	641	657	678
경제활동참가율	%	62.2	62.4	62.9	64.6	64.6	64.6
실업률	%	2.9	2.3	2.3	2.8	3.4	3.5
고용률	%	60.4	60.9	61.5	62.8	62.4	62.4
무역수지	백만달러	29,161	26,314	28,591	31,360	32,008	43,955
수출액	백만달러	54,054	59,954	61,752	64,282	65,112	67,123
수입액		24,893	33,640	33,161	32,922	33,104	23,168
소비자물가등락률	%	3.0	4.1	2.4	1.2	0.5	0.2

주 : 2010년 기준. 1) 당해년가격(명목) 2) 2010년 기준년 가격(연쇄) 기준 3) 총부가가치(기초가격) 기준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천 안 시	114,378	129,482	136,363	138,471	162,116	208,764	226,743	234,314	251,504
공 주 시	19,107	19,595	21,019	21,492	23,473	29,355	31,706	28,601	31,562
보 령 시	20,610	21,462	23,002	19,690	22,149	26,135	25,138	24,430	29,495
아 산 시	108,960	115,255	125,426	126,325	161,562	237,185	254,371	251,567	238,483
서 산 시	53,512	62,102	66,045	81,233	76,993	88,197	96,802	99,254	110,490
논 산 시	18,944	19,932	20,783	20,403	22,735	27,184	28,902	28,700	30,112
계룡시 ¹⁾	3,195	2,947	4,368	4,318	4,058	4,892	5,129	5,914	7,328
당 진 시	38,100	39,539	47,874	57,865	60,282	76,360	106,920	113,185	116,299
금 산 군	10,960	11,802	12,652	13,945	14,297	15,959	17,008	18,464	20,413
부 여 군	11,081	12,027	12,814	12,809	14,201	15,730	16,026	16,365	17,673
서 천 군	12,659	14,049	13,653	13,512	13,633	15,495	16,489	16,328	16,513
청 양 군	6,346	6,412	7,155	6,703	6,646	7,185	7,472	7,527	8,418
홍 성 군	14,284	14,248	14,542	15,471	16,855	17,610	18,603	21,752	23,561
예 산 군	13,441	13,766	13,614	15,386	16,081	18,824	19,403	21,612	22,537
태 안 군	13,840	13,876	14,612	11,876	15,161	17,089	16,032	15,456	20,103
연 기 군	15,556	17,117	17,562	20,241	21,095	25,705	31,421	—	—

주: 당해년가격, 2005년 기준 추계 1) 2003년 이전: 계룡출장소, 2) 2010년 이후(2010년 기준 추계)

자료: 충청남도,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경기종합지수

(2010=100.0, %, p)

구 분	동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			
	지수 (2010=100)	전월비	순환변동치 (Trend=100)	전월차	지수 (2010=100)	전월비	순환변동치 (Trend=100)	전월차
2013.11	118.7	0.9	101.0	0.6	112.5	0.2	101.2	-0.1
12	119.1	0.3	101.0	0.0	113.3	0.7	101.5	0.3
2014.01	119.5	0.4	101.1	0.1	113.9	0.5	101.7	0.2
2	119.5	-0.1	100.8	-0.4	113.7	-0.2	101.1	-0.6
3	119.5	0.0	100.5	-0.3	114.1	0.4	101.2	0.1
4	118.9	-0.5	99.7	-0.8	114.9	0.7	101.5	0.3
5	118.9	-0.0	99.4	-0.3	115.3	0.3	101.5	0.0
6	118.7	-0.1	99.0	-0.4	114.9	-0.3	100.8	-0.7
7	119.4	0.6	99.2	0.3	114.7	-0.2	100.3	-0.5
8	120.2	0.7	99.6	0.4	114.6	-0.1	99.9	-0.4
9	120.7	0.4	99.7	0.1	114.4	-0.2	99.4	-0.5
10	121.2	0.4	99.8	0.1	114.1	-0.3	98.8	-0.6
11	121.3	0.1	99.7	-0.1	114.5	0.4	98.8	0.0
12	122.2	0.7	100.2	0.5	116.3	1.6	100.1	1.3
2015.01	121.7	-0.2	99.7	-0.4	117.2	0.8	100.5	0.4
2	121.7	0.1	99.5	-0.2	118.1	0.8	101.0	0.5
3	121.9	0.1	99.3	-0.2	118.8	0.6	101.3	0.3
4	122.6	0.6	99.6	0.3	119.2	0.3	101.3	0.0
5	122.5	0.0	99.3	-0.3	119.3	0.1	101.1	-0.2
6	122.3	-0.1	98.9	-0.4	118.6	-0.6	100.2	-0.9
7	123.2	0.7	99.3	0.4	118.5	-0.1	99.9	-0.3
8	124.1	0.7	99.8	0.5	118.7	0.2	99.7	-0.2
9	125.1	0.8	100.4	0.6	118.5	-0.2	99.2	-0.5
10	125.4	0.3	100.4	0.0	118.6	0.1	99.1	-0.1
11	126.1	0.5	100.7	0.3	119.1	0.4	99.2	0.1
12	126.8	0.6	101.5	0.8	120.1	0.8	99.7	0.5
2016.01	126.1	-0.6	100.9	-0.6	119.9	-0.2	99.2	-0.5
2	125.2	-0.7	100.1	-0.7	119.5	-0.3	98.6	-0.6
3	123.7	-1.3	98.8	-1.3	120.4	0.8	99.0	0.5
4	123.3	-0.3	98.3	-0.5	120.8	0.3	99.0	0.0
5	123.7	0.3	98.2	-0.1	121.7	0.7	99.4	0.4
6	124.1	0.3	98.3	0.0	121.7	0.0	99.1	-0.3
7 ^p	125.4	1.0	99.1	0.8	123.2	1.3	100.1	1.0
8 ^p	126.7	1.1	99.9	0.8	124.9	1.3	101.1	1.0
9 ^p	128.2	1.1	101.8	0.9	125.4	0.5	101.2	0.1
10 ^p	128.9	0.6	101.2	0.4	126.4	0.8	101.7	0.5

자료: 2016년 10월 충청남도 경기종합지수, 충청남도·충남연구원, 2016.12

생산활동(생산, 출하, 재고 지수)

(2010=100, %)

구 분	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			
	원지수	계절 조정	전년 동월비	전월비	원지수	계절 조정	전년 동월비	전월비	원지수	계절 조정	전년 동월비	전월비
2013.10	123.3	117.2	8.9	4.0	125.0	120.1	8.9	3.0	133.1	135	11.9	5.7
11	119.0	116.6	9.6	-0.5	121.2	118.1	9.9	-1.7	135.1	138.9	13.3	2.9
12	119.0	116.5	9.4	-0.1	120.5	116.9	9.3	-1.0	140.3	142.7	9.7	2.7
2014.01	110.6	113.9	3.2	-2.2	113.9	116.6	5.6	-0.3	147.2	141.4	7.5	-0.9
2	102.3	110.4	1.6	-3.1	104.9	111.2	-0.3	-4.6	143.2	142.5	14.3	-0.8
3	115.3	112.6	3.4	2.0	117.9	114.8	2.6	3.2	141.4	141.1	11.0	-1.0
4	113.5	113.7	4.1	1.0	114.9	115.3	4.0	0.4	146.2	146.1	10.0	3.5
5	111.1	111.3	-0.5	-2.1	111.9	113.3	-0.8	-1.7	145.2	144.3	9.1	-1.2
6	113.3	114.2	0.4	2.6	115.0	118.3	0.1	4.4	144.4	143.2	7.6	0.8
7	117.4	115.2	0.5	0.9	117.7	117.4	0.0	-0.8	147.6	143.9	4.1	0.5
8	112.8	116	0.7	0.7	114.8	117.4	-2.4	0	142.5	141.5	11.1	-1.7
9	110.8	114.4	1.5	-1.4	113.1	115.7	-0.8	-1.4	144.7	147.2	15.3	4.0
10	117.0	111.3	-5.0	-2.7	118.8	114.1	-5.0	-1.4	137.6	139.8	3.6	-5.0
11	114.6	113.8	-2.4	2.2	117.9	116.8	-1.1	2.4	134	137	-1.4	-2.0
12	124.8	120.6	3.5	6.0	127.1	121.6	4.0	4.1	134.4	137.6	-3.6	0.4
2015.01	116.2	114.1	0.2	-5.4	117.3	114.6	-1.7	-5.8	145.8	139.8	-1.1	1.6
2	102.2	115.5	4.6	1.2	104.2	115.9	4.2	1.1	141.2	141.4	-0.8	1.1
3	118.8	114.6	1.8	-0.8	120.4	115.7	0.8	-0.2	144.9	145.8	3.3	3.1
4	114.0	114.3	0.5	-0.3	115.4	115.9	0.5	0.2	146.9	146.7	0.4	0.6
5	106.9	108.8	-2.2	-4.8	110.0	113.1	-0.2	-2.4	141.2	139.5	-3.3	-4.9
6	120.0	117.8	3.2	8.3	117.7	117.6	-0.6	4.0	160.5	160.8	12.3	15.3
7	118.9	116.5	1.1	-1.1	120.6	119.9	2.1	2.0	162.1	157.7	9.6	-1.9
8	114.9	119.5	3.0	2.6	118.1	122	3.9	1.8	160.4	158.4	11.9	0.4
9	115.6	118.4	3.5	-0.9	120.3	122.3	5.7	0.2	154.7	157	6.7	-0.9
10	117.4	112.6	1.2	-4.9	122.7	118.4	3.8	-3.2	149	151.6	8.4	-3.4
11	116.4	115.7	1.7	2.8	119.9	118.8	1.7	0.3	148.5	152.1	11.0	0.3
12	120.8	116.6	-3.3	0.8	124.8	119.7	-1.6	0.8	143.6	147.0	6.8	-3.4
2016.01	112.7	112.4	-1.5	-3.6	114.2	113.4	-1.0	-5.3	147.9	141.1	0.9	-4.0
2	99.7	110.8	-4.1	-1.4	102.8	112.3	-3.1	-1.0	143.8	145.3	2.8	3.0
3	119.0	114.8	-0.2	3.6	122.1	117.3	1.4	4.5	137.5	138.4	-5.1	-4.8
4	111.3	113.1	-1.0	-1.5	116.2	118.4	2.2	0.9	128.4	127.3	-13.2	-8.0
5	117.4	117.9	8.4	4.2	120.0	121.7	7.6	2.8	134.7	133.9	-4.0	5.2
6	115.4	113.4	-3.7	-3.8	119.7	119.7	1.8	-1.6	133.8	133.8	-16.8	-0.1
7	119.9	119.0	2.1	4.9	123.8	125.0	4.3	4.4	135.0	130.2	-17.4	-2.7
8 ^P	117.8	119.1	-0.3	0.1	122.2	122.4	0.3	-2.1	136.7	136.6	-13.8	4.9
9 ^P	117.1	121.0	2.2	1.6	121.9	124.6	1.9	1.8	137.9	139.9	-10.9	2.4
10 ^P	128.0	121.6	8.0	0.5	131.5	126.3	6.7	1.4	140.5	143.2	-5.5	2.4

자료 : 통계청, 광업 · 제조업 동향 조사

기업경기전망(BSI)

(기준지수=100)

구 분	제조업						비제조업					
	업황		매출		자금사정		업황		매출		자금사정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2013.12	84	86	95	103	94	96	79	81	93	86	82	88
2014.01	79	83	91	95	93	90	74	78	85	89	79	85
2	77	84	87	94	87	94	69	73	77	82	75	80
3	84	82	94	90	91	93	74	74	79	75	78	83
4	82	89	95	95	88	96	75	75	81	81	83	81
5	85	87	92	96	94	91	69	75	72	84	85	82
6	82	87	92	93	87	89	67	72	68	74	78	87
7	77	86	84	91	93	85	68	67	72	71	76	81
8	73	83	77	84	94	92	64	75	65	75	68	77
9	76	79	82	81	94	93	62	66	65	67	78	76
10	74	79	81	86	94	97	59	68	65	65	82	79
11	74	77	85	86	95	90	68	67	69	68	79	83
12	72	78	80	90	95	92	66	69	68	69	80	84
2015.01	74	76	85	85	97	91	66	67	71	68	80	81
2	75	78	86	87	98	93	65	66	72	70	78	85
3	74	80	84	89	94	93	69	70	82	76	80	85
4	79	77	92	85	95	88	70	77	80	80	86	83
5	77	80	88	91	92	92	77	76	83	78	82	93
6	68	84	78	88	89	87	65	77	72	79	77	90
7	72	73	82	81	91	83	69	63	72	72	79	88
8	75	77	82	85	94	90	72	70	77	74	85	77
9	71	79	82	85	92	88	70	72	70	71	78	84
10	72	75	84	82	92	86	75	72	74	72	82	72
11	73	72	86	79	97	86	77	74	79	76	86	81
12	73	72	89	77	98	86	76	73	75	76	85	79
2016.01	71	70	85	74	98	86	76	71	74	72	82	78
2	69	68	82	73	95	85	72	68	73	70	80	78
3	71	65	84	70	97	83	74	65	76	67	81	77
4	75	69	88	74	98	86	76	70	77	69	82	79
5	71	74	85	79	93	89	74	75	76	73	80	81
6	69	72	85	78	90	88	71	71	73	72	79	81
7	71	68	85	75	89	86	69	70	74	73	81	81
8	73	72	86	78	91	86	69	66	78	71	82	82
9	72	74	86	77	92	87	68	66	72	74	81	83
10	74	76	86	78	93	86	70	67	98	74	83	82
11	73	76	85	77	92	87	67	66	66	73	79	80
12	—	74	—	75	—	87	—	65	—	70	—	81

자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조사

대형소매점

(단위 : 백만원, %)

구 분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불변지수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2011	1,450,812	32.5	—	126.9	26.9	—
2012	1,557,630	7.4	—	131.7	3.8	—
2013	1,635,307	5.0	—	135.7	3.0	—
2014	1,716,486	5.0	—	139.7	2.9	—
2015	1,814,520	5.7	—	144.5	3.4	—
2014.02	121,737	-6.8	-19.7	119.3	-8.4	-20.0
3	142,307	3.6	16.9	138.9	0.8	16.4
4	122,744	0.4	-13.7	120.1	-2.4	-13.5
5	141,729	6.9	15.5	138.4	4.3	15.2
6	138,559	5.3	-2.2	135.6	2.4	-2.0
7	134,716	7.2	-2.8	132.0	4.3	-2.7
8	148,045	18.6	9.9	144.7	16.3	9.6
9	152,348	-1.4	2.9	147.7	-2.9	2.1
10	147,037	6.5	-3.5	143.5	4.7	-2.8
11	153,584	1.5	4.5	149.6	0.7	4.3
12	162,114	3.2	5.6	157.4	1.8	5.2
2015.01	133,301	-12.1	-17.8	127.3	-14.6	-19.1
2	157,646	29.5	18.3	150.3	26.0	18.1
3	147,908	3.9	-6.2	141.2	1.7	-6.1
4	141,488	15.3	-4.3	135.8	13.1	-4.0
5	163,009	15.0	15.2	155.3	12.2	14.4
6	131,714	-4.9	-19.2	126.1	-7.0	-18.8
7	143,718	6.7	9.1	137.8	4.4	9.3
8	149,795	1.2	4.2	143.0	-1.2	3.8
9	167,510	10.0	11.8	159.5	8.0	11.5
10	157,609	7.2	-5.9	151.1	5.3	-5.3
11	159,152	3.6	1.0	152.4	1.9	0.9
12	161,670	-0.3	1.6	154.2	-2.0	1.2
2016.01	154,700	16.1	-4.3	147.3	-15.7	-4.5
2	151,963	-3.6	-1.8	142.7	-5.1	-3.1
3	145,011	-2.0	-4.6	136.6	-3.4	-4.3
4	144,272	2.0	-0.5	135.9	0.1	-0.5
5	154,862	-5.0	7.3	146.3	-5.8	7.7
6	141,674	7.6	-8.5	134.5	6.7	-8.1
7	157,491	9.6	11.2	150.4	9.1	11.8
8 ^P	149,768	0.0	-4.9	142.0	-0.7	-5.6
9 ^P	169,301	1.1	13.0	156.5	-1.9	10.2
10 ^P	165,545	5.0	-2.2	154.8	2.4	-1.1

자료 : 통계청, 소매판매 · 도소매판매동향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대)

구 분	총 등록대수			차종별 등록대수			
	등록대수	전년동월차	전월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화물
2013.10	884,235	31,607	3,486	640,088	47,005	194,051	3,091
11	886,545	31,223	2,310	642,066	46,935	194,427	3,117
12	887,083	31,332	538	642,682	46,815	194,441	3,145
2014.01	891,707	32,386	4,624	646,621	46,855	195,075	3,156
2	894,883	33,106	3,176	649,447	46,785	195,474	3,177
3	898,671	33,960	3,788	652,673	46,755	196,048	3,195
4	902,024	33,846	3,353	655,703	46,663	196,457	3,201
5	905,364	34,623	3,340	658,608	46,574	196,980	3,202
6	908,201	34,529	2,837	661,040	46,490	197,446	3,225
7	911,243	34,842	3,042	663,412	46,565	198,015	3,251
8	913,675	35,042	2,432	665,648	46,454	198,305	3,268
9	916,703	35,954	3,028	668,265	46,406	198,734	3,298
10	919,699	35,464	2,996	670,987	46,374	199,020	3,318
11	922,856	36,311	3,157	673,722	46,271	199,524	3,339
12	924,651	37,568	1,795	675,335	46,110	199,842	3,364
2015.01	929,725	38,018	5,074	679,795	46,079	200,462	3,389
2	932,888	38,005	3,163	682,399	46,185	200,896	3,408
3	936,759	38,088	3,871	685,576	46,209	201,530	3,444
4	940,571	38,547	3,912	688,927	46,144	202,031	3,469
5	943,915	38,551	3,344	691,868	46,099	202,459	2,310
6	947,666	39,465	3,751	694,897	46,083	203,174	3,512
7	950,975	39,732	3,309	697,774	45,997	203,670	3,534
8	954,341	40,666	3,366	700,741	45,923	222,349	3,564
9	958,507	41,804	4,166	704,436	45,825	204,665	3,581
10	962,275	42,576	3,768	707,631	45,755	205,279	3,610
11	966,367	43,511	4,092	711,415	45,694	205,625	3,633
12	969,162	44,511	2,795	714,064	45,562	205,881	3,655
2016.01	973,911	44,186	4,749	718,176	45,542	206,496	3,697
2	977,741	44,853	3,830	721,594	45,486	206,925	3,736
3	982,333	45,574	4,592	725,441	45,499	207,628	3,765
4	986,724	46,153	4,391	729,226	45,420	208,292	3,786
5	991,299	47,384	4,575	733,280	45,318	208,881	3,820
6	995,893	48,227	4,594	737,458	45,207	209,388	3,840
7	999,439	48,464	3,546	740,617	45,114	209,834	3,874
8	1,002,315	47,974	2,876	743,319	45,023	210,074	3,899
9	1,005,162	46,655	2,847	745,930	44,982	210,308	3,942
10	1,008,347	46,072	3,185	748,849	44,879	210,641	3,978
11	1,012,283	45,916	3,936	752,435	44,874	210,977	3,997

자료: 충청남도, 시군별자동차등록현황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지역별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천안	전년 동월 (기)비	보령	전년 동월 (기)비	서산	전년 동월 (기)비
2012	106.6	2.4	106.7	2.0	113.2	6.7	106.6	2.5	105.9	1.6	106.8	2.3
2013	107.8	1.2	107.3	0.6	109.3	-3.5	107.9	1.2	107.1	1.2	108.2	1.3
2014	108.3	0.5	107.1	-0.2	97.0	-11.2	108.4	0.5	108.0	0.8	108.3	0.1
2015	108.6	0.2	106.1	-1.0	102.2	5.3	108.8	0.4	107.8	-0.1	108.1	-0.2
2014.02	108.7	0.8	108.1	0.4	102.6	-14.6	108.7	0.8	108.3	1.2	108.8	0.7
3	108.3	0.4	107.2	-0.4	100.2	-15.0	108.3	0.4	107.8	0.7	108.3	0.3
4	108.3	0.6	107.2	-0.2	98.9	-14.8	108.3	0.6	107.9	0.9	108.3	0.3
5	108.5	0.8	107.3	0.2	98.7	-12.1	108.6	0.8	108.3	1.3	108.4	0.3
6	108.4	0.8	107.1	0.3	93.8	-10.4	108.4	0.8	108.3	1.3	108.2	0.3
7	108.4	0.7	107.1	0.2	92.9	-11.8	108.4	0.7	108.1	0.9	108.4	0.4
8	108.5	0.3	107.0	-0.7	96.6	-14.2	108.4	0.3	108.3	0.7	108.6	0.0
9	108.4	0.0	107.1	-0.9	98.3	-11.0	108.4	0.0	108.2	0.5	108.5	-0.2
10	108.3	0.3	106.9	-0.3	94.7	-6.5	108.4	0.5	107.8	0.5	107.9	-0.4
11	107.9	0.0	106.4	-0.6	92.5	-3.8	108.1	0.2	107.5	0.3	107.6	-0.7
12	107.9	0.0	106.1	-0.9	95.0	-2.4	108.1	0.1	107.2	0.0	107.5	-0.8
2015.01	108.5	-0.1	106.2	1.6	99.2	-2.1	108.6	0.0	107.9	0.0	108.0	-0.8
2	108.2	-0.5	105.7	-2.3	101.4	-1.1	108.4	-0.3	107.4	-0.8	107.7	-1.1
3	108.2	-0.1	105.7	-1.4	100.1	0.0	108.4	0.1	107.4	-0.4	107.7	-0.5
4	108.2	-0.1	105.7	-1.4	100.1	1.3	108.3	0.0	107.8	-0.1	107.8	-0.4
5	108.7	0.2	106.3	-0.9	103.4	5.7	108.9	0.4	108.1	-0.2	108.2	-0.2
6	108.9	0.5	106.7	-0.4	104.9	11.8	109.2	0.7	108.1	-0.2	108.2	0.0
7	108.9	0.4	106.4	-0.6	103.4	11.3	109.2	0.7	108.0	-0.1	108.2	-0.2
8	109.0	0.5	106.5	-0.5	105.5	9.2	109.3	0.7	108.0	-0.3	108.4	-0.1
9	108.7	0.2	106.1	-0.9	104.6	6.4	108.9	0.4	107.8	-0.4	108.2	-0.2
10	108.6	0.3	105.9	-0.9	101.3	7.0	108.8	0.4	107.7	-0.1	108.1	0.1
11	108.4	0.5	105.6	-0.7	98.3	6.3	108.6	0.5	107.7	0.2	107.9	0.3
12	108.7	0.8	105.9	-0.3	104.0	9.4	108.9	0.8	108.1	0.8	108.2	0.7
2016.01	108.7	0.2	105.5	-0.6	106.4	7.3	108.8	0.2	108.2	0.3	108.3	0.3
2	109.1	0.8	106.1	0.4	116.4	14.8	109.3	0.8	108.7	1.2	108.5	0.7
3	109.0	0.7	106.0	0.3	114.2	14.1	109.2	0.7	108.4	0.9	108.4	0.6
4	109.1	0.9	106.1	0.4	115.5	15.3	109.4	1.0	108.5	0.7	108.3	0.5
5	109.3	0.5	106.2	-0.2	113.5	9.8	109.6	0.6	108.5	0.4	108.5	0.2
6	109.2	0.2	106.2	-0.5	105.4	0.6	109.4	0.2	108.5	0.4	108.5	0.3
7	109.4	0.5	106.2	-0.2	106.4	3.0	109.6	0.4	108.8	0.8	108.7	0.5
8	109.2	0.1	105.6	-0.8	112.3	6.5	109.3	0.0	108.5	0.5	108.9	0.5
9	109.9	1.1	106.8	0.6	127.6	22.0	110.1	1.1	109.1	1.2	109.4	1.1
10	109.8	1.1	106.8	0.8	115.5	14.1	109.9	1.0	109.1	1.3	109.5	1.1
11	109.7	1.2	106.7	1.1	111.5	13.4	110.0	1.2	108.9	1.1	109.1	1.1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수입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2012	61,752	3.0	—	33,161	-1.4	—	28,591
2013	64,282	4.1	—	32,922	-0.7	—	31,360
2014	65,112	1.3	—	33,104	0.6	—	32,008
2015	67,123	3.0	—	23,168	-30.0	—	43,955
2014.02	4,920	-2.2	-4.7	2,827	2.1	1.9	2,093
3	5,602	3.2	13.9	2,485	-17.9	-12.1	3,117
4	5,222	6.6	-6.8	2,606	-6.2	4.9	2,616
5	5,341	2.2	2.3	2,926	22.9	12.3	2,415
6	5,518	10.5	3.3	2,644	-8.0	-9.6	2,874
7	5,360	2.5	-2.9	2,980	9.6	12.7	2,380
8	5,417	-1.5	1.1	3,057	20.2	2.6	2,360
9	5,731	1.7	5.8	2,908	9.5	-4.9	2,823
10	5,885	-4.2	2.7	2,801	0.6	-3.7	3,084
11	5,388	-2.0	-8.4	2,402	-11.9	-14.2	2,986
12	5,563	1.8	3.2	2,695	-5.5	12.2	2,868
2015.01	4,913	-4.9	-11.7	1,944	-29.9	-27.9	2,969
2	4,615	-6.2	-6.1	1,709	-39.6	-12.1	2,906
3	5,710	1.9	23.7	1,953	-21.4	14.3	3,757
4	5,647	8.1	-1.1	2,052	-21.2	5.1	3,595
5	5,295	-0.9	-6.2	1,731	-40.9	-15.6	3,564
6	5,621	1.9	6.2	2,101	-20.5	21.4	3,520
7	5,664	5.7	0.8	2,312	-22.4	10.0	3,352
8	5,783	6.8	2.1	2,022	-33.9	-12.5	3,761
9	6,482	13.1	12.1	1,826	-37.2	-9.7	4,656
10	6,147	4.5	-5.2	1,878	-33	2.8	4,269
11	5,827	8.1	-5.2	1,768	-26.4	-5.9	4,059
12	5,419	-2.6	-7.0	1,872	-30.5	5.9	3,547
2016.01	4,478	-8.9	-17.4	1,591	-18.2	-15.0	2,887
2	4,455	-3.5	-0.5	1,387	-18.8	-12.8	3,068
3	5,296	-7.3	18.9	1,584	-18.9	14.2	3,712
4	4,956	-12.2	-6.4	1,616	-21.3	2.0	3,340
5	5,350	1.0	7.9	1,743	0.7	7.9	3,607
6	5,602	-0.3	4.7	1,860	-11.5	6.7	3,742
7	5,586	-1.4	-0.3	1,949	-15.7	4.8	3,637
8	5,724	-1.0	2.5	1,954	-3.4	0.3	3,770
9	5,989	-7.6	4.6	2,246	23.0	14.9	3,743
10	6,114	-0.6	2.1	1,857	-1.1	-17.3	4,257
11	6,335	8.7	3.6	2,298	30.0	23.7	4,03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전자체수출입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고용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천명, %, %p)

구 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합계	전년 동월(기)차	남자	여자
2012	1,080	5.4	641	439	62.9	0.5	75.0	50.9
2013	1,170	8.3	702	468	64.6	1.7	77.3	51.8
2014	1,198	2.4	717	481	64.6	0.0	76.8	52.2
2015	1,237	3.3	741	497	64.6	0.0	76.8	52.3
2014.04	1,215	2.5	724	492	65.8	-0.3	77.9	53.6
5	1,222	0.6	723	499	66.1	-1.2	77.7	54.3
6	1,234	0.9	727	507	66.6	-0.8	78.0	55.1
7	1,240	1.0	736	504	66.8	-0.9	78.8	54.7
8	1,222	1.0	724	498	65.8	-0.5	77.4	53.9
9	1,233	1.4	731	502	66.2	-0.3	78.1	54.2
10	1,228	1.6	727	501	65.8	-0.1	77.5	54.1
11	1,218	1.2	727	491	65.2	-0.4	77.3	52.9
12	1,131	-0.5	693	438	60.4	-1.4	73.6	47.1
2015.01	1,125	0.9	699	426	59.9	-0.7	74.0	45.7
2	1,164	2.7	709	455	61.7	0.2	74.7	48.6
3	1,205	1.9	727	478	63.6	-0.4	76.3	50.8
4	1,250	2.9	749	502	65.8	0.0	78.3	53.2
5	1,281	4.9	756	525	67.2	1.1	78.8	55.5
6	1,279	3.7	760	519	66.8	0.2	78.8	54.7
7	1,271	2.5	751	520	66.2	-0.6	77.6	54.6
8	1,262	3.3	748	514	65.6	-0.2	77.1	53.8
9	1,271	3.1	757	514	65.8	-0.4	77.8	53.7
10	1,279	4.1	754	525	66.0	0.2	77.2	54.7
11	1,257	3.2	747	510	64.7	-0.5	76.3	52.9
12	1,204	6.5	731	474	61.8	1.4	74.3	49.0
2016.01	1,177	4.6	720	457	60.2	0.3	73	47.2
2	1,180	1.3	720	460	60.2	-1.5	72.8	47.4
3	1,227	1.9	748	479	62.4	-1.2	75.4	49.2
4	1,268	1.4	763	505	64.3	-1.5	76.7	51.7
5	1,292	0.8	778	515	65.3	-1.9	77.9	52.6
6	1,304	1.9	785	519	65.7	-1.1	78.4	52.8
7	1,314	3.4	794	521	66.1	-0.1	79.1	52.9
8	1,306	3.4	789	517	65.6	0.0	78.4	52.4
9	1,312	3.2	792	520	65.8	0.0	78.5	52.7
10	1,306	2.1	790	516	65.3	-0.7	78.2	52.1
11	1,297	3.2	787	510	64.7	0.0	77.8	5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4주기준), 경제활동인구총괄

연령별 취업자

(단위: 천명, %)

구 분	전체 취업자		청장년층					고령층		
	합계	전년 동월(기)비	15-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세 이상
2012	1,056	5.5	11	151	219	264	125	96	61	128
2013	1,137	7.7	11	167	234	276	134	106	67	143
2014	1,158	1.8	11	173	237	275	139	112	69	142
2015	1,194	3.2	10	186	247	281	142	119	74	136
2014.04	1,176	1.6	9	172	234	279	137	113	70	162
5	1,179	-0.1	11	169	237	274	138	116	71	164
6	1,194	0.7	11	170	237	278	140	117	74	165
7	1,199	0.4	14	179	238	278	140	117	73	162
8	1,177	-0.2	13	167	239	273	139	113	73	160
9	1,196	1.0	12	177	241	277	140	114	72	164
10	1,192	1.3	8	179	240	275	141	114	73	162
11	1,188	1.0	10	179	239	275	143	115	69	159
12	1,098	-0.7	12	175	234	271	141	108	64	94
2015.01	1,089	1.6	13	176	234	268	139	110	62	89
2	1,115	3.6	11	183	238	269	140	110	63	101
3	1,159	1.4	11	180	242	275	140	115	67	129
4	1,200	2.0	12	183	249	279	143	116	72	146
5	1,228	4.1	11	185	250	281	143	122	77	159
6	1,234	3.4	8	187	250	286	143	121	81	158
7	1,231	2.7	8	191	249	287	142	121	79	155
8	1,216	3.3	8	185	246	287	142	119	79	150
9	1,233	3.1	6	191	252	291	140	125	80	150
10	1,239	3.9	8	192	251	289	145	127	80	147
11	1,219	2.6	10	190	251	284	146	123	78	137
12	1,170	6.5	12	186	252	280	142	122	72	105
2016.01	1,129	3.6	13	180	246	279	139	115	68	90
2	1,130	1.3	13	166	249	281	141	115	69	96
3	1,177	1.5	9	172	253	282	142	117	75	128
4	1,225	2.1	12	170	261	286	147	124	79	146
5	1,251	1.9	11	181	260	292	147	131	79	151
6	1,259	2.0	10	181	257	295	146	132	81	157
7	1,264	2.6	13	183	259	296	144	133	82	154
8	1,263	3.9	14	187	258	294	147	129	86	147
9	1,279	3.7	12	184	263	299	147	132	88	154
10	1,276	3.1	13	180	268	298	148	129	88	152
11	1,274	4.5	13	178	272	297	148	132	87	14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4주기준), 취업자, 행정구역(시도)/연령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구 분	합계	전년 동월(기)비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업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 통신금융
2012	1,056	5.5	159	213	69	199	322	93
2013	1,137	7.7	166	247	76	199	353	96
2014	1,158	1.8	161	250	67	197	382	101
2015	1,194	3.2	147	274	77	201	392	103
2014.04	1,176	1.6	179	246	62	195	388	105
5	1,179	-0.1	190	247	61	189	391	102
6	1,194	0.7	197	257	61	192	385	103
7	1,199	0.4	191	252	63	200	389	104
8	1,177	-0.2	188	243	64	194	387	102
9	1,196	1.0	192	243	69	194	393	101
10	1,192	1.3	189	245	70	200	387	101
11	1,188	1.0	170	249	75	206	389	99
12	1,098	-0.7	93	249	78	203	377	99
2015.01	1,089	1.6	87	246	79	208	371	98
2	1,115	3.6	107	248	77	212	372	99
3	1,159	1.4	136	256	77	206	384	100
4	1,200	2.0	161	258	82	202	397	100
5	1,228	4.1	179	267	78	203	400	100
6	1,234	3.4	180	278	81	197	398	102
7	1,231	2.7	177	285	78	202	390	101
8	1,216	3.3	169	286	70	195	393	104
9	1,233	3.1	166	283	75	201	402	107
10	1,239	3.9	167	290	76	194	405	107
11	1,219	2.6	142	296	76	199	401	106
12	1,170	6.5	89	299	81	200	395	107
2016.01	1,129	3.6	66	299	75	198	385	106
2	1,130	1.3	82	290	70	194	387	108
3	1,177	1.5	119	284	75	196	393	109
4	1,225	2.1	154	272	82	202	407	107
5	1,251	1.9	154	282	85	196	426	108
6	1,259	2.0	160	288	78	196	427	110
7	1,264	2.6	153	285	79	212	426	110
8	1,263	3.9	143	281	77	219	432	112
9	1,279	3.7	151	291	76	223	428	111
10	1,276	3.1	148	282	75	225	437	109
11	1,274	4.5	139	292	78	222	432	1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4주기준), 취업자, 행정구역(시도)/산업별 취업자

실업률, 실업자

(단위 : 천명, %, %p)

구 분	실업률				실업자			
	합계	전년 동월(기)차	남자	여자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2012	2.3	0.0	2.2	2.4	25	4.2	14	10
2013	2.8	0.5	3.0	2.6	33	33.3	21	12
2014	3.4	0.6	3.2	3.6	40	22.6	23	18
2015	3.5	0.1	3.3	3.7	43	7.0	25	18
2014.04	3.2	0.7	3.6	2.8	40	34.4	26	14
5	3.5	0.6	3.1	4.1	43	21.4	23	20
6	3.2	0.2	3.0	3.6	40	9.0	22	18
7	3.3	0.5	3.0	3.7	41	20.1	22	19
8	3.7	1.2	3.3	4.3	45	46.8	24	21
9	3.0	0.4	2.7	3.4	37	17.9	20	17
10	3.0	0.4	2.6	3.4	36	15.6	19	17
11	2.5	0.1	2.4	2.7	30	6.7	17	13
12	2.9	0.2	2.7	3.2	33	7.3	18	14
2015.01	3.2	-0.6	2.9	3.6	36	-14.9	21	16
2	4.2	-0.9	3.2	5.8	49	-15.2	23	26
3	3.8	0.6	3.8	3.7	45	18.6	28	18
4	4.0	0.8	4.1	4.0	51	27.8	31	20
5	4.2	0.7	4.5	3.8	54	24.8	34	20
6	3.5	0.3	3.9	2.9	45	12.8	30	15
7	3.1	-0.2	3.1	3.2	40	-2.7	23	17
8	3.7	0.0	3.6	3.9	47	3.3	27	20
9	3.0	0.0	2.9	3.0	38	2.4	22	16
10	3.2	0.2	2.7	3.8	40	11.0	20	20
11	3.0	0.5	2.9	3.1	38	24.0	22	16
12	2.8	-0.1	2.5	3.3	34	4.6	18	16
2016.01	4.1	0.9	3.3	5.2	48	32.8	24	24
2	4.2	0.0	3.8	4.8	50	1.6	28	22
3	4.1	0.3	4.0	4.1	50	10.2	30	20
4	3.4	-0.6	3.3	3.5	43	-15.6	25	18
5	3.2	-1.0	3.0	3.5	41	-23.8	23	18
6	3.4	-0.1	3.3	3.7	45	-0.4	26	19
7	3.9	0.8	4.1	3.6	51	28.0	32	19
8	3.3	-0.4	3.3	3.3	43	-7.9	26	17
9	2.5	-0.5	2.7	2.3	33	-12.7	21	12
10	2.3	-0.9	2.5	1.9	30	-26.6	20	10
11	1.8	-1.2	1.5	2.2	23	-37.9	12	11

자료 : 행정구역(시도)/성별 실업률, 행정구역(시도)/성별 실업자, 통계청.

여수신

(단위: 억원)

구 분	수신			여신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2013.08	196,348	302,543	498,891	257,433	159,174	416,607
9	195,204	304,735	499,939	257,916	159,768	417,684
10	196,636	308,929	505,565	261,607	159,850	421,457
11	196,964	309,754	506,718	263,302	160,698	424,000
12	194,530	312,254	506,784	264,454	162,765	427,219
10	196,998	314,714	511,712	265,691	162,809	428,500
11	200,396	313,335	513,731	268,637	162,974	431,611
12	194,530	312,254	506,784	264,454	162,765	427,219
2014.02	200,396	313,335	513,731	268,637	162,974	431,611
3	201,752	313,681	515,433	270,263	163,686	433,949
4	201,301	314,847	516,148	272,835	164,935	437,770
5	204,198	315,910	520,108	275,112	166,006	441,118
6	206,769	317,040	523,809	277,069	167,806	444,875
7	207,549	316,097	523,646	278,788	170,035	448,823
8	210,089	316,697	526,786	281,410	171,148	452,558
9	208,572	318,357	526,929	283,591	172,082	455,673
10	207,024	323,074	530,098	289,714	173,017	462,731
11	209,259	325,569	534,828	293,502	173,597	467,099
12	205,907	327,498	533,405	294,511	174,903	469,414
2015.01	208,641	329,922	538,563	294,262	174,839	469,101
2	216,850	331,185	548,035	296,890	175,081	471,971
3	217,702	331,027	548,729	297,995	175,494	473,489
4	223,344	332,802	556,146	301,839	176,436	478,275
5	226,364	335,511	561,875	304,282	177,125	481,407
6	228,635	339,650	568,285	302,346	178,900	481,246
7	229,994	340,348	570,342	303,312	180,243	483,555
8	237,142	341,108	578,250	307,316	181,883	489,199
9	239,179	345,845	585,024	310,712	183,269	493,981
10	237,177	349,510	586,687	316,698	184,641	501,339
11	236,933	350,705	587,638	321,259	186,419	507,678
12	233,004	352,522	585,526	322,550	189,196	511,746
2016.01	231,150	356,250	587,400	322,353	189,960	512,313
2	236,133	355,174	591,307	322,556	191,087	513,643
3	234,156	355,976	590,132	323,837	190,738	514,575
4	233,472	359,037	592,509	325,304	194,170	519,474
5	239,816	360,157	599,973	327,580	196,766	524,346
6	239,814	364,074	603,888	328,677	199,591	528,268
7	239,197	365,852	605,049	332,346	202,015	534,361
8	243,157	366,356	609,513	333,493	205,299	538,792
9	244,522	368,967	613,489	333,942	207,573	541,515
10	248,421	372,361	620,782	337,561	210,494	548,055

자료 :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대전세종충남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부도율

(단위 : 전자결제조정전 %, %p, 억원, 개)

구 분	지역별어음부도율						부도 금액	부도 업체수	신규 법인수
	충남	천안	홍성	논산	공주	서산			
2013.12	0.08	0.14	0.08	0.00	0.00	0.04	8.7	0	215
2014.01	0.03	0.07	0.00	0.00	0.00	0.00	2.4	2	219
2	1.39	0.07	0.00	0.00	0.00	0.00	152.6	1	217
3	0.09	0.10	0.00	0.00	0.00	0.00	10.2	0	235
4	0.19	0.20	0.01	0.14	0.00	0.00	21.4	1	212
5	3.43	0.01	41.34	0.00	0.00	0.00	331.0	1	201
6	4.99	4.14	39.77	0.00	0.00	0.00	563.7	0	204
7	0.04	0.01	0.14	0.00	0.00	0.00	3.5	2	269
8	0.08	0.09	0.02	0.00	0.00	0.03	7.1	0	208
9	0.65	1.66	0.09	0.79	0.00	0.00	69.5	2	214
10	0.29	0.60	0.00	1.24	0.00	0.00	29.7	0	227
11	0.23	0.55	0.00	0.66	0.00	0.00	22.8	0	206
12	0.51	0.37	0.00	0.44	0.00	0.00	58.1	0	250
2015.01	0.11	0.13	0.26	0.15	0.00	0.00	11.8	3	288
2	0.39	0.36	0.08	0.00	0.00	0.01	38.0	3	204
3	0.47	0.34	0.08	0.00	0.00	0.00	59.5	1	269
4	0.46	0.55	0.02	0.35	0.47	0.00	49.0	4	265
5	0.62	1.28	0.00	0.00	0.33	0.00	53.0	0	219
6	0.51	0.35	0.00	0.09	0.68	0.00	52.1	1	248
7	0.81	2.14	0.00	0.28	0.27	0.00	86.6	4	305
8	0.21	0.52	0.00	0.32	0.17	0.00	23.4	0	224
9	0.12	0.18	0.00	0.23	0.00	0.00	11.7	0	224
10	0.12	0.31	0.00	0.00	0.00	0.00	11.8	2	268
11	0.47	1.04	0.00	1.78	0.00	0.00	50.6	0	298
12	0.16	0.02	0.00	3.35	0.00	0.00	17.2	0	265
2016.01	0.12	0.03	0.00	0.18	0.00	0.29	10.4	3	258
2	0.18	0.00	0.00	1.91	0.00	0.21	18.6	0	246
3	0.20	0.13	0.00	0.51	0.00	0.20	21.6	0	301
4	0.05	0.03	0.00	0.00	0.00	0.19	4.8	0	264
5	0.51	1.30	0.00	0.00	0.00	0.22	55.6	1	245
6	0.32	0.85	0.10	0.00	0.00	0.15	28.0	3	249
7	0.18	0.19	0.00	0.00	0.00	0.00	17.2	1	254
8	0.56	0.72	0.76	0.00	0.00	0.00	53.7	1	283
9	0.20	0.10	0.00	0.00	0.00	0.20	16.8	0	214
10	0.34	0.66	0.00	0.00	0.00	0.10	29.80	3	282

자료 :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지역경제통계(2016.11월) / 중소기업청, 지역별 신설법인 현황 보도자료

주 : 신설법인수는 2013년 6월까지 세종시 포함 수치임.

토지거래, 건축, 미분양주택

(단위: 천㎡, ㎡, %, 호수)

구 분	건축허가(㎡)		건축착공(㎡)		토지거래(천㎡)		미분양주택	
	면적	전년동 월(기)비	면적	전년동 월(기)비	면적	전년동 월(기)비	호수	전년동 월(기)비
2012	9,794,659	-1.9	7,979,321	-11.5	167,889	-13.0	5,596	-60.6
2013	8,674,931	-12.9	7,896,601	-1.0	172,585	2.7	2,657	-110.6
2014	9,026,863	3.9	7,981,867	1.1	173,751	2.4	2,193	-21.2
2015	10,502,478	14.1	10,324,755	22.7	182,777	3.3	-	-
2014.02	475,423	-20.3	380,747	-26.3	15,990	29.7	2,741	6.9
3	803,818	3.0	923,800	53.8	16,739	9.8	2,260	-16.2
4	878,914	14.6	666,087	4.6	16,742	-5.9	1,878	-26.5
5	723,478	-17.2	604,244	6.9	13,785	-11.8	1,587	-32.5
6	1,178,725	48.6	745,028	58.0	12,916	2.9	1,353	-54.3
7	608,031	-0.1	599,714	25.6	15,077	13.7	1,816	-29.2
8	1,430,976	48.0	419,954	-65.8	12,705	-1.7	2,095	-9.7
9	556,713	-33.8	1,211,671	39.8	12,371	24.4	1,525	-35.0
10	720,529	-5.2	754,324	-47.1	13,491	-4.0	2,676	33.3
11	609,420	25.4	996,314	172.6	15,100	29.1	2,338	-28.4
12	701,745	-5.0	420,331	25.1	18,614	-18.3	2,838	-20.4
2015.01	844,479	149.0	483,721	86.3	13,951	5.5	2,199	-3.1.4
2	787,504	65.6	435,742	14.4	13,417	-16.1	2,318	-15.4
3	548,550	-31.8	847,633	-8.2	21,558	28.8	2,031	-10.1
4	1,261,990	43.6	1,012,593	52.2	16,350	-2.3	2,535	35.0
5	1,019,805	41.0	1,163,271	92.5	14,193	3.0	2,966	86.9
6	743,174	-36.9	1,078,294	44.7	14,433	11.7	3,475	156.8
7	752,211	23.7	679,810	13.4	16,459	9.2	3,345	84.2
8	908,095	-36.5	967,543	130.4	13,132	3.4	3,636	73.6
9	654,550	17.6	840,191	-30.7	12,590	1.8	5,537	263.1
10	1,375,932	91.0	748,404	-0.8	12,473	-7.5	5,110	91.0
11	808,546	32.7	1,393,289	39.8	15,947	5.6	6,618	183.1
12	797,642	13.7	728,780	73.4	18,274	-1.8	9,065	219.4
2016.01	639,770	-24.2	1,031,682	113.3	12,134	-13.0	8,530	287.9
2	528,282	-32.9	407,734	-6.4	13,323	-0.7	8,249	255.9
3	863,476	57.4	594,301	-29.9	17,294	-19.8	7,823	285.2
4	1,014,223	-19.6	631,697	-37.7	15,430	-5.6	7,452	194.0
5	1,010,643	-0.9	789,292	-32.1	13,563	-4.4	7,869	165.3
6	895,101	20.4	805,957	-25.3	15,284	5.9	8,017	130.7
7	603,422	-19.8	559,575	-17.7	14,958	-9.1	8,644	158.4
8	575,330	-36.6	710,787	-26.5	14,389	9.6	9,232	153.9
9	618,197	-5.6	368,023	-56.2	12,854	2.1	9,585	73.1
10	782,700	-43.1	584,160	-21.9	14,054	12.7	9,167	79.4
11	1,212,325	49.9	583,285	-58.1	13,853	-13.1	-	-

자료: 충청남도,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 한국감정원, 토지거래현황, 미분양주택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2013.3=100, %)

구 분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2013.10	101.6	3.3	0.6	102.1	100.1	103.9	103.2	7.6	1.3	103.6	101.4	106.3
11	102.1	3.2	0.5	102.6	100.4	104.1	104.0	6.8	0.8	104.4	102.1	106.5
12	102.6	3.4	0.5	103.4	100.5	104.5	105.1	7.1	1.1	106.1	102.3	106.8
2014.01	102.8	3.4	0.2	103.6	100.6	104.9	105.7	6.8	0.6	106.9	102.5	107.3
2	103.2	3.4	0.4	104.0	100.8	105.2	106.2	7.0	0.5	107.7	102.6	107.7
3	103.5	3.5	0.3	104.4	100.9	105.9	106.9	6.9	0.6	108.5	102.8	109.2
4	103.8	3.5	0.3	104.8	100.9	106.6	107.2	6.9	0.3	109.0	102.7	109.5
5	104.0	3.6	0.2	105.0	100.9	106.9	107.4	6.8	0.2	109.3	102.7	109.9
6	104.3	3.7	0.3	105.5	101.0	107.0	107.7	6.8	0.3	109.7	102.8	110.1
7	104.6	3.8	0.2	105.9	101.0	107.0	108.1	6.9	0.4	110.1	103.1	110.2
8	104.8	3.9	0.2	106.2	101.0	107.0	108.4	6.9	0.3	110.5	103.2	110.3
9	105.1	4.1	0.3	106.7	100.9	107.7	108.8	6.7	0.3	111.0	103.2	110.4
10	105.4	3.7	0.3	107.1	101.0	107.9	109.0	5.7	0.2	111.3	103.3	110.7
11	105.6	3.4	0.1	107.3	100.9	108.1	109.1	4.9	0.1	111.5	103.2	111.1
12	105.8	3.1	0.2	107.5	101.0	108.4	109.3	4.1	0.2	111.7	103.4	111.6
2015.01	105.9	2.9	0.1	107.6	101.0	108.4	109.4	3.5	0.1	111.7	103.6	111.8
2	105.9	2.6	0.0	107.6	101.1	108.6	109.5	3.1	0.0	111.7	103.7	111.9
3	106.0	2.4	0.1	107.7	101.2	108.5	109.6	2.6	0.1	111.8	103.8	112.3
4	106.1	2.2	0.3	107.7	101.4	108.9	109.7	2.3	0.1	111.9	103.9	112.9
5	106.2	2.1	0.1	107.8	101.4	109.0	109.8	2.2	0.1	112.0	103.9	113.1
6	106.1	1.7	-0.1	107.7	101.4	109.0	109.8	1.9	-0.1	111.9	103.8	113.1
7	106.1	1.5	0.0	107.7	101.4	109.1	109.8	1.5	0.0	111.9	103.8	113.1
8	106.0	1.2	-0.1	107.6	101.4	108.7	109.7	1.2	-0.1	111.9	103.8	112.4
9	106.0	0.8	0.0	107.5	101.4	108.9	109.8	0.1	0.1	111.9	103.9	112.6
10	106.0	0.6	0.0	107.6	101.4	108.8	109.9	0.8	0.1	112.1	103.9	112.6
11	106.2	0.6	0.1	107.7	101.6	108.8	110.1	0.9	0.2	112.2	104.4	112.6
12	106.1	0.4	-0.0	107.7	101.6	108.8	110.2	0.8	0.1	112.3	104.4	112.6
2016.01	100.0	0.2	-0.0	99.9	100.1	100.1	100.0	0.7	-0.0	100.0	100.1	100.2
2	99.9	0.1	-0.1	99.9	100.1	100.1	99.9	0.6	-0.1	99.9	100.2	100.2
3	99.8	-0.0	-0.1	99.8	100.1	100.1	99.9	0.4	-0.1	99.9	100.1	99.8
4	99.7	-0.2	-0.1	99.7	100.1	100.0	99.8	0.3	-0.1	99.8	100.0	99.8
5	99.6	-0.4	-0.1	99.4	100.1	100.0	99.7	0.1	-0.1	99.7	100.0	99.7
6	99.6	-0.4	-0.0	99.3	100.2	100.0	99.6	0.1	-0.1	99.6	100.0	99.5
7	99.3	-0.7	-0.3	98.9	100.2	100.0	99.6	-0.0	-0.1	99.5	100.0	99.5
8	99.0	-0.9	-0.3	98.6	100.2	99.9	99.4	-0.1	-0.2	99.3	100.0	99.4
9	98.9	-0.9	-0.1	98.5	100.2	99.9	99.4	-0.2	0.0	99.3	100.0	99.4
10	98.9	-1.0	-0.1	98.4	100.2	99.9	99.4	-0.6	-0.1	99.2	100.0	99.4
11	98.7	-1.3	-0.2	98.2	100.2	100.0	99.3	-0.6	-0.1	99.0	100.0	99.4

자료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4. 주요 해외경제지표

(단위: %)

구 분	미국					중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소비자 물가	수출 (BOP)	수입 (BOP)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소비자 물가	수출 (FOB)	수입 (CIF)
2011	2.9	7.3	3.2	16.2	15.5	13.9	17.1	5.4	20.3	24.9
2012	2.8	5.0	2.1	4.2	2.9	10.0	14.3	2.6	7.9	4.3
2013	1.9	3.6	1.5	1.9	-0.4	9.7	13.1	2.6	7.8	7.2
2014	2.9	4.2	1.6	2.6	4.0	8.3	12.0	2.0	6.0	0.5
2015	0.3	2.3	0.1	-7.5	-4.7	6.1	10.7	1.4	-2.9	-14.3
2014.07	0.1	0.0	2.0	1.0	-0.1	9.0	12.2	2.3	14.4	-1.6
8	0.0	0.7	1.7	0.3	-0.3	6.9	11.9	2.0	9.4	-2.4
9	0.4	-0.2	1.7	-1.7	0.5	8.0	11.6	1.6	15.2	6.9
10	0.1	0.4	1.7	1.2	0.5	7.7	11.5	1.6	11.6	4.4
11	1.0	0.4	1.3	-1.0	-1.5	7.2	11.7	1.4	4.7	-6.9
12	-0.2	-0.8	0.8	-1.3	1.4	7.9	11.9	1.5	9.7	-2.5
2015.01	-0.5	-0.5	-0.1	-3.9	-3.4	—	—	0.8	-3.5	-19.7
2	-0.1	-0.5	0.0	-1.6	-3.9	6.8	10.7	1.4	48.1	-20.6
3	-0.3	1.6	-0.1	0.3	6.4	5.6	10.2	1.4	-15.2	-12.5
4	-0.2	0.0	-0.2	1.1	-2.9	5.9	10.0	1.5	-6.7	-16.0
5	-0.2	0.9	0.0	-1.1	-1.1	6.1	10.1	1.2	-3.5	-17.4
6	-0.2	0.1	0.1	-0.2	1.5	6.8	10.6	1.4	1.5	-6.8
7	0.6	0.5	0.2	0.2	-1.9	6.0	10.5	1.6	-9.2	-8.5
8	0.1	0.1	0.2	-2.7	0.6	6.1	10.8	2.0	-5.8	-13.9
9	-0.3	0.0	0.0	0.8	-1.4	5.7	10.9	1.6	-4.0	-20.3
10	-0.1	-0.2	0.2	-1.6	-0.8	5.6	11.0	1.3	-7.1	-18.7
11	-0.6	0.4	0.5	-1.6	-1.3	6.2	11.2	1.5	-7.1	-9.0
12	-0.4	0.4	0.7	-0.5	0.0	5.9	11.1	1.6	-1.9	-7.9
2016.01	0.5	-0.5	1.4	-2.9	-1.5	—	—	1.8	-13.2	-19.5
2	-0.1	0.3	1.0	2.0	2.2	5.4	10.2	2.3	-26.7	-13.7
3	-0.9	-0.3	0.9	-2.0	-5.6	6.8	10.5	2.3	9.3	-7.9
4	0.4	1.2	1.1	2.4	2.3	6.0	10.1	2.3	-3.5	-11.1
5	-0.1	0.2	1.0	-0.5	1.9	6.0	10.0	2.0	-5.5	-0.3
6	0.5	0.7	1.0	0.8	2.4	6.2	10.6	1.9	-5.3	-8.4
7	0.3	0.1	0.8	2.9	-1.1	6.0	10.2	1.8	-5.4	-12.5
8	-0.1	0.0	1.1	1.0	0.6	6.3	10.6	1.3	-2.8	1.5
9	-0.2	1.0	1.5	1.1	-1.0	6.1	10.7	1.9	-10.0	-1.9
10	0.0	0.8	1.6	-2.8	1.5	6.1	10.0	2.1	-7.3	-1.4

주: (미국) 월별 및 분기별 전기대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산업생산(전산업, 2007=100), 최근 수치는 잠정치 포함

(중국) 전년동기대비 기준, 산업생산(전산업), 최근 수치는 잠정치 포함, 2월은 1~2월 누계치임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제2016-48호)

(단위: %)

구 분	일본					유로지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소비자 물가	수출 (FOB)	수입 (CIF)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소비자 물가	수출 (FOB)	수입 (CIF)
2011	-2.8	-1.0	-0.3	-2.7	12.1	3.5	-0.4	2.7	13.5	13.8
2012	0.6	1.8	0.0	-2.7	3.8	-2.3	-1.4	2.5	7.9	1.8
2013	-0.8	0.9	0.4	9.5	14.9	-0.7	-0.6	1.4	1.1	-2.8
2014	2.1	1.7	2.7	4.8	5.7	0.9	1.5	0.4	2.3	0.8
2015	-1.2	-0.4	0.8	3.4	-8.7	2.0	2.7	0.0	5.0	2.1
2014.03	0.5	6.5	1.6	1.8	18.2	-0.5	0.6	0.5	-2.1	-0.5
4	-2.3	-13.4	3.4	5.0	3.6	1.3	-0.2	0.7	0.7	-0.1
5	0.3	3.8	3.7	-2.8	-3.5	-0.9	0.0	0.5	0.9	0.9
6	-1.9	0.9	3.6	-2.0	8.6	-0.3	0.5	0.5	0.4	1.8
7	-0.1	0.6	3.4	3.9	2.4	0.7	-0.9	0.4	-0.1	0.0
8	-0.8	1.2	3.3	-1.3	-1.4	-1.2	1.2	0.4	-0.9	-1.9
9	1.4	1.7	3.2	6.9	6.2	0.8	-0.6	0.3	3.7	1.8
10	0.4	-0.6	2.9	9.6	3.1	-0.1	0.5	0.4	-0.4	-1.6
11	-0.6	0.0	2.4	4.9	-1.6	0.1	0.6	0.3	0.1	-0.8
12	0.2	0.0	2.4	12.8	1.9	1.1	0.3	-0.2	1.2	-0.2
2015.01	2.9	-1.6	2.4	16.9	-9.3	-0.2	0.6	-0.6	-0.3	-0.1
2	-2.2	0.4	2.2	2.4	-3.6	1.1	-0.1	-0.3	1.2	2.2
3	-0.5	-0.9	2.3	8.5	-14.4	0.3	0.1	-0.1	0.8	4.9
4	0.7	0.2	0.6	7.9	-4.1	-0.7	0.5	0.0	1.9	-1.1
5	-2.2	0.8	0.5	2.4	-8.7	0.1	0.2	0.3	0.9	0.2
6	1.7	-0.3	0.4	9.5	-3.1	0.5	0.1	0.2	-1.9	-1.3
7	-0.9	0.9	0.2	7.6	-3.3	0.5	0.1	0.2	0.6	-1.1
8	-0.7	-0.1	0.2	3.1	-3.2	-0.9	0.7	0.1	-3.5	-1.6
9	0.3	0.4	0.0	0.5	-11.0	0.3	-0.3	-0.1	0.3	0.4
10	1.2	1.2	0.3	-2.2	-13.4	0.6	-0.2	0.1	1.8	0.8
11	-1.1	-2.2	0.3	-3.4	-10.2	-0.3	0.2	0.1	-0.1	-1.3
12	-1.2	-0.2	0.2	-8.0	-18.0	-0.5	0.6	0.2	1.4	0.7
2016.01	2.5	-0.4	-0.1	-12.9	-17.8	2.5	0.3	0.3	-2.0	-0.8
2	-5.2	-2.3	0.2	-4.0	-14.2	-1.5	0.3	-0.2	-0.3	0.2
3	3.8	1.5	0.0	-6.8	-14.9	-0.8	-0.5	0.0	0.8	-2.3
4	0.5	-0.1	-0.3	-10.1	-23.3	1.4	0.2	-0.2	0.3	-0.2
5	-2.6	-0.1	-0.5	-11.3	-13.7	-1.4	0.3	-0.1	-1.8	-1.3
6	2.3	0.3	-0.4	-7.4	-18.7	0.9	0.1	0.1	1.1	1.6
7	-0.4	1.5	-0.4	-14.0	-24.6	-0.7	0.4	0.2	-0.8	1.0
8	1.3	-1.2	-0.5	-9.6	-17.2	1.8	-0.1	0.2	2.2	0.8
9	0.6	0.3	-0.5	-6.9	-16.2	-0.8	-0.4	0.4	-0.5	-1.6
10	0.1	2.5	0.1	-10.3	-16.5	-	1.1	0.5	-	-

주: (일본) 수출입, 물가 전년동기대비, 기타 전기대비 기준, 산업생산(광공업), 최근 수치는 잠정치 포함, 기준년(2010=100)임

(유로) 계절조정 후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기타 전기대비 기준, 역내교역제외, 산업생산(건설업 제외 전산업), 최근 수치는 잠정치 포함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제2016-48호)

충남의 밝은 미래 충남연구원이 열어갑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연구원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